

보도 일시	2022. 9. 29.(목) 12:00	배포 일시	2022. 9. 29.(목) 08:30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구현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장수안 (042-481-2240)

2022 고령자 통계

일 러 두 기

-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자산·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및 의식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여 「고령자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인용된 각 통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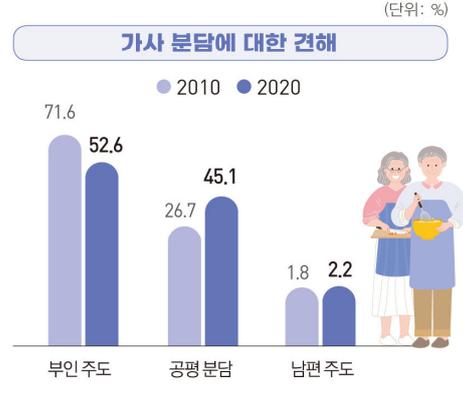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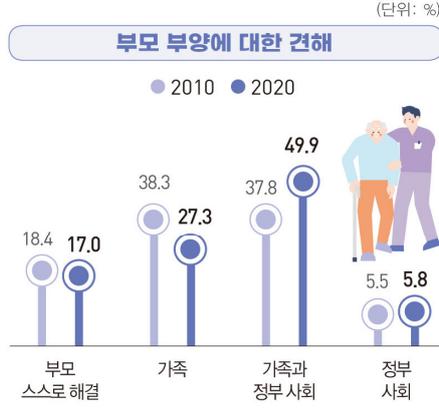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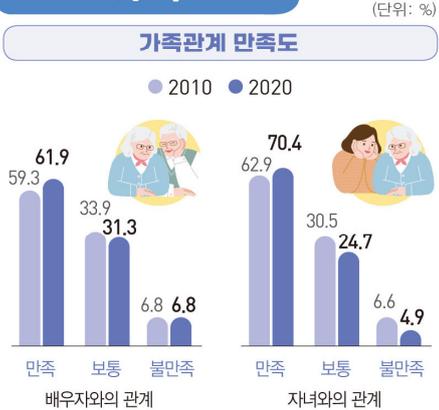
< 연령이 다른 통계 자료출처 및 대상 연령 >

-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60세 이상
-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현황」, 질병관리청: 60세 이상
- 「상대적빈곤율」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OECD: 66세 이상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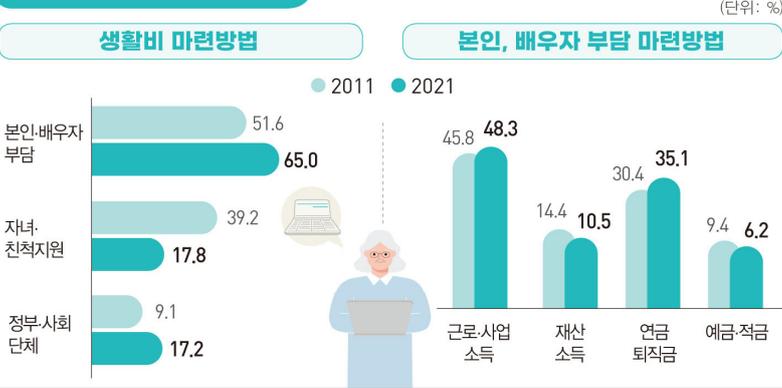
- 금년에는 특별기획으로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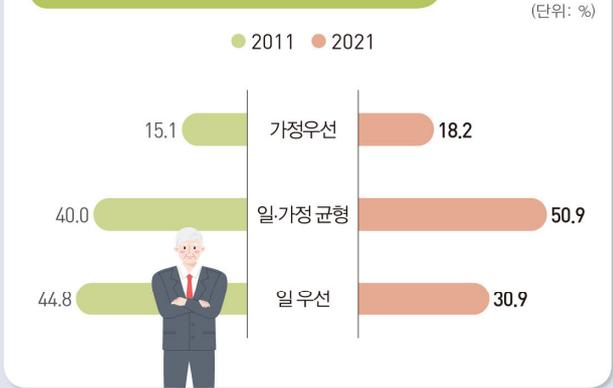
가족



생활비 마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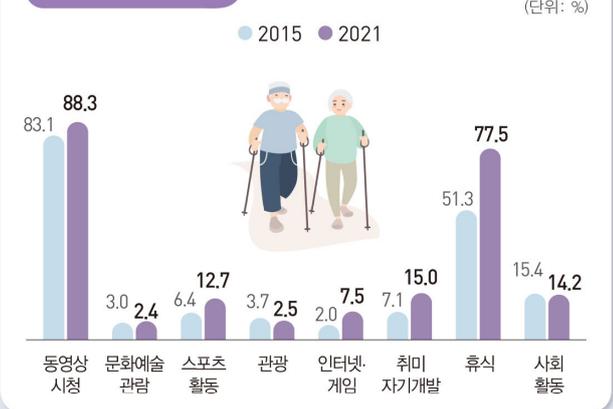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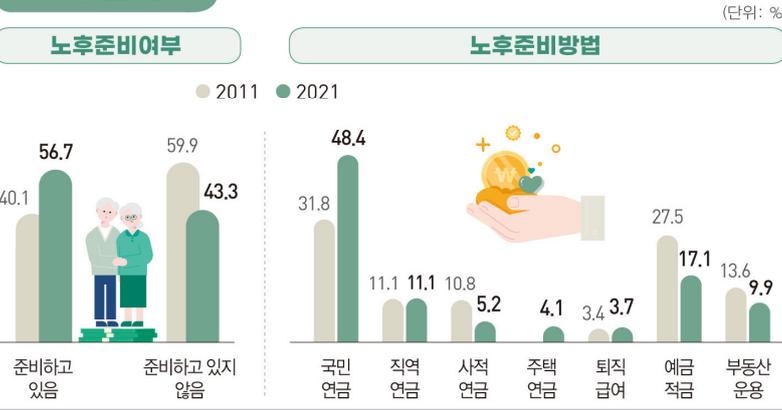
취업의사 및 일자리 선택기준



여가활동



노후준비



선호하는 장례방법



2022 고령자 통계

고령인구(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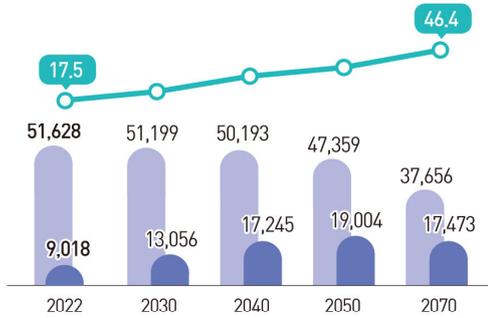
(단위: 천명, %)

(단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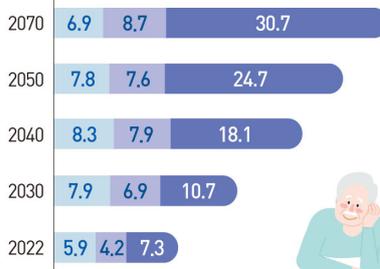
고령인구 및 비중

● 총 인구 ● 65세 이상 ○ 65세이상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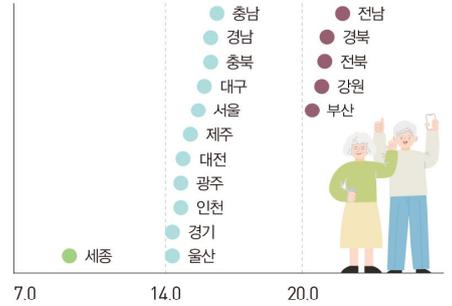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

■ 65~69세 ■ 70~74세 ■ 75세이상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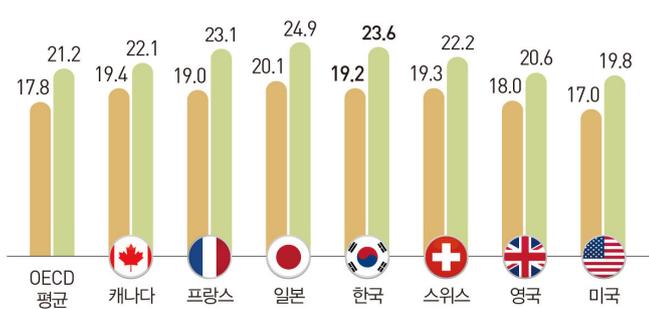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65세 기대여명(2020)

(단위: 년)

● 남자 ● 여자



고령자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천원)

● 1인당 진료비 ○ 1인당 본인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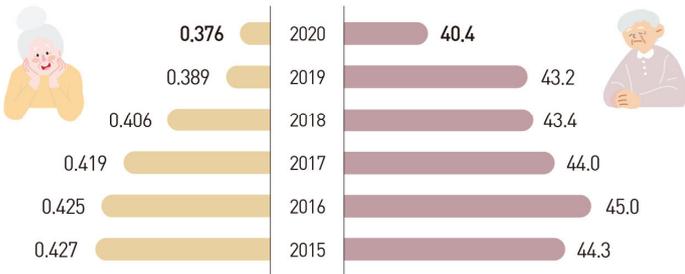


은퇴연령(66세이상)의 노인빈곤율

(단위: %)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자의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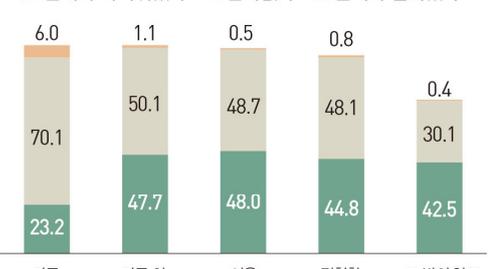
● 고용률 ○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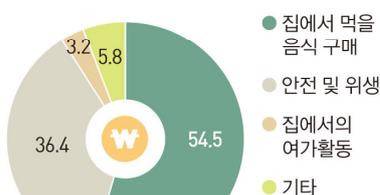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자의 생활 변화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2021)

■ 관계가 가까워졌다 ■ 변화없다 ■ 관계가 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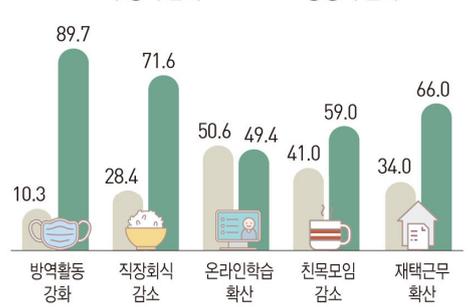
소비 생활의 변화(2021)



일상생활의 변화(2021)

(단위: %)

● 부정적 견해 ● 긍정적 견해



목 차

□ 요약	1
□ 2022 고령자 통계	5
<특별기획>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	6
I.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21
2. 지역별 고령인구	24
3. 고령자 가구	25
4. 이혼 및 재혼	26
II. 건강	
5. 기대여명	27
6. 사망원인별 사망률	28
7. 본인부담 의료비	29
8. 건강검진 수검률	30
9. 운동 실천율	31
10.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32
11. 노인 복지시설	33
III. 소득보장	
12. 자산 소유액 및 구성	34
13. 은퇴연령층 빈곤율	35
14. 공적연금 수급률	36
15. 고용률	37

IV. 사회참여·관계

16. 평생교육 참여율	39
17. 자원봉사 참여율	40
18. 사회단체 참여율	41
19. 인간관계 만족도	42
20. 노인차별	43
21. 세대갈등	44

V. 생활환경

22. 주택 소유율	45
23. 지역환경 만족도	46
24. 보행 안전성	47
25. 운전자 사고비중	48
26.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49

VI. 코로나19

27. 코로나19 발생률	50
28. 방역수칙 준수	51
29. 사회적 관계망 변화	52
30. 소비 생활 변화	53
31. 일상생활 변화	54

□ 통계표	55
-------------	----

※ 국제비교	88
--------------	----

2022 고령자 통계 [요약]

특별기획 |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

지난 10년간 부모 부양은 가족정부사회의 책임, 가사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고령자 의식변화

- '20년 고령자의 49.9%는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12.1%p 증가함 (8쪽)
- '20년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45.1%로 지난 10년간 18.4%p 증가함 (9쪽)
- '21년 고령자의 50.9%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난 10년간 그 비중은 10.9%p 증가함 (10쪽)

생활비 마련은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은 15.6% · 소비는 11.2% 만족함

- '21년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65.0%로 지난 10년간 13.4%p 증가하였고,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17.2%로 8.1%p 증가함 (11쪽)
- '21년 고령자 15.6%는 소득에 만족, 11.2%는 소비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소득 만족 비중은 8.1%p, 소비 만족 비중은 3.1%p 각각 증가함 (12쪽)

65~79세 고령자 54.7%는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 보탬

- '22년 65세~79세 고령자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p 증가 (13쪽)
-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많았고, 10년 전보다 2.3%p 증가
- '22년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65~79세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 35.2%, 임금수준 16.0%, 계속 근로 가능성 15.2% 순임 (14쪽)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 56.7%, 본인의 선호하는 장례 방법 화장 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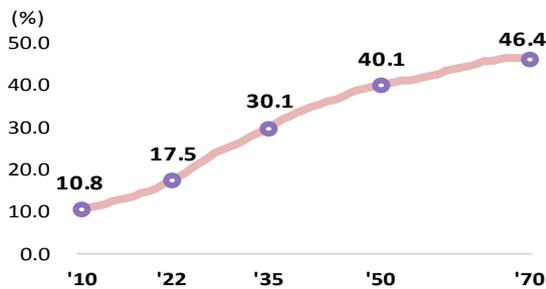
- '21년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10년간 16.6%p 증가함 (19쪽)
-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48.4%, 예·적금 17.1%, 직역연금 11.1% 순이고,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16.6%p 증가하였으나, 예·적금은 10.4%p 감소함
- '21년 고령자 본인이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81.6%, 매장 17.8%로 지난 10년간 화장은 24.9%p 증가하였고, 매장은 21.0%p 감소함 (20쪽)

I 인구·가구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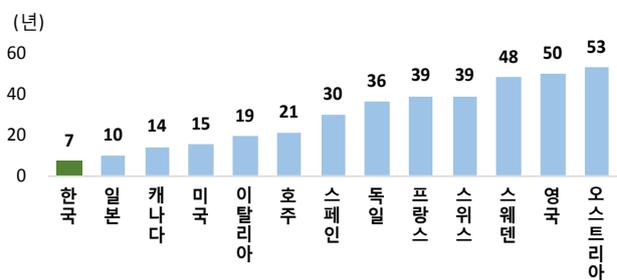
-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21쪽)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 20%)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함 (22쪽)
- '22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5곳임 (24쪽)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OECD 주요국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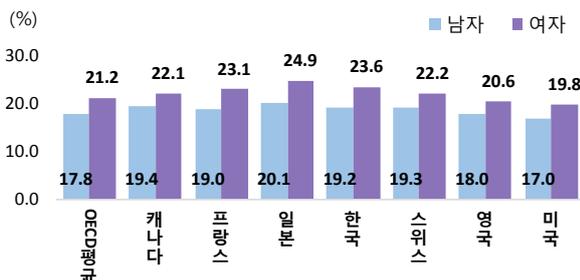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등

II 건강

2020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3년임

- '20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남자 19.2년, 여자 23.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4년, 여자는 2.4년 더 높은 수준임 (27쪽)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악성신생물(암) 709.3명, 심장질환 312.0명, 폐렴 250.3명, 뇌혈관질환 220.6명, 알츠하이머병 92.0명 순임 (28쪽)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75만 9천원, 본인부담금은 110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만 7천원, 1만 1천원 감소함 (29쪽)

< 기대여명(65세, 2020) >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2.9.4 기준)

< 고령자(65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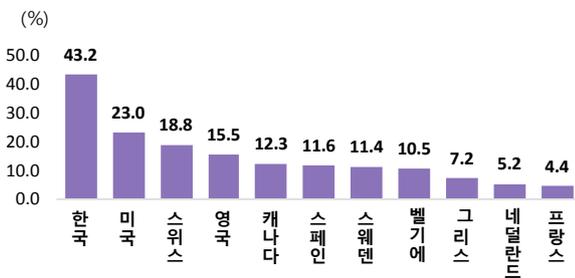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III 소득보장

2021년 고령자 가구 순자산은 4억 1,048만원, 고용률은 34.9%, 실업률은 3.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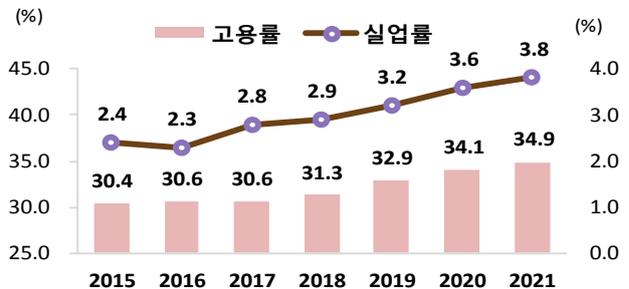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1,048만원으로 전년 대비 6천 94만원 증가함 (34쪽)
- '20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0.4%, 지니계수 0.376, 소득 5분위 배율 6.62배이고, '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임 (35쪽)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 실업률은 3.8%로 전년보다 각각 0.8%p, 0.2%p 상승함 (37쪽)

<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66세 이상, 2019) >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2.9.4. 기준)

<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률 및 실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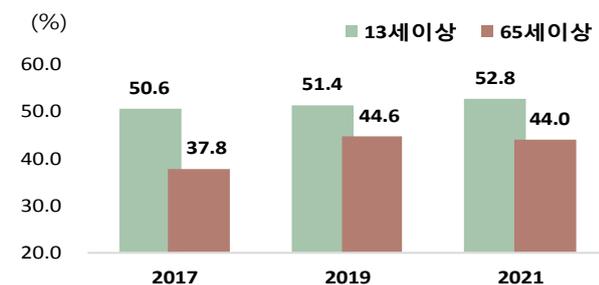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IV 사회참여관계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간관계 만족도는 44.0%, 사회단체 참여율은 28.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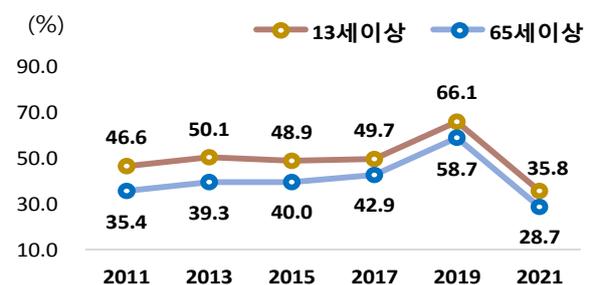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28.7%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고, 전체 연령대 참여율(35.8%)보다 7.1%p 낮았음 (41쪽)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4.0%로 2년 전보다 0.6%p 낮아짐 (42쪽)
- '21년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7%로, 「장애인」, 「이주민」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43쪽)

< 인간관계 만족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단체 참여율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V 생활환경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7.0명, 부상률은 109.9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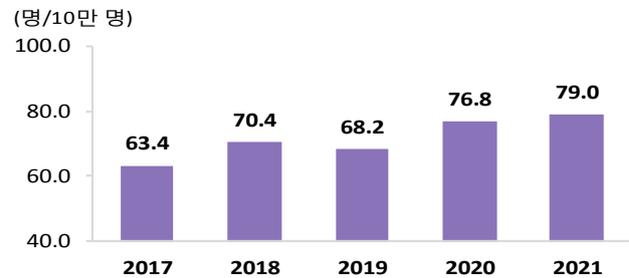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7.0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감소하였고, 보행 교통사고 부상률은 109.9명으로 3.4명 감소함 (47쪽)
- '21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중은 24.3%, 부상자 발생 비중은 15.3%으로 전년 대비 각각 0.9%p, 0.8%p 증가함 (48쪽)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 중 79명은 학대피해 경험이 있으며, 여자의 피해 경험률이 106.1명으로 남자(43.8명)보다 2.4배 이상 높은 수준임 (49쪽)

<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 및 부상률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학대피해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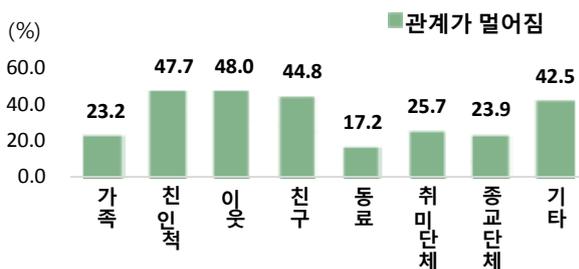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VI 코로나19

2021년 60세 이상 고령자 10만명 당 코로나19 발생률은 1,039.6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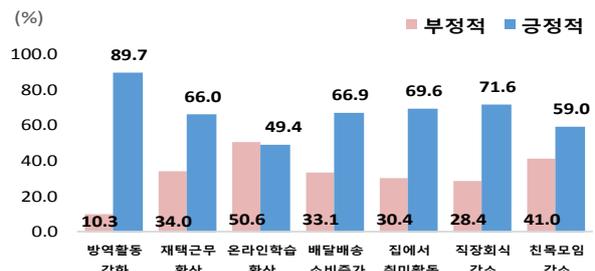
- '21년 60세 이상 고령자 10만명 당 코로나19 발생률은 1,039.6명임 (50쪽)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이웃(48.0%), 친인척(47.7%), 절친한 친구(44.8%) 순으로 응답함 (52쪽)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일상생활 변화로 방역·위생 활동 강화(89.7%), 직장에서 단체 회식 감소(71.6%) 순으로 평가함 (54쪽)

<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일상생활 변화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2 고령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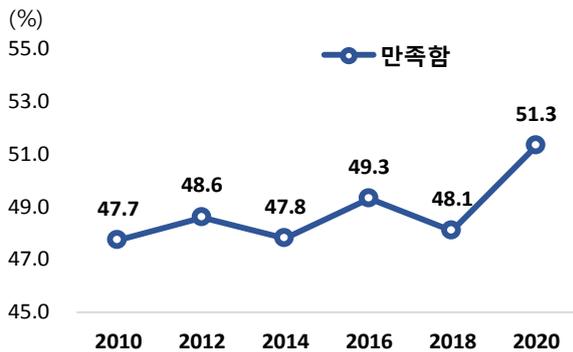
<특별기획> 지난 10년간 고령자 인식변화

1.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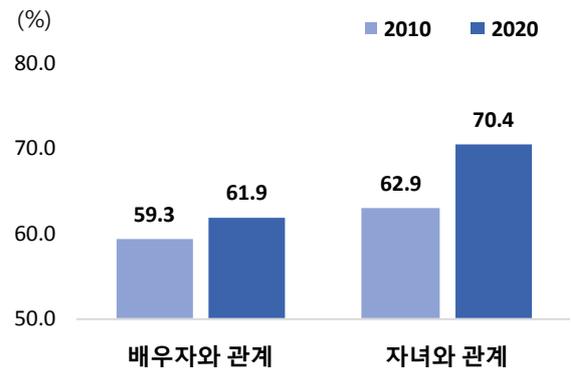
2020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51.3%이며, 지난 10년간 3.6%p 증가함

- '20년 고령자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중은 51.3%로 지난 10년간 3.6%p 증가함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고령자는 61.9%로 지난 10년간 2.6%p 증가하였고, 남자는 만족이 증가한 반면, 여자는 불만족이 증가함
 -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70.4%이며 지난 10년간 7.5%p 증가함
- '20년 남자는 여자보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도가 높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음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



< 자녀·배우자와 관계 만족도(만족)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가족관계 만족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전체	2010	47.7	47.2	5.0	59.3	33.9	6.8	62.9	30.5	6.6
	2012	48.6	46.5	4.9	57.3	35.1	7.7	65.3	29.0	5.7
	2014	47.8	46.9	5.4	58.8	33.5	7.7	66.6	27.8	5.6
	2016	49.3	46.3	4.4	59.0	34.2	6.7	66.3	28.6	5.1
	2018	48.1	47.5	4.4	60.8	32.2	7.0	68.1	26.3	5.6
	2020	51.3	44.8	3.9	61.9	31.3	6.8	70.4	24.7	4.9
남자	2010	49.2	47.0	3.8	63.2	32.0	4.8	64.5	30.0	5.5
	2020	52.4	43.6	4.0	68.8	27.4	3.8	69.8	25.1	5.1
여자	2010	46.7	47.4	5.8	53.8	36.5	9.7	61.8	30.9	7.3
	2020	50.5	45.7	3.8	52.5	36.7	10.8	70.8	24.4	4.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2)'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2. 결혼, 이혼에 대한 견해

2020년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75.9%로 지난 10년간 7.6%p 감소하였고,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55.6%로 지난 10년간 25.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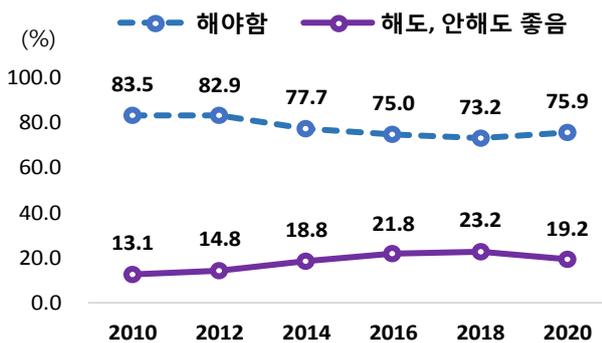
□ '20년 고령자 중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75.9%이며, 지난 10년간 7.6%p 감소함

○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지난 10년간 6.1%p 증가한 1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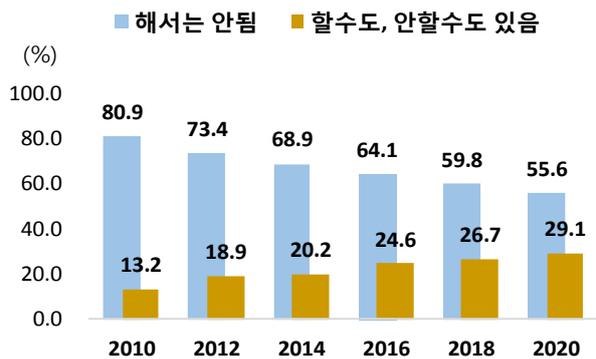
□ '20년 고령자 중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5.6%이며, 지난 10년간 25.3%p 감소함

○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지난 10년간 15.9%p 증가함

< 결혼에 대한 견해 >



< 이혼에 대한 견해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결혼 · 이혼에 대한 견해 >

(단위: %)

	연도	결혼				이혼			
		해야 한다 ¹⁾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²⁾	잘 모르겠다	해서는 안 된다 ³⁾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10	83.5	13.1	2.3	1.1	80.9	13.2	3.9	2.0
	2012	82.9	14.8	1.1	1.2	73.4	18.9	5.6	2.1
	2014	77.7	18.8	1.5	2.1	68.9	20.2	7.7	3.2
	2016	75.0	21.8	1.5	1.6	64.1	24.6	9.1	2.2
	2018	73.2	23.2	1.8	1.8	59.8	26.7	10.4	3.1
	2020	75.9	19.2	2.6	2.4	55.6	29.1	10.8	4.6
남자	2010	86.2	11.6	1.4	0.8	81.4	13.0	4.1	1.6
	2020	81.0	15.7	1.7	1.7	58.3	28.1	9.5	4.1
여자	2010	81.7	14.2	2.8	1.3	80.6	13.4	3.8	2.3
	2020	72.1	21.8	3.2	2.9	53.5	29.8	11.7	5.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수치임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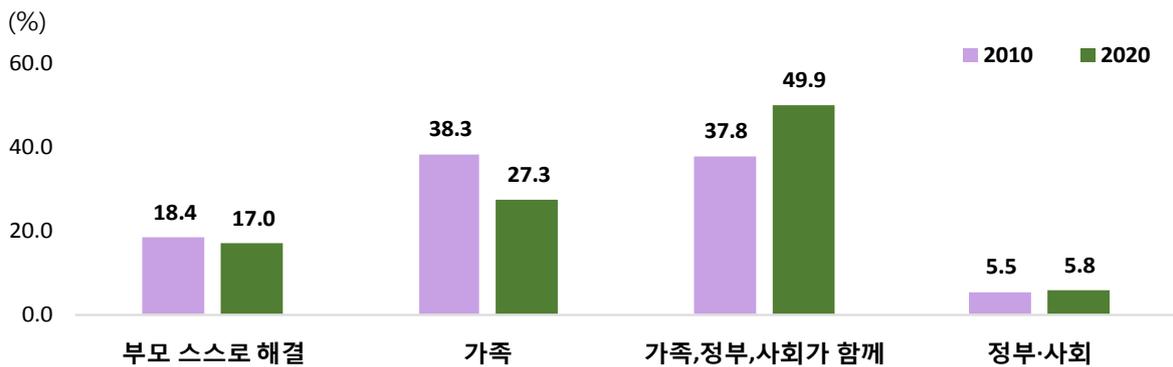
3)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를 합한 수치임

3.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2020년 고령자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가족·정부·사회 책임 49.9%, 가족의 책임 27.3%이고, 지난 10년간 가족·정부·사회의 책임은 12.1%p 증가

- '20년 고령자의 49.9%는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12.1%p 증가함
 - 부모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27.3%로, 지난 10년간 11.0%p 감소함
 - 가족이 부양할 경우 장남(만며느리)이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는 지난 8년간 16.0%p 감소하였음
 - 부모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17.0%로 지난 10년간 1.4%p 감소함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단위: %)

	계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 사회	정부, 사회	기타	가족 중 부모 부양자 ¹⁾					
							소계 ²⁾	장남 (만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모든 자녀	자식 중 능력 있는 자
2010	100.0	18.4	38.3	37.8	5.5	0.1	100.0	28.2	8.6	1.0	47.8	14.3
2012	100.0	22.3	36.6	34.6	6.4	0.1	100.0	16.7	5.5	0.6	60.8	16.4
2014	100.0	23.8	34.1	35.7	6.4	-	100.0	14.2	5.0	0.7	62.4	17.8
2016	100.0	27.2	32.6	32.6	7.6	0.0	100.0	12.4	5.4	1.0	60.0	21.1
2018	100.0	24.9	29.7	37.1	8.4	0.0	100.0	12.2	6.2	1.4	59.3	20.9
2020	100.0	17.0	27.3	49.9	5.8	0.0	-	-	-	-	-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2020년부터 가족 중 부모 부양자에 대한 견해는 조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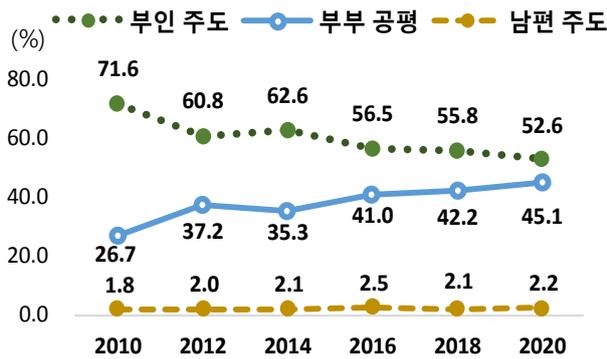
2)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 '가족과 정부, 사회'가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4.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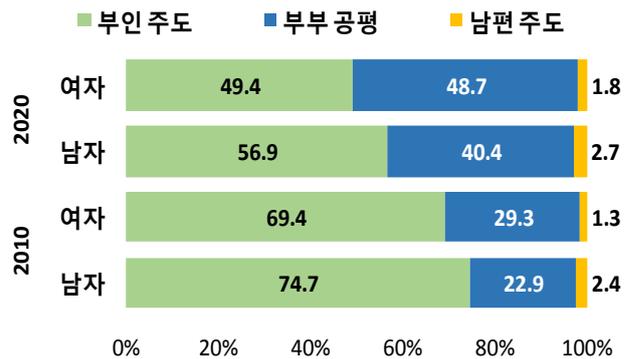
2020년 고령자의 45.1%는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10년간 18.4%p 증가함

- '20년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45.1%로 지난 10년 동안 18.4%p 증가함
 - 가사를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52.6%로 지난 10년간 19.0%p 감소함
- '20년 가사는 부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남자가 56.9%로 여자보다 7.5%p 높았고,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자가 48.7%로 남자보다 8.3%p 높았음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전체) >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성별 비교)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 >

(단위: %)

	연도	계	부인이 주도	부인이 주도하지만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남편이 주도하지만	
				전적으로 책임	남편도 분담			부인도 분담	전적으로 책임
전체	2010	100.0	71.6	16.4	55.2	26.7	1.8	1.4	0.4
	2012	100.0	60.8	12.7	48.1	37.2	2.0	1.8	0.2
	2014	100.0	62.6	12.6	50.0	35.3	2.1	1.7	0.4
	2016	100.0	56.5	9.7	46.8	41.0	2.5	1.9	0.6
	2018	100.0	55.8	9.6	46.2	42.2	2.1	1.6	0.5
	2020	100.0	52.6	8.5	44.1	45.1	2.2	1.6	0.6
남자	2010	100.0	74.7	18.6	56.1	22.9	2.4	1.9	0.5
	2020	100.0	56.9	9.7	47.2	40.4	2.7	1.9	0.8
여자	2010	100.0	69.4	14.9	54.5	29.3	1.3	1.0	0.3
	2020	100.0	49.4	7.6	41.8	48.7	1.8	1.3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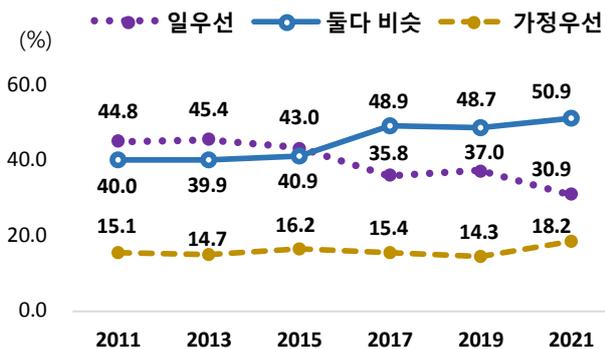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5.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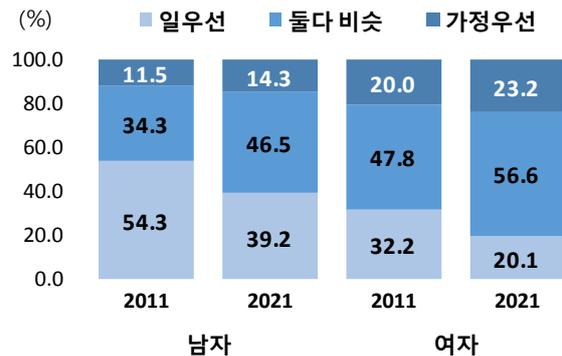
2021년 고령자의 50.9%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난 10년간 그 비중은 10.9%p 증가함

- '21년 고령자의 50.9%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 우선 30.9%, 가정생활 우선 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은 지난 10년간 10.9%p 증가함
 - 10년 전보다 일 우선 비중은 13.9%p 감소한 반면, 가정생활 우선은 3.1%p 증가함
- '21년 일 우선 비중은 남자는 39.2%로 여자보다 19.1%p 높았고, 가정생활 우선 비중은 여자가 23.2%로 남자보다 8.9%p 높았음

<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전체) >



<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성별 비교)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

(단위: %)

	연도	계 ¹⁾	일 우선시			둘 다 비슷	가정생활 우선시		
			주요	대체로	주요		대체로	주요	
전체	2011	100.0	44.8	22.2	22.6	40.0	15.1	11.0	4.1
	2013	100.0	45.4	22.2	23.2	39.9	14.7	9.0	5.7
	2015	100.0	43.0	21.7	21.3	40.9	16.2	10.7	5.5
	2017	100.0	35.8	17.6	18.2	48.9	15.4	12.3	3.1
	2019	100.0	37.0	16.8	20.2	48.7	14.3	11.9	2.4
	2021	100.0	30.9	12.3	18.6	50.9	18.2	14.1	4.1
남자	2011	100.0	54.3	26.4	27.9	34.3	11.5	7.6	3.9
	2021	100.0	39.2	15.1	24.1	46.5	14.3	11.7	2.6
여자	2011	100.0	32.2	16.6	15.6	47.8	20.0	15.6	4.4
	2021	100.0	20.1	8.7	11.4	56.6	23.2	17.2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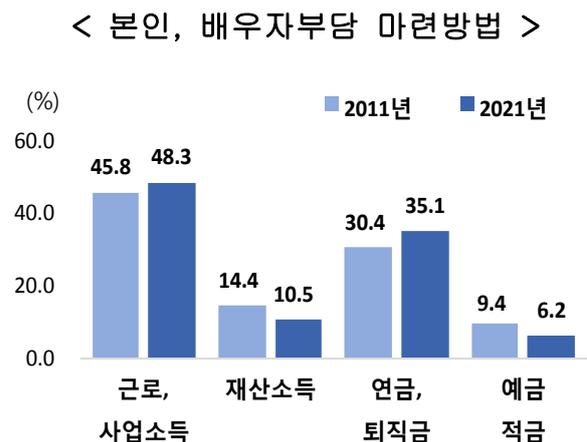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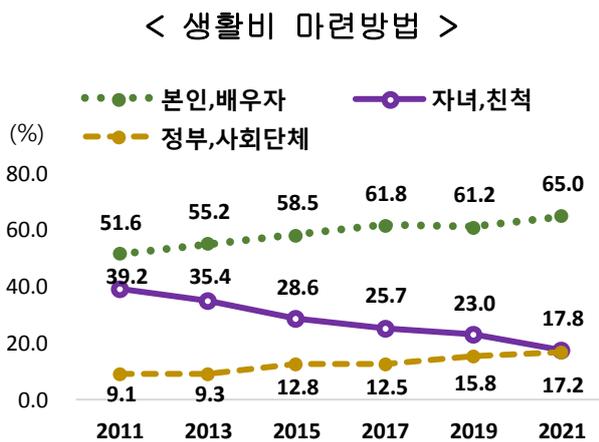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

6. 생활비 마련 방법

2021년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배우자 부담이 65.0%로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그 비중은 13.4% 증가함

- '21년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65.0%로 지난 10년간 13.4%p 증가하였고,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17.2%로 8.1%p 증가함
 - 자녀·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는 17.8%로 지난 10년간 21.4%p 감소함
- '21년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근로·사업소득이 48.3%로 가장 많았고,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순임
 - 지난 10년간 연금·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4.7%p 증가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생활비 마련 방법 >

(단위: %)

연도	계	본인·배우자 부담	본인·배우자 부담						자녀·친척지원	정부·사회단체	기타
			소계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퇴직금	예금·적금	기타			
2011	100.0	51.6	100.0	45.8	14.4	30.4	9.4	-	39.2	9.1	0.1
2013	100.0	55.2	100.0	46.8	14.1	28.0	11.0	-	35.4	9.3	0.1
2015	100.0	58.5	100.0	44.7	14.0	34.1	7.3	-	28.6	12.8	0.1
2017	100.0	61.8	100.0	44.7	12.9	33.2	9.1	0.0	25.7	12.5	-
2019	100.0	61.2	100.0	47.4	12.8	32.1	7.7	0.0	23.0	15.8	-
2021	100.0	65.0	100.0	48.3	10.5	35.1	6.2	0.0	17.8	17.2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7. 소득 및 소비 만족도

2021년 고령자의 15.6%는 소득에 만족, 11.2%는 소비에 만족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소득 만족 비중은 8.1%p, 소비 만족 비중은 3.1%p 각각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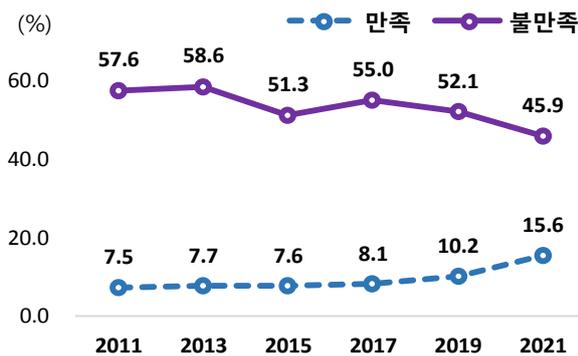
□ '21년 고령자 중 소득에 만족하는 비중은 15.6%로 지난 10년간 8.1%p 증가한 반면, 불만족 비중은 11.7%p 감소함

○ 지난 10년간 소득 만족도는 남자는 7.9%p, 여자는 8.5%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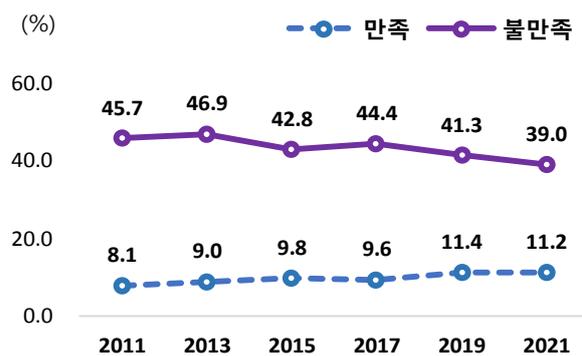
□ '21년 고령자 중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비중은 11.2%로 지난 10년간 3.1%p 증가한 반면, 불만족 비중은 6.7%p 감소함

○ 지난 10년간 소비생활 만족도는 여자는 4.0%p, 남자는 1.7%p 증가함

< 소득 만족도 >



< 소비 만족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소득 및 소비 만족도 >

(단위: %)

	연도	소득 만족도 ¹⁾			소비 만족도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전체	2011	7.5	34.9	57.6	8.1	46.1	45.7
	2013	7.7	33.7	58.6	9.0	44.1	46.9
	2015	7.6	41.1	51.3	9.8	47.4	42.8
	2017	8.1	36.9	55.0	9.6	46.0	44.4
	2019	10.2	37.7	52.1	11.4	47.3	41.3
	2021	15.6	38.5	45.9	11.2	49.8	39.0
남자	2011	8.7	37.7	53.6	9.8	47.3	42.9
	2021	16.6	36.3	47.0	11.5	50.5	38.0
여자	2011	6.3	32.0	61.7	7.0	45.3	47.7
	2021	14.8	40.4	44.9	11.0	49.2	39.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2)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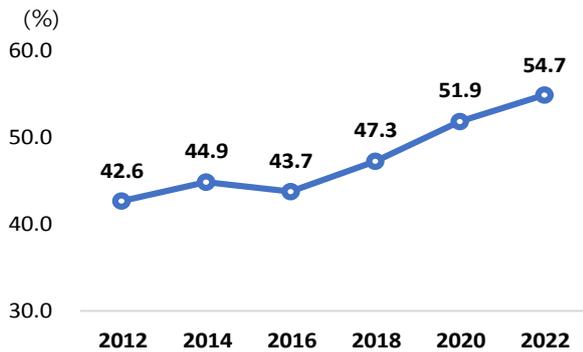
3)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8.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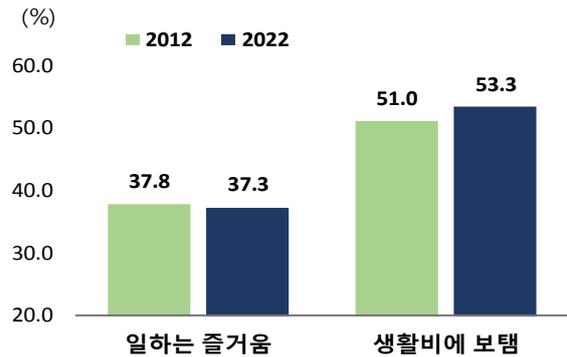
2022년 65세~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p 증가,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10년간 2.3%p 증가함

- '22년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고령자는 54.7%로 지난 10년간 12.1%p 증가함
- '22년 65~79세 고령자가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 53.3%, 일하는 즐거움 37.3% 순임
- 지난 10년간 생활비 보탬은 2.3%p 증가한 반면, 일하는 즐거움은 0.5%p 감소함
 - 생활비에 보탬은 남자가 4.7%p 증가한 반면, 여자는 0.6%p 감소하였고, 일하는 즐거움은 남자가 3.0%p 감소한 반면, 여자는 2.5%p 증가하였음

< 장래 근로 원함 (65세~79세) >



< 취업을 원하는 이유 (65세~79세)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65~79세) >

(단위: %)

	연도	장래근로 원함	취업원인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전체	2012	42.6	100.0	37.8	51.0	1.3	3.0	6.6	0.2
	2014	44.9	100.0	39.7	51.0	0.9	2.8	5.4	0.2
	2016	43.7	100.0	36.5	55.2	1.4	2.4	4.4	0.1
	2018	47.3	100.0	34.8	57.2	1.1	2.4	4.5	0.0
	2020	51.9	100.0	37.1	54.5	1.5	2.4	4.4	0.0
	2022	54.7	100.0	37.3	53.3	1.2	3.0	5.2	0.0
남자	2012	53.9	100.0	43.8	45.0	1.9	3.2	6.0	0.2
	2022	64.4	100.0	40.8	49.7	1.6	3.4	4.6	0.0
여자	2012	34.1	100.0	30.7	58.3	0.6	2.7	7.4	0.3
	2022	46.4	100.0	33.2	57.7	0.8	2.5	5.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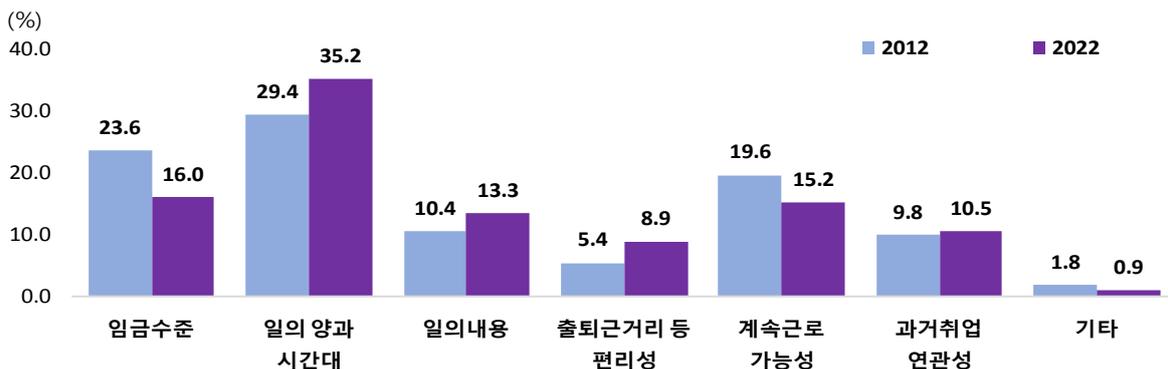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원자료를 직접 집계하여 산출

9. 일자리 선택기준

2022년 장래 취업을 희망하는 65세~79세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10년간 5.8%p 증가함

- '22년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65~79세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 35.2%, 임금수준 16.0%, 계속 근로 가능성 15.2% 순임
 - 지난 10년간 일의 양과 시간대는 5.8%p, 출퇴근 편리성은 3.5%p 증가한 반면, 임금수준 7.6%p, 계속근로 가능성은 4.4%p 각각 감소함
- '22년 남자는 일의 양과 시간대(28.9%), 계속 근로 가능성(18.4%), 임금수준(16.9%) 순이며, 여자는 일의 양과 시간대(42.7%), 임금수준(15.0%), 일의 내용(12.2%) 순임

< 일자리 선택기준(65~79세)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 일자리 선택기준(65~79세) >

(단위: %)

		전체 ¹⁾	임금 수준	일의 양·시간대	일의 내용	출퇴근 편리성	계속근로 가능성	과거취업 연관성	기타
전체	2012	100.0	23.6	29.4	10.4	5.4	19.6	9.8	1.8
	2014	100.0	16.9	36.3	12.4	6.1	16.8	10.4	1.0
	2016	100.0	17.5	35.1	12.0	5.8	16.2	12.5	0.9
	2018	100.0	18.9	35.5	11.7	7.4	15.2	10.4	0.8
	2020	100.0	15.6	36.0	12.6	8.6	16.1	10.0	1.0
	2022	100.0	16.0	35.2	13.3	8.9	15.2	10.5	0.9
남자	2012	100.0	23.1	23.6	11.9	4.6	23.0	11.3	2.5
	2022	100.0	16.9	28.9	14.2	7.2	18.4	13.2	1.3
여자	2012	100.0	24.1	36.4	8.7	6.4	15.5	8.0	0.9
	2022	100.0	15.0	42.7	12.2	10.8	11.3	7.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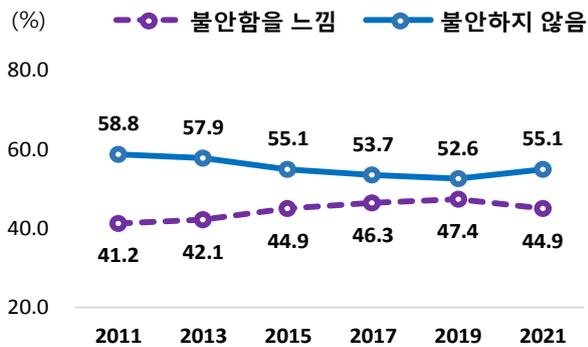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원자료를 직접 집계하여 산출
 주: 1)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층

10. 고용 안정성

2021년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고령 취업자는 44.9%이며, 지난 10년간 3.7%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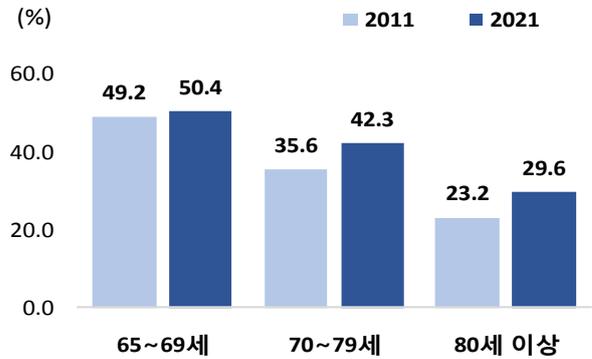
- '21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고령자 중 44.9%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3.7%p 증가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50.4%, 70~79세 42.3%, 80세 이상 29.6%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지난 10년간 고용 불안감은 70~79세에서 6.7%p, 80세 이상에서 6.4%p, 65~69세에서 1.2%p 각각 증가함

< 고용 안정성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연령별 고용 안정성 (불안함을 느낌) >



< 고용 안정성¹⁾ >

(단위: %)

		전체	불안함을 느낌	불안함을 느끼지 않음		별로	전혀
				매우	약간		
전체	2011	100.0	41.2	14.9	26.3	58.8	20.2
	2013	100.0	42.1	14.1	28.0	57.9	21.5
	2015	100.0	44.9	11.9	32.9	55.1	14.8
	2017	100.0	46.3	12.9	33.4	53.7	18.0
	2019	100.0	47.4	11.8	35.6	52.6	12.9
	2021	100.0	44.9	12.3	32.6	55.1	17.7
65~69세	2011	100.0	49.2	17.4	31.8	50.8	15.1
	2021	100.0	50.4	13.6	36.8	49.6	14.5
70~79세	2011	100.0	35.6	13.3	22.3	64.4	23.1
	2021	100.0	42.3	11.8	30.5	57.7	19.0
80세 이상	2011	100.0	23.2	7.9	15.3	76.8	36.2
	2021	100.0	29.6	7.4	22.2	70.4	27.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조사 기준일 직전 지난 일주일간 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21년은 21.55~5.11까지 일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

11. 사회적 관계망

2021년 몸이 아플 때 부탁 할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69.1%이며, 지난 10년간 2.4%p 감소, 우울할 때 도움 사람이 있는 고령자는 70.1%이며, 지난 10년간 2.2%p 증가

□ '21년 고령자의 69.1%는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으며, 지난 10년간 2.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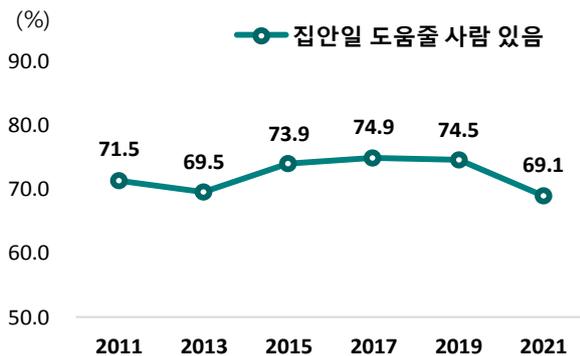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자가 6.1%p 감소한 반면, 여자는 0.3%p 증가함

*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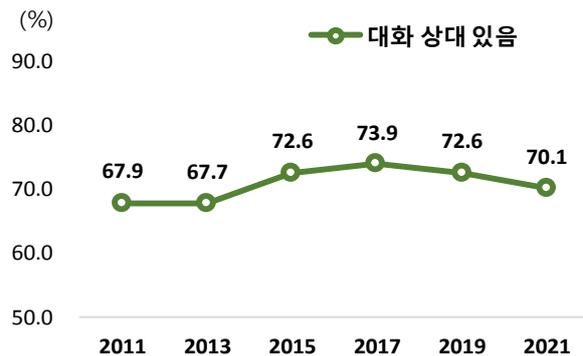
□ '21년 고령자의 70.1%는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며, 지난 10년간 2.2%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가 1.7%p 감소한 반면, 여자는 5.1%p 증가함

< 사회적관계망 (아플 때) >



< 사회적 관계망 (우울할 때)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사회적 관계망 >

(단위: %, 명)

	연도	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전체	2011	100.0	71.5	2.3	31.5	2.3	67.9	2.5
	2013	100.0	69.5	2.0	29.8	2.1	67.7	2.3
	2015	100.0	73.9	2.0	35.2	2.0	72.6	2.3
	2017	100.0	74.9	2.1	36.0	2.0	73.9	2.3
	2019	100.0	74.5	2.0	33.4	1.9	72.6	2.2
	2021	100.0	69.1	2.0	33.3	1.9	70.1	2.2
남자	2011	100.0	74.4	2.3	33.5	2.3	68.1	2.4
	2021	100.0	68.3	2.1	33.3	1.9	66.4	2.3
여자	2011	100.0	69.4	2.2	30.2	2.2	67.8	2.5
	2021	100.0	69.7	2.0	33.2	1.9	72.9	2.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12. 여가생활

2021년 고령자의 주말 여가생활은 동영상 시청 88.3%, 휴식 77.5% 순이고, 지난 6년간 동영상 시청은 5.2%p, 휴식은 26.2%p 증가함

□ '21년 고령자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은 주로 동영상 시청 88.3%, 휴식 77.5% 순이고, 지난 6년간 동영상 시청은 5.2%p, 휴식은 26.2%p 증가함

< 주말(휴일 포함) 여가활동, 복수 응답 >

(단위: %)

	동영상 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인터넷·게임	취미 자기개발	휴식	사회 활동	기타
2015	83.1	3.0	1.0	1.1	6.4	3.7	2.0	7.1	51.3	15.4	2.3
2017	86.2	4.5	1.2	1.3	11.0	8.0	3.3	11.8	70.0	18.9	0.5
2019	87.3	4.1	1.3	1.9	9.7	6.8	4.6	12.1	74.8	23.5	0.3
2021	88.3	2.4	1.8	1.1	12.7	2.5	7.5	15.0	77.5	14.2	0.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21년 고령자의 여가 활용 만족도는 보통 55.3%, 불만족 27.5%, 만족 17.2% 순으로, 지난 10년간 만족은 4.3%p 증가한 반면, 불만족은 5.6%p 감소

*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

□ '21년 여가생활에 불만족 하는 사유는 경제적 부담 43.8%, 건강·체력문제 33.3% 순임

○ 지난 10년간 경제적 부담은 16.3%p 감소한 반면, 건강·체력문제는 3.7%p 증가함

< 여가 활용 만족도 >

(단위: %)

	계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프로그램 부족 ³⁾	취미 없음	건강·체력 문제	함께 할 사람 없음	기타 ⁴⁾
2011	100.0	12.9	53.9	33.1	60.1	3.6	0.7	0.9	0.4	-	2.5	29.6	2.2	0.1
2013	100.0	16.7	52.2	31.1	52.6	4.4	1.0	0.6	0.6	-	2.9	34.5	3.4	-
2015	100.0	16.6	54.3	29.1	52.1	5.4	0.7	0.7	0.6	-	3.6	34.3	2.2	0.3
2017	100.0	17.8	49.7	32.5	53.0	4.7	1.6	0.9	1.0	-	3.7	33.0	2.0	0.0
2019	100.0	19.2	50.4	30.5	45.5	5.6	0.8	0.8	1.0	-	4.3	40.0	2.1	0.0
2021	100.0	17.2	55.3	27.5	43.8	4.9	1.1	2.4	1.1	1.6	5.0	33.3	2.4	4.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2)'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3) 2021년 신설

4)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사유로 불만족한 경우 '기타'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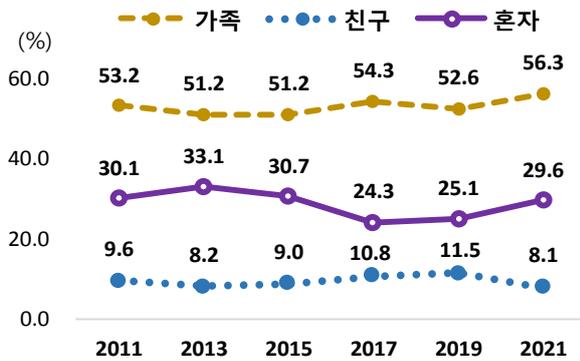
13.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2021년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 56.3%, 혼자 29.6%, 친구 8.1% 순이고
 지난 10년간 가족은 3.1%p 증가한 반면, 친구는 1.5%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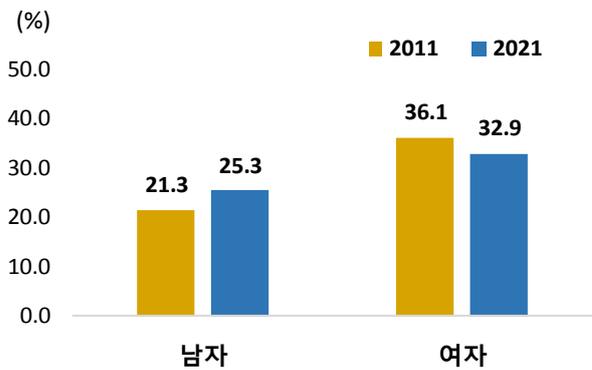
□ '21년 고령자의 주말(휴일)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 56.3%,
 혼자 29.6%, 친구 8.1% 순이고, 지난 10년간 가족은 3.1%p 증가하였으나
 친구는 1.5%p 감소함

○ 지난 10년간 혼자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중은 0.5%p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4.0%p 증가한 반면, 여자는 3.2%p 감소함

<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



<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혼자)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주말·휴일) >

(단위: %)

		계	가족	친구	동호회 활동	혼자	직장동료 ¹⁾	기타
전체	2011	100.0	53.2	9.6	7.0	30.1	-	0.2
	2013	100.0	51.2	8.2	7.4	33.1	-	0.2
	2015	100.0	51.2	9.0	8.9	30.7	-	0.2
	2017	100.0	54.3	10.8	10.2	24.3	0.4	0.1
	2019	100.0	52.6	11.5	10.2	25.1	0.6	0
	2021	100.0	56.3	8.1	5.7	29.6	0.3	0.1
남자	2011	100.0	62.7	9.9	6.0	21.3	-	0.1
	2021	100.0	61.1	8.5	4.7	25.3	0.4	0
여자	2011	100.0	46.6	9.3	7.7	36.1	-	0.3
	2021	100.0	52.6	7.8	6.4	32.9	0.2	0.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2017년 신설 항목

14. 노후 준비 방법

2021년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10년간 16.6%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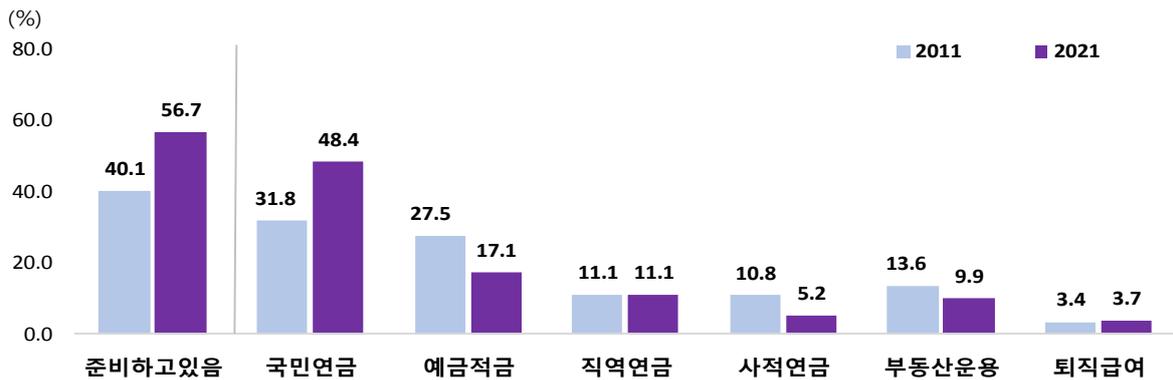
□ '21년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로 지난 10년간 16.6%p 증가함

○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 48.4%, 예·적금 17.1%, 직역연금 11.1% 순이며,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16.6%p 증가하였으나, 예·적금은 10.4%p 감소함

□ '21년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고령자는 43.3%로 지난 10년간 16.6%p 감소함

○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 59.1%, 자녀에게 의탁 29.0% 순이고,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의탁은 7.8%p 감소함

< 노후 준비 방법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노후 준비 방법¹⁾ >

(단위: %)

	계	준비하고 있음	준비하고 있음									준비하고 있지 않음	준비하고 있지 않음					
			소계	국민연금	직역연금 ²⁾	사적연금	주택연금 ³⁾	퇴직급여	예금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⁴⁾		소계	아직생각안함	앞으로 준비	준비능력없음	자녀에게 의탁	기타
2011	100.0	40.1	100.0	31.8	11.1	10.8	-	3.4	27.5	13.6	1.8	59.9	100.0	4.3	4.1	54.8	36.8	0.0
2013	100.0	42.4	100.0	32.6	12.4	5.2	-	5.1	27.4	14.8	2.5	57.6	100.0	3.1	4.3	51.9	40.7	0.0
2015	100.0	46.9	100.0	28.7	13.5	7.5	-	5.0	28.9	15.1	1.2	53.1	100.0	3.0	6.1	56.3	34.6	0.0
2017	100.0	48.0	100.0	29.9	14.7	8.3	-	4.3	27.4	15.2	0.2	52.0	100.0	3.2	4.9	58.0	33.5	0.3
2019	100.0	48.6	100.0	31.1	13.0	8.1	-	4.7	27.9	14.6	0.6	51.4	100.0	3.4	6.2	61.1	29.2	0.1
2021	100.0	56.7	100.0	48.4	11.1	5.2	4.1	3.7	17.1	9.9	0.4	43.3	100.0	3.3	8.3	59.1	29.0	0.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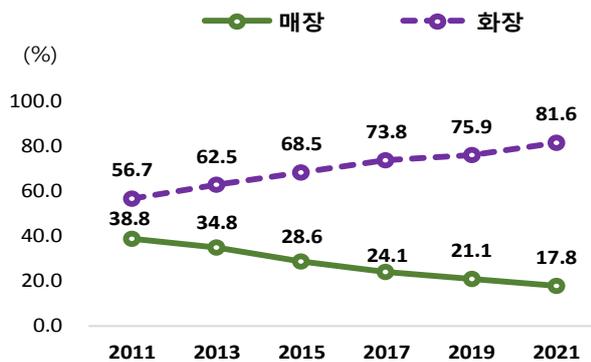
- 주: 1) 주된 응답 기준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3) '21년 신규 추가 항목
 4) '주식, 채권 등' 포함

15. 장례 선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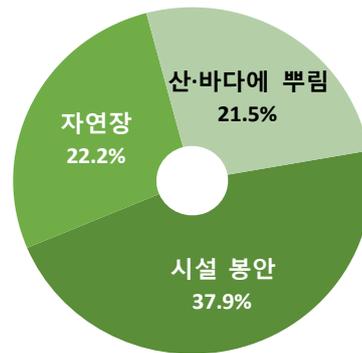
2021년 고령자 본인의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81.6%, 매장 17.8%이고, 지난 10년간 화장은 24.9%p 증가, 매장은 21.0%p 감소함

- '21년 고령자 본인의 선호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81.6%, 매장 17.8%로 지난 10년간 화장은 24.9%p 증가하였고, 매장은 21.0%p 감소함
 -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고령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21년 선호하는 화장 방법으로 화장 후 시설 봉안이 37.9%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 22.2%, 산·강·바다에 뿌림 21.5% 순임

< 선호하는 장례 방법 >



< 화장 방법 (202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선호하는 장례 방법 >

(단위: %)

연도	계	매장	화장	화장 방법			기타
				시설 봉안	자연장	산·강·바다에 뿌림 ¹⁾	
2011	100.0	38.8	56.7	31.7	25.0	-	4.4
2013	100.0	34.8	62.5	34.3	28.2	-	2.7
2015	100.0	28.6	68.5	37.3	31.2	-	2.9
2017	100.0	24.1	73.8	45.1	28.7	-	2.0
2019	100.0	21.1	75.9	43.0	32.9	-	3.0
2021	100.0	17.8	81.6	37.9	22.2	21.5	0.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주: 1) 2021년도 신규 추가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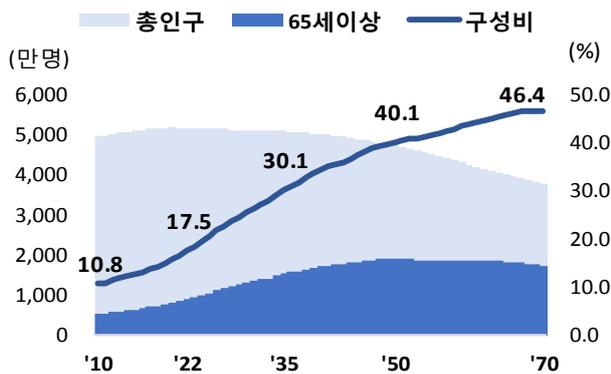
I. 인구 · 가구

1.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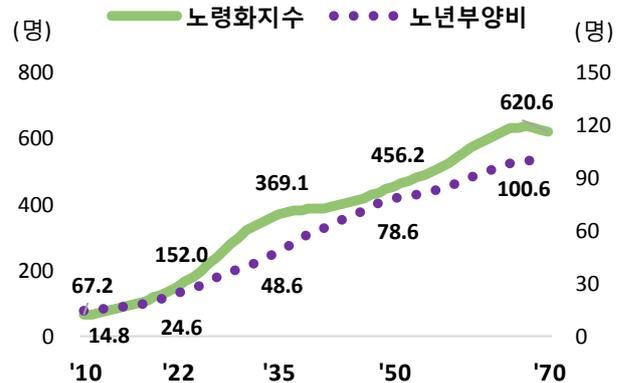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

-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임
-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35년에는 30.1%, '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2년 24.6명이며, '35년에는 48.6명, '50년에는 78.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명)

연도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20	51,836	8,152	15.7	21.8	129.3
2022	51,628	9,018	17.5	24.6	152.0
2025	51,448	10,585	20.6	29.7	201.5
2030	51,199	13,056	25.5	38.6	301.6
2035	50,869	15,289	30.1	48.6	369.1
2040	50,193	17,245	34.4	60.5	389.5
2050	47,359	19,004	40.1	78.6	456.2
2060	42,617	18,683	43.8	90.4	570.6
2070	37,656	17,473	46.4	100.6	620.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표 (58쪽) 참조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 '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대부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
 -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중이 16.6%로 미국(16.7%), 영국(18.9%) 등과 함께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음
 - 일본(29.8%), 이탈리아(23.7%)를 비롯한 13개 국가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에 도달하는 속도는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연수(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 20%)는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OECD 주요국 고령인구 비중 (2021) > < OECD 주요국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연수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 OECD 주요국 고령인구 비중 및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연수 >

(단위: %, 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도달 소요 연수		
	2010년	2021년	고령사회 7% → 14%	초고령사회 14% → 20%	20% → 30%
한국	10.8	16.6	18	7	10
일본	23.6	29.8	25	10	19
캐나다	14.1	18.5	65	14	52
미국	13.0	16.7	72	15	64
이탈리아	20.4	23.7	61	19	26
호주	13.6	16.6	73	21	48
스페인	16.9	19.9	45	30	17
독일	20.5	22.2	40	36	38
프랑스	17.0	21.3	115	39	45
영국	16.3	18.9	46	50	48
오스트리아	17.6	19.4	41	53	2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 통계표 (88쪽, 89쪽) 참조

2022년 고령인구 비중은 여자 19.7%, 남자 15.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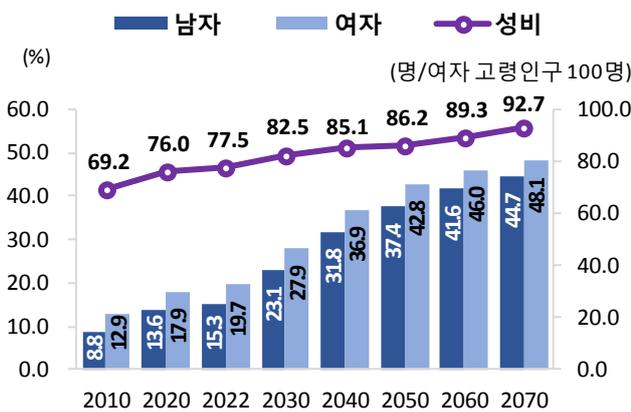
□ '22년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가 19.7%, 남자가 15.3%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p 높음

○ 65세 이상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남자 고령인구는 '22년 77.5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50년 86.2명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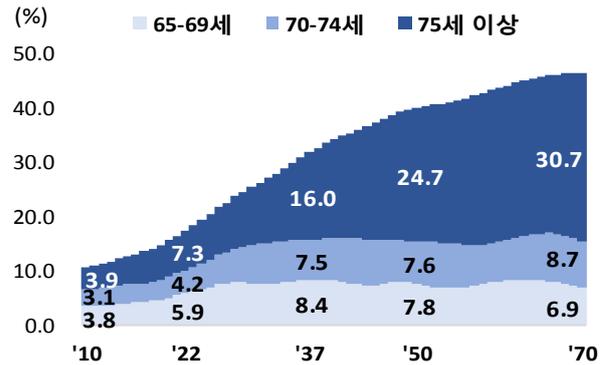
□ '22년 전체 인구의 17.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65~69세 5.9%, 70~74세 4.2%, 75세 이상이 7.3%임

○ '22년 65~74세 인구는 523만 1천 명으로 75세 이상 인구보다 144만 4천명 더 많으나, '37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명)

	65세 이상	성별				연령별						
		남자	고령 비중 ¹⁾	여자	고령 비중 ¹⁾	성비 ²⁾	65~69세	구성비 ³⁾	70~74세	구성비 ³⁾	75세 이상	구성비 ³⁾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1,878	3.8	1,540	3.1	1,948	3.9
2020	8,152	3,521	13.6	4,631	17.9	76.0	2,662	5.1	1,990	3.8	3,499	6.8
2022	9,018	3,939	15.3	5,080	19.7	77.5	3,063	5.9	2,168	4.2	3,787	7.3
2025	10,585	4,694	18.3	5,891	22.9	79.7	3,685	7.2	2,533	4.9	4,367	8.5
2030	13,056	5,901	23.1	7,156	27.9	82.5	4,027	7.9	3,532	6.9	5,497	10.7
2037	16,177	7,414	29.4	8,763	34.4	84.6	4,272	8.4	3,789	7.5	8,116	16.0
2040	17,245	7,928	31.8	9,317	36.9	85.1	4,172	8.3	3,980	7.9	9,093	18.1
2050	19,004	8,795	37.4	10,209	42.8	86.2	3,709	7.8	3,619	7.6	11,676	24.7
2060	18,683	8,816	41.6	9,867	46.0	89.3	3,500	8.2	3,099	7.3	12,084	28.4
2070	17,473	8,403	44.7	9,070	48.1	92.7	2,614	6.9	3,288	8.7	11,571	30.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표 (59쪽, 60쪽) 참조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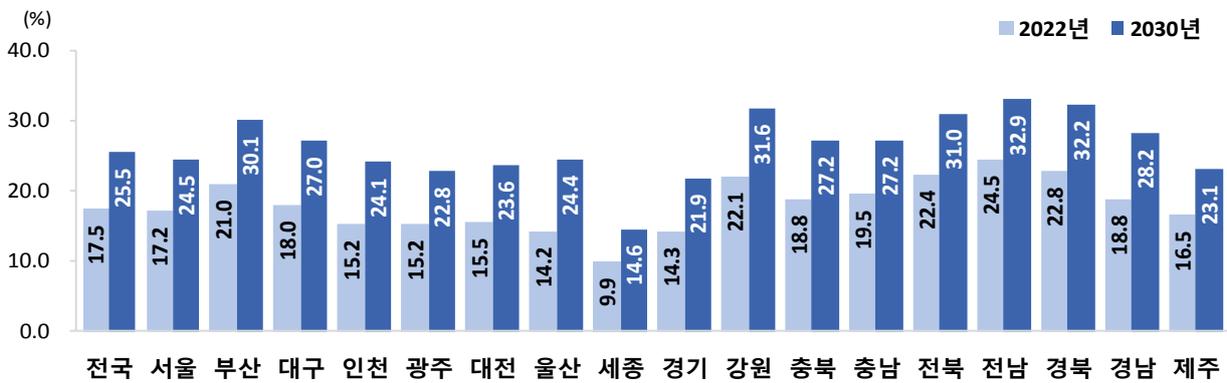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2. 지역별 고령인구

2022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4.5%),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9.9%)임

- '22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22.1%), 부산(21.0%) 5곳임
- '28년에는 세종(13.4%)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 2020~2050」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위)

	2022			2030			2040			2050		
	고령인구 비중	순위		고령인구 비중	순위		고령인구 비중	순위		고령인구 비중	순위	
전국	17.5	-	9,018	25.5	-	13,056	34.4	-	17,245	40.1	-	
서울	17.2	10	1,616	24.5	10	2,188	31.9	14	2,728	37.0	15	
부산	21.0	5	692	30.1	5	925	38.4	6	1,085	43.6	6	
대구	18.0	9	426	27.0	9	594	36.7	7	741	42.1	9	
인천	15.2	13	451	24.1	12	714	33.2	11	980	39.3	11	
광주	15.2	14	223	22.8	15	319	32.0	13	424	38.1	13	
대전	15.5	12	229	23.6	13	330	32.3	12	433	37.8	14	
울산	14.2	16	158	24.4	11	255	35.6	10	339	41.9	10	
세종	9.9	17	38	14.6	17	72	22.0	17	129	28.8	17	
경기	14.3	15	1,955	21.9	16	3,152	30.5	16	4,511	36.4	16	
강원	22.1	4	337	31.6	3	484	41.4	3	636	47.2	3	
충북	18.8	7	307	27.2	8	450	36.6	8	610	42.7	8	
충남	19.5	6	426	27.2	7	606	36.4	9	820	43.0	7	
전북	22.4	3	398	31.0	4	523	40.9	4	656	46.8	4	
전남	24.5	1	433	32.9	1	559	43.2	1	702	49.5	1	
경북	22.8	2	600	32.2	2	822	42.6	2	1,040	48.9	2	
경남	18.8	8	617	28.2	6	899	39.1	5	1,183	46.0	5	
제주	16.5	11	112	23.1	14	163	31.9	15	229	38.3	1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 202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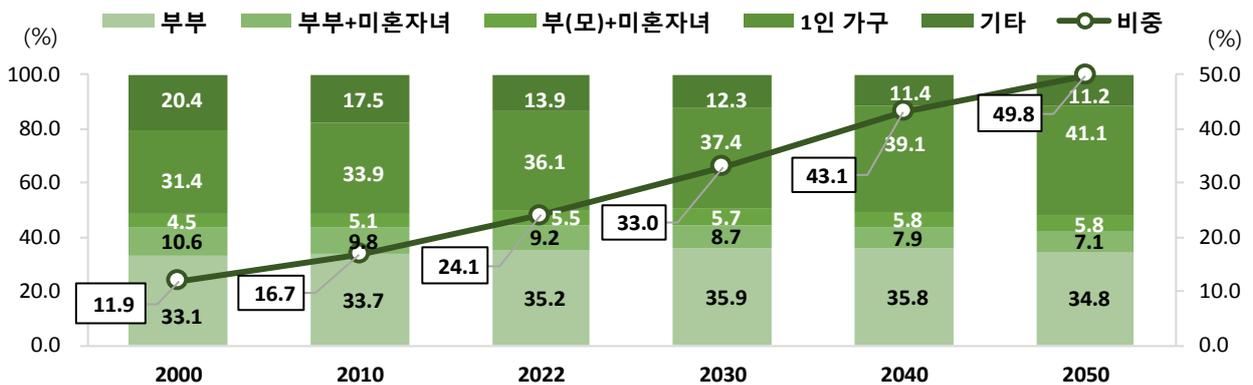
☞ 통계표 (61쪽, 62쪽) 참조

3. 고령자 가구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4.1%임

- '22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19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임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39년에는 천만 가구를 넘고, '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8%)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36.1%), 부부(35.2%), 부부+미혼자녀(9.2%), 부(모)+미혼자녀(5.5%) 순임

< 고령자 가구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 고령자 가구 >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 ¹⁾	비중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부부	구성비	부부+미혼자녀	구성비	부(모)+미혼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20	20,731	4,640	22.4	1,610	34.7	443	9.6	259	5.6	1,618	34.9	710	15.3
2022	21,579	5,195	24.1	1,829	35.2	480	9.2	287	5.5	1,875	36.1	723	13.9
2025	22,309	6,147	27.6	2,180	35.5	563	9.2	344	5.6	2,248	36.6	812	13.2
2030	23,180	7,654	33.0	2,746	35.9	669	8.7	435	5.7	2,861	37.4	943	12.3
2035	23,709	9,054	38.2	3,263	36.0	751	8.3	518	5.7	3,458	38.2	1,064	11.8
2039	23,870	10,103	42.3	3,632	36.0	808	8.0	581	5.8	3,925	38.9	1,157	11.4
2040	23,866	10,290	43.1	3,688	35.8	811	7.9	592	5.8	4,023	39.1	1,176	11.4
2045	23,572	10,984	46.6	3,885	35.4	815	7.4	632	5.8	4,410	40.1	1,243	11.3
2050	22,849	11,375	49.8	3,958	34.8	812	7.1	658	5.8	4,671	41.1	1,276	11.2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 통계표 (6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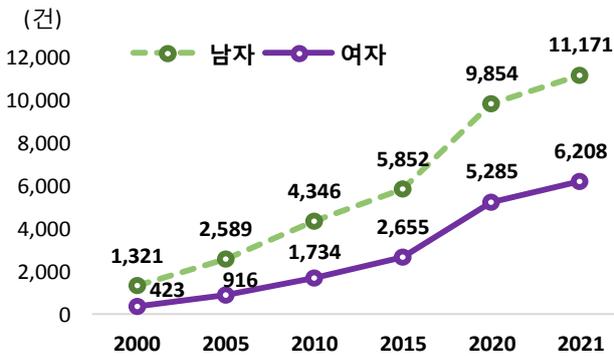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이혼 및 재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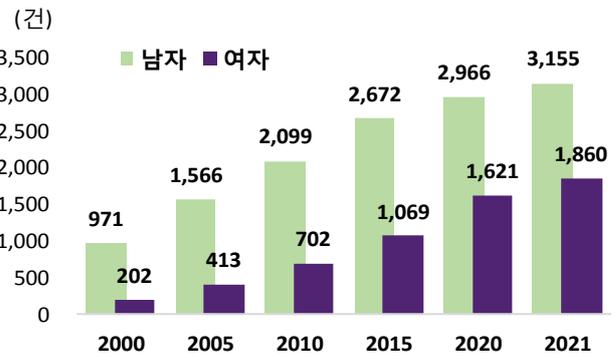
2021년 전체 이혼과 재혼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이혼과 재혼은 증가

- '21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3.4%, 17.5% 증가함
 - 전체 이혼 건수에서 65세 이상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0%, 6.1%이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21년 전체 재혼 건수는 남녀 각각 전년 대비 6.6%, 6.5%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6.4%, 14.7% 증가함

< 이혼(65세 이상) >



< 재혼(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이혼 및 재혼 >

(단위: 건, %)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2000	119,455	1,321	1.1	423	0.4	43,370	971	48,132	202
2005	128,035	2,589	2.0	916	0.7	59,662	1,566	66,587	413
2010	116,858	4,346	3.7	1,734	1.5	53,043	2,099	57,451	702
2015	109,153	5,852	5.4	2,655	2.4	46,388	2,672	52,747	1,069
2019	110,831	8,867	8.0	4,647	4.2	39,443	2,926	44,500	1,494
2020	106,500	9,854	9.3	5,285	5.0	33,261	2,966	38,064	1,621
2021	101,673	11,171	11.0	6,208	6.1	31,059	3,155	35,597	1,860
전년대비 증감률	-4.5	13.4	-	17.5	-	-6.6	6.4	-6.5	14.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 통계표 (6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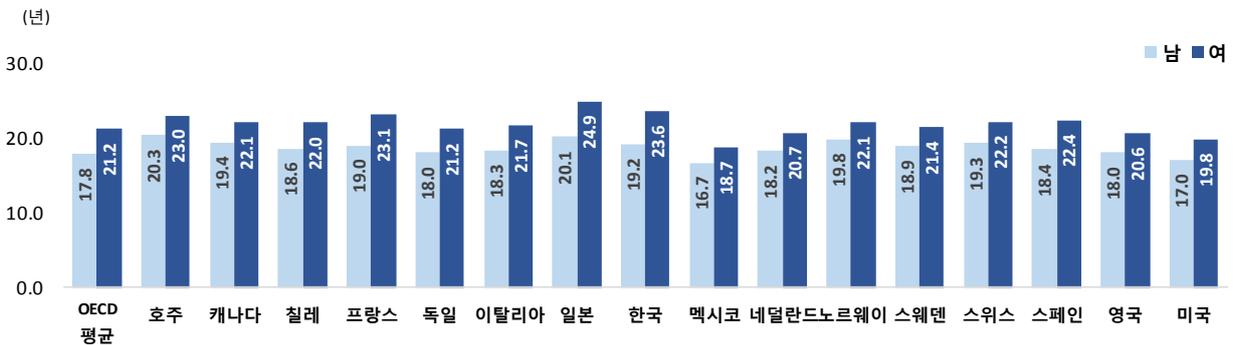
II. 건강

5. 기대여명

2020년 65세의 21.5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3년임

- '20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3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년, 0.1년 늘어남
-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6년으로 남자보다 4.4년 더 길고, 7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14.7년으로 남자보다 3.1년 더 길었음
- '20년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2.4년 높으며, 남자는 1.4년 더 높음

<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여명(65세, 2020) >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2.9.4. 기준)

주: 1) 2020년 자료가 공표된 OECD 35개국의 산술평균임

< 연령별 기대여명^{1) 2)} >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2005	17.7	15.5	19.6	4.1	10.6	9.2	11.6	2.4
2010	19.1	16.8	21.2	4.4	11.6	10.0	12.9	2.9
2015	20.3	18.2	22.4	4.2	12.4	10.8	13.7	2.9
2017	20.8	18.6	22.7	4.1	12.7	11.1	14.0	2.9
2018	20.8	18.7	22.8	4.1	12.7	11.1	14.1	3.0
2019	21.3	19.1	23.4	4.3	13.2	11.5	14.6	3.1
2020	21.5	19.2	23.6	4.4	13.3	11.6	14.7	3.1

자료: 통계청, 「생명표」

☞ 통계표 (65쪽) 참조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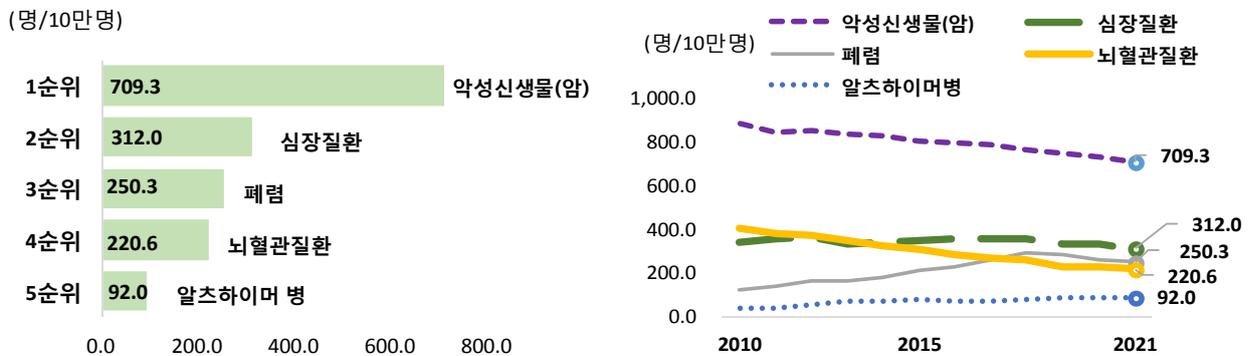
2) 16.12.2. 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으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6. 사망원인별 사망률

2021년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순임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수는 악성신생물(암) 709.3명, 심장질환 312.0명, 폐렴 250.3명, 뇌혈관질환 220.6명 순임
-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고령자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면, 악성신생물(암) 4.4배, 심장질환 5.1배, 폐렴 5.6배, 뇌혈관질환 5.0배, 알츠하이머병 5.9배 수준임

< 고령자 사망원인별 사망률 순위(2021) > < 고령자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사망원인별 사망률¹⁾²⁾ >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2000	2010	2015	2020	2021
전체 인구	1순위	악성신생물(암) (122.4)	악성신생물(암) (144.4)	악성신생물(암) (150.8)	악성신생물(암) (160.1)	악성신생물(암) (161.1)
	2순위	뇌혈관질환 (73.6)	뇌혈관질환 (53.2)	심장질환 (55.6)	심장질환 (63.0)	심장질환 (61.5)
	3순위	심장질환 (38.7)	심장질환 (46.9)	뇌혈관질환 (48.0)	폐렴 (43.3)	폐렴 (44.4)
	4순위	간질환 (23.0)	고의적 자해(자살) (31.2)	폐렴 (28.9)	뇌혈관질환 (42.6)	뇌혈관질환 (44.0)
	5순위	당뇨병 (22.7)	당뇨병 (20.7)	고의적 자해(자살) (26.5)	고의적 자해(자살) (25.7)	고의적 자해(자살) (26.0)
고령인구 (65세 이상)	1순위	악성신생물(암) (937.3)	악성신생물(암) (882.4)	악성신생물(암) (803.0)	악성신생물(암) (733.3)	악성신생물(암) (709.3)
	2순위	뇌혈관질환 (789.9)	뇌혈관질환 (409.4)	심장질환 (351.0)	심장질환 (331.9)	심장질환 (312.0)
	3순위	심장질환 (363.5)	심장질환 (344.0)	뇌혈관질환 (311.1)	폐렴 (257.5)	폐렴 (250.3)
	4순위	당뇨병 (220.0)	당뇨병 (153.1)	폐렴 (209.1)	뇌혈관질환 (225.3)	뇌혈관질환 (220.6)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210.3)	폐렴 (127.6)	당뇨병 (133.2)	알츠하이머병 (91.4)	알츠하이머병 (92.0)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통계표 (66쪽, 6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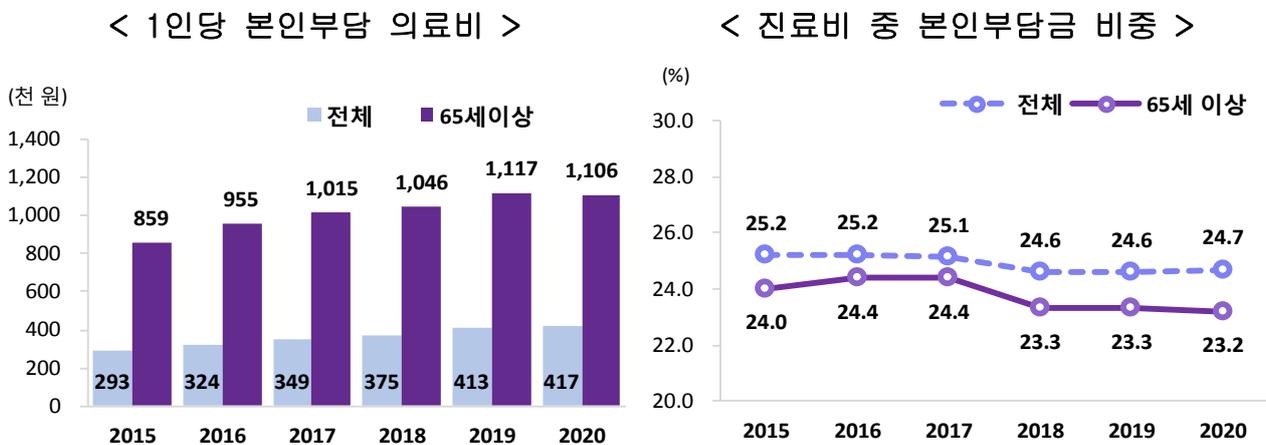
주: 1)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2) 만성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7. 본인부담 의료비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75만 9천원,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110만 6천원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75만 9천원, 본인부담금은 110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만 7천원, 1만 1천원 감소함
-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은 전체 인구 대비 각각 2.8배, 2.7배 수준임
- '20년 전체 인구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24.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한 반면, 고령자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23.2%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

(단위: 억원, 천원, %)

연도	전체					65세 이상				
	진료비 ¹⁾ (A)	1인당 진료비 ²⁾	본인 부담금 (B)	1인당 본인 부담금 ³⁾	본인 부담금 비중 ⁴⁾	진료비 ¹⁾ (A)	1인당 진료비 ²⁾	본인 부담금 (B)	1인당 본인 부담금 ³⁾	본인 부담금 비중 ⁴⁾
2012	478,392	963	121,246	244	25.3	164,494	3,008	38,553	705	23.4
2013	509,262	1,019	128,458	257	25.2	180,852	3,151	42,578	742	23.5
2014	549,639	1,092	137,534	273	25.0	199,687	3,326	47,074	784	23.6
2015	587,869	1,164	148,147	293	25.2	222,361	3,573	53,426	859	24.0
2016	651,844	1,284	164,532	324	25.2	252,692	3,921	61,583	955	24.4
2017	707,525	1,389	177,772	349	25.1	283,247	4,162	69,074	1,015	24.4
2018	779,104	1,526	191,614	375	24.6	318,235	4,487	74,183	1,046	23.3
2019	861,110	1,676	212,228	413	24.6	357,925	4,796	83,351	1,117	23.3
2020	867,139	1,689	214,223	417	24.7	376,135	4,759	87,412	1,106	23.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통계표 (68쪽) 참조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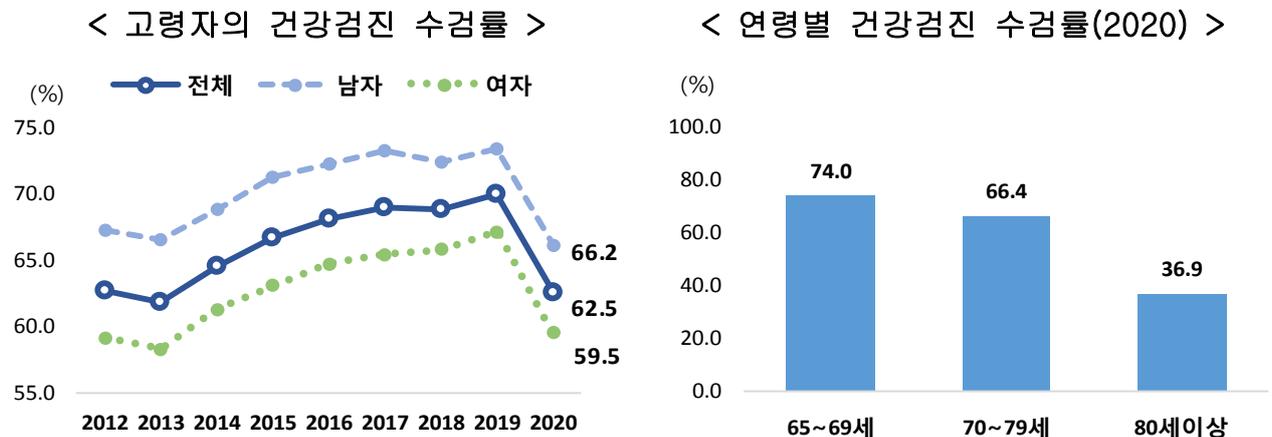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B) ÷ 진료비(A) × 100

8. 건강검진 수검률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2.5%로 전년 대비 7.4%p 감소함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2.5%로 전년 대비 7.4%p 감소함
-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은 65~69세가 74.0%로 가장 높았고, 70~79세(66.4%), 80세 이상(36.9%)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음
- 전년 대비 건강검진 수검률은 80대 이상 8.9%p, 70~79세 8.0%p, 65~69세 7.2%p 감소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건강검진 수검률¹⁾ >

(단위: %)

연도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2020	62.5	66.2	59.5	74.0	73.4	74.6	66.4	68.4	64.7	36.9	45.1	32.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통계표 (6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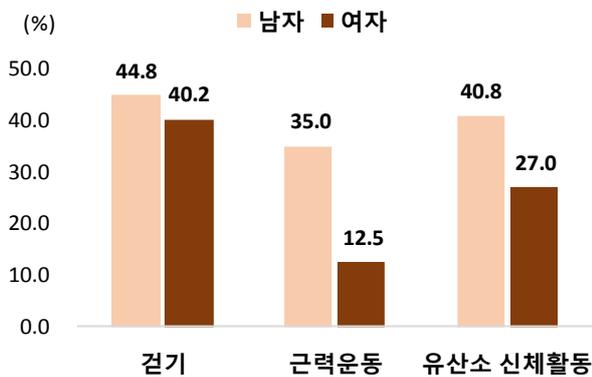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1차검진 수검인원 ÷ 1차검진 대상인원) × 100

9. 운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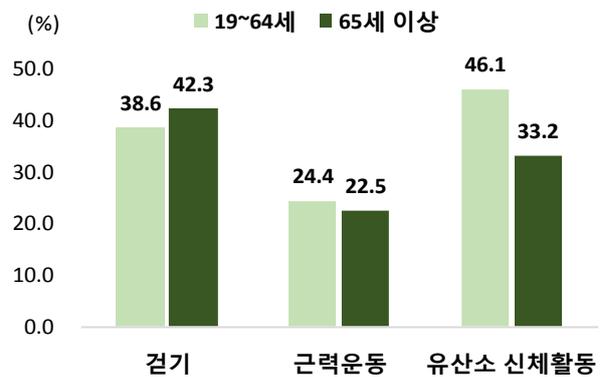
2020년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42.3%, 유산소 신체활동 33.2%, 근력운동 22.5% 순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42.3%), 유산소 신체활동(33.2%), 근력운동(22.5%) 순이고, 근력운동과 걷기 실천율은 전년 대비 각각 4.2%p, 2.4%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운동 실천율이 여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근력 운동(22.5%p) > 유산소 신체활동(13.8%p) > 걷기(4.6%p) 순으로 격차가 큼
- 65세 이상 고령자는 저 연령층(19~64세)보다 걷기 실천율은 3.7%p 높았으나,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실천율은 각각 12.9%p, 1.9%p 낮음

< 고령자의 성별 운동 실천율(2020) >



< 연령별 운동 실천율(2020)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운동 실천율 >

(단위: %)

	걷기 실천율 ¹⁾				근력운동 실천율 ²⁾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³⁾			
	19~64세	65세이상	남자	여자	19~64세	65세이상	남자	여자	19~64세	65세이상	남자	여자
2014	41.4	41.3	47.6	36.7	21.5	16.8	28.5	8.3	59.8	41.1	50.9	33.6
2015	41.5	35.8	41.1	32.0	23.1	17.7	30.7	8.3	54.2	33.7	41.7	27.9
2016	39.8	35.4	39.0	32.7	21.7	15.2	24.7	8.4	50.3	34.4	43.4	27.9
2017	39.2	35.7	42.2	30.8	22.1	17.5	28.8	9.0	49.8	29.4	32.6	26.9
2018	39.7	37.3	46.1	30.8	23.1	18.3	30.3	9.5	48.3	28.1	33.4	24.3
2019	43.4	39.9	44.3	36.5	24.3	18.3	30.5	8.7	48.2	33.0	36.6	30.1
2020	38.6	42.3	44.8	40.2	24.4	22.5	35.0	12.5	46.1	33.2	40.8	27.0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통계표 (7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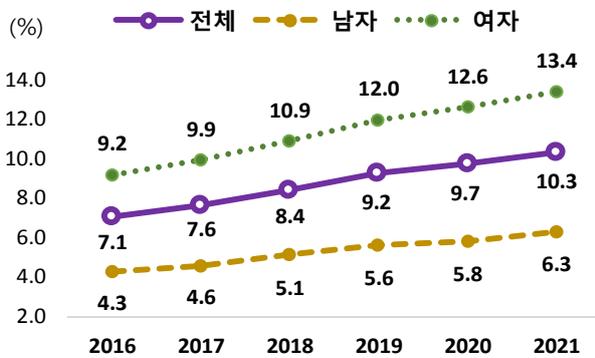
- 주: 1)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3)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10.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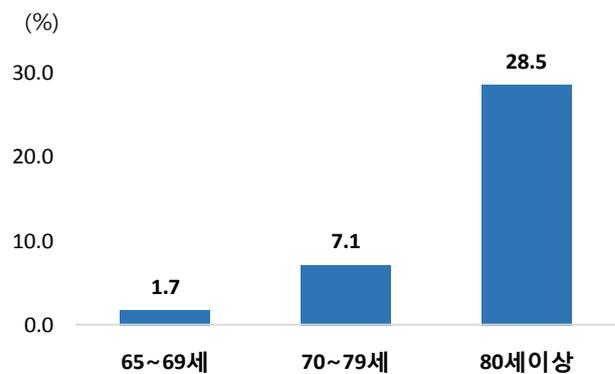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함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성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여자가 13.4%로 남자(6.3%)의 2.1배 수준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65~69세는 1.7%, 70~79세는 7.1%이며 80세 이상은 28.5%로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함

<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 연령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2021)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¹⁾²⁾³⁾ >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2021	10.3	6.3	13.4	1.7	1.8	1.6	7.1	5.3	8.6	28.5	17.9	34.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통계표 (71쪽) 참조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11. 노인 복지시설

2021년 노인 복지시설은 8만 5,228개소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

- '21년 노인 복지시설 수는 8만 5,228개소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
 - 노인 복지시설 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전년 대비 2,772개소(38.4%) 증가한 반면,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15개소(4.3%) 감소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감소 추세이나,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증가하고 있음

< 노인 복지시설 수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 복지시설 수 >

(단위: 개소)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85,228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계	427	425	404	390	382	352	337
	양로시설	265	265	252	238	232	209	192
	노인공동생활가정	131	128	119	117	115	107	107
	노인복지주택	31	32	33	35	35	36	38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계	5,063	5,163	5,242	5,287	5,529	5,725	5,821
	노인요양시설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4,05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30	2,027	1,981	1,897	1,934	1,881	1,764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계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68,823
	노인복지관	347	350	364	385	391	398	357
	경로당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67,211
재가노인 복지시설 ¹⁾	노인교실	1,377	1,393	1,356	1,342	1,285	1,291	1,255
	소계	3,089	3,168	3,216	3,494	4,821	7,212	9,984
	방문요양서비스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4,156
	주야간보호서비스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2,618
	단기보호서비스	112	95	80	73	78	73	69
	방문목욕서비스	617	588	609	650	942	1,596	2,415
	방문간호서비스 ²⁾	-	-	10	21	60	95	158
	복지옹구지원서비스 ³⁾	-	-	-	-	0	86	20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32	390	342	387	412	385	360	
노인보호전문기관	29	29	32	33	34	35	3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⁴⁾	129	136	153	160	184	196	206	
학대피해노인쉼터 ⁵⁾	-	-	-	18	19	19	2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통계표 (72쪽) 참조

주: 1)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 2)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6.7.1.)
-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12.12.)
-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3.12.15.)
-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2.7.)

Ⅲ. 소득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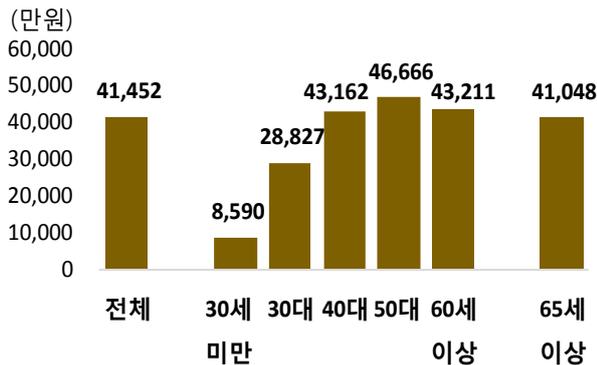
12. 자산 소유액 및 구성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년 대비 6천 94만 원 증가한 4억 1,048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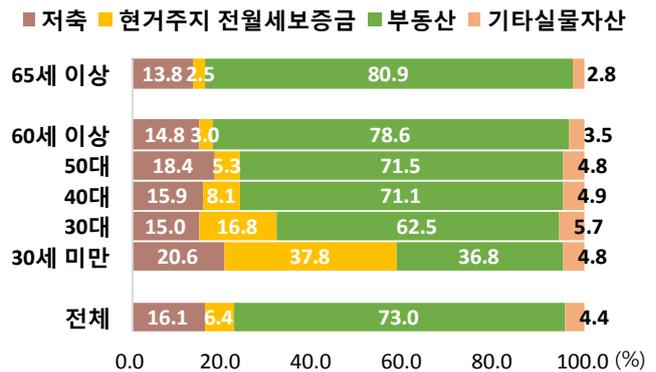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1,048만원으로 전년 대비 6천 94만원 증가함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체 가구(4억 1,452만원)의 99.0% 수준임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우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3.8%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낮았음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2021) >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구성비(2021)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자산 소유액 및 구성¹⁾ >

(단위: 만 원)

연도	순자산 ²⁾	자산	자산 구성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저축액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실물자산			
2014	26,365	29,720	4,422	3,664	758	25,298	24,175	1,123	3,355	1,705	1,650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2021	41,048	45,615	7,454	6,299	1,155	38,161	36,881	1,280	4,567	2,628	1,939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표 (7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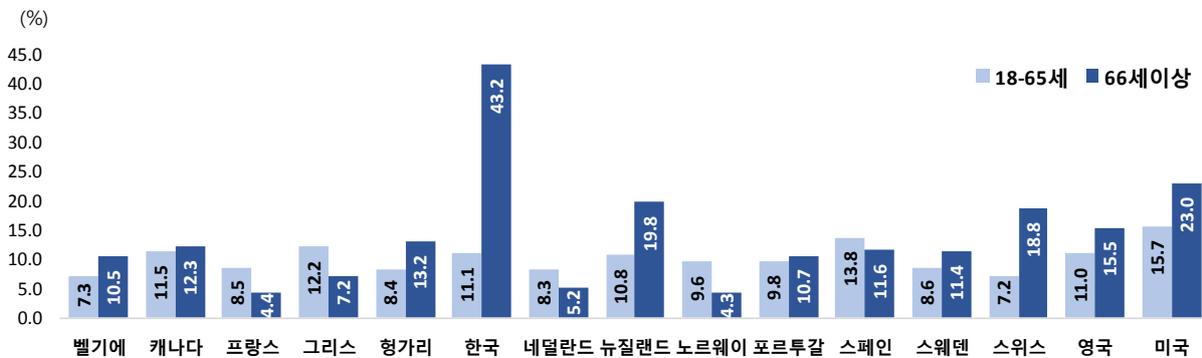
- 주: 1)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
2) 순자산 = 자산 - 부채

13. 은퇴연령층 빈곤율

20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

- '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0.4%, 지니계수 0.376, 소득 5분위 배율 6.62배로 '16년 이후 모든 지표에서 소득 분배 정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 '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9) >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2.9.4. 기준)

주: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기준

< 은퇴연령층 빈곤율¹⁾ >

(단위: %, 배)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²⁾		지니계수 ³⁾		소득 5분위 배율 ⁴⁾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2013	13.8	47.7	0.357	0.453	6.74	11.23
2014	13.7	46.0	0.348	0.450	6.49	10.73
2015	12.9	44.3	0.337	0.427	6.09	9.27
2016	12.9	45.0	0.338	0.425	6.12	9.05
2017	12.6	44.0	0.337	0.419	6.09	8.82
2018	11.8	43.4	0.325	0.406	5.67	7.94
2019	11.1	43.2	0.317	0.389	5.40	7.21
2020	10.6	40.4	0.312	0.376	5.19	6.62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표 (74쪽) 참조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2)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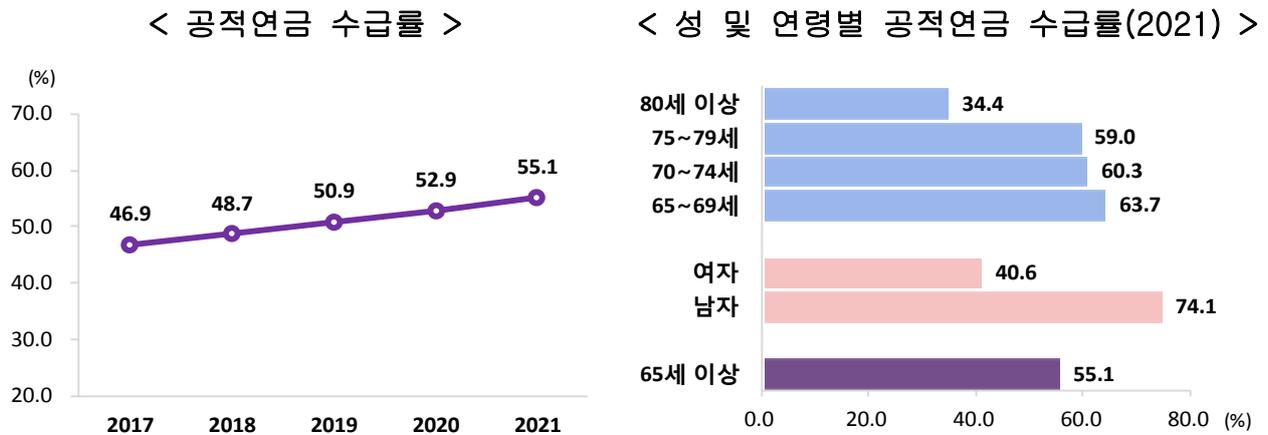
3)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4)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14. 공적연금 수급률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55.1%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1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5.1%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 여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40.6%로 남자(74.1%)의 절반 수준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의 연금 수급률이 63.7%로 가장 높았고, 70~74세(60.3%), 75~79세(59.0%), 80세 이상(34.4%) 순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

(단위: %, 천명)

연도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률 ¹⁾	수급자 수 ²⁾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17	46.9	3,313.6	2,936.7	88.6	279.5	8.4	42.5	1.3	54.9	1.7
2018	48.7	3,584.9	3,180.0	88.7	300.0	8.4	47.1	1.3	57.7	1.6
2019	50.9	3,914.5	3,478.6	88.9	323.4	8.3	52.3	1.3	60.1	1.5
2020	52.9	4,315.0	3,842.2	89.0	351.9	8.2	58.7	1.4	62.2	1.4
2021	55.1	4,723.4	4,215.0	89.2	379.0	8.0	65.0	1.4	64.3	1.4
남자	74.1	2,757.1	2,395.8	86.9	269.3	9.8	48.1	1.7	44.0	1.6
여자	40.6	1,966.2	1,819.2	92.5	109.7	5.6	17.0	0.9	20.3	1.0
65~69세	63.7	1,844.1	1,666.7	90.4	134.1	7.3	27.6	1.5	15.7	0.9
70~74세	60.3	1,261.3	1,140.5	90.4	94.4	7.5	14.9	1.2	11.5	0.9
75~79세	59.0	924.3	832.9	90.1	68.7	7.4	11.0	1.2	11.6	1.3
80세이상	34.4	693.8	574.9	82.9	81.8	11.8	11.5	1.7	25.5	3.7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표 (75쪽) 참조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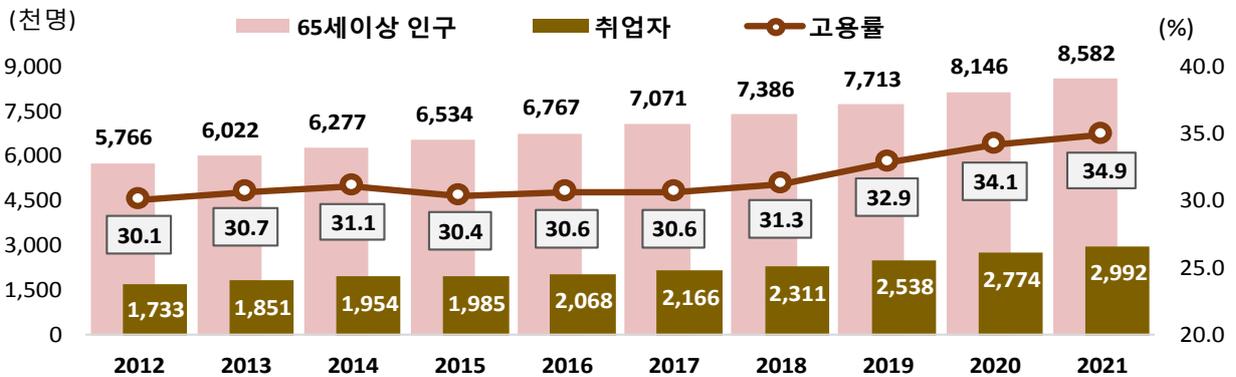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임

15. 고용률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 실업률은 3.8%임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로 전년(34.1%) 대비 0.8%p 상승함
 - 고령자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음
 - 고령자의 실업률은 '18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은 3.8%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함

<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 현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현황 >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¹⁾	실업률 ²⁾
		취업자	실업자		
2012	5,766	1,770	37	30.1	2.1
2013	6,022	1,879	28	30.7	1.5
2014	6,277	1,995	41	31.1	2.1
2015	6,534	2,034	48	30.4	2.4
2016	6,767	2,116	49	30.6	2.3
2017	7,071	2,228	62	30.6	2.8
2018	7,386	2,381	70	31.3	2.9
2019	7,713	2,622	85	32.9	3.2
2020	8,146	2,879	105	34.1	3.6
2021	8,582	3,112	119	34.9	3.8
전체 ³⁾ (2021년)	45,080	28,310	1,037	60.5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6쪽) 참조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3) 15세 이상 인구임

- (산업별 취업자) '21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44.0%), 농림어업(25.0%), 도소매·음식숙박업(13.1%) 순임
- 전체 취업자보다 고령층의 종사 비중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임

< 고령자(65세 이상)의 산업별¹⁾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7.0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7
2021	2,992	100.0	25.0	5.7	5.7	69.3	4.3	13.1	44.0	7.8
전체 ²⁾ (2021년)	27,273	100.0	5.3	16.1	16.0	78.6	7.7	20.0	38.6	1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7쪽) 참조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임

- (직업별 취업자) '21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36.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2%), 서비스·판매 종사자(16.8%),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4.1%) 순임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2021	2,992	100.0	4.8	3.4	16.8	24.2	14.1	36.6
전체 ²⁾ (2021년)	27,273	100.0	21.9	17.4	21.4	5.1	19.7	1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8쪽) 참조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임

IV. 사회참여 · 관계

16. 평생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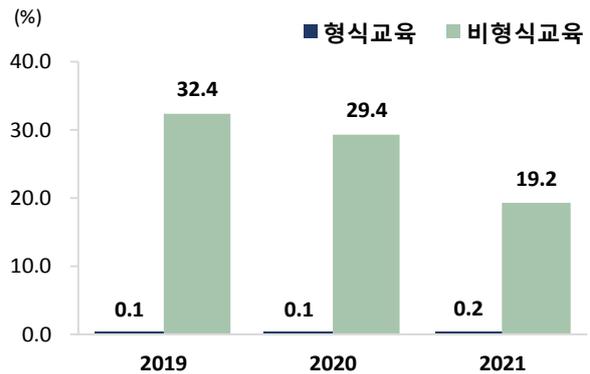
2021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65~79세 고령자는 19.2%로 전년 대비 10.3%p 감소함

- '21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65~79세 고령자는 19.2%로 전년 대비 10.3%p 감소함
 - 고령자의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형식교육 참여 비중은 0.2%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고, 비형식교육 참여 비중은 19.2%로 전년 대비 10.2%p 감소함
 - 직업과 관련된 목적의 비형식 교육을 받은 고령자는 4.9%로 전년 대비 1.1%p 감소함

< 평생교육 참여율 >



< 고령층(65~79세)의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 조사」

< 평생교육 참여율¹⁾ >

(단위: %)

	전체				65~79세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참여율 ²⁾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2019	41.7	1.5	40.9	18.7	32.5	0.1	32.4	4.9
2020	40.0	1.4	39.3	20.1	29.5	0.1	29.4	6.0
2021	30.7	0.8	30.2	17.1	19.2	0.2	19.2	4.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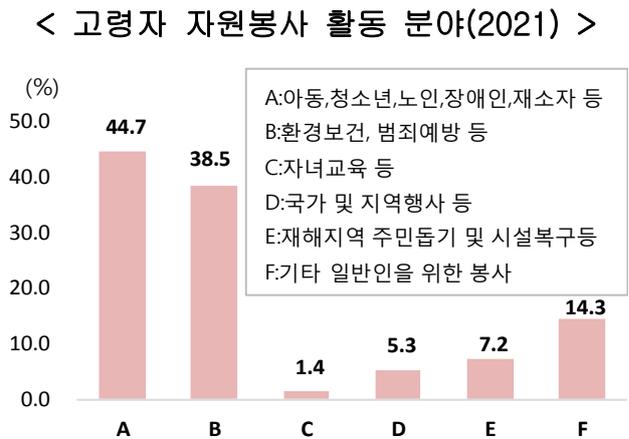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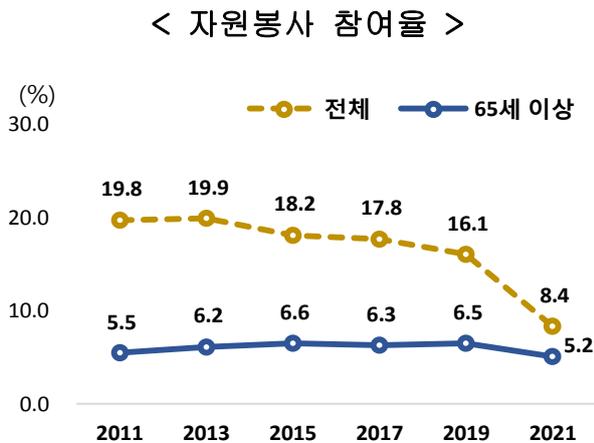
☞ 통계표 (79쪽) 참조

-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17. 자원봉사 참여율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5.2%로 2년 전보다 1.3%p 감소

- '21년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5.2%로 2년 전(6.5%)보다 1.3%p 감소함
-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체연령 참여율(8.4%)보다는 3.2%p 낮음
- 분야별 참여 비중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44.7%), 환경보전·범죄예방(38.5%),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14.3%) 순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자원봉사 참여율 >

(단위: %)

	연도	참여율 ¹⁾	활동 분야(복수응답)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자녀교육 등	국가 및 지역행사 등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²⁾
전체 ³⁾	2011	19.8	58.2	20.6	8.8	7.7	4.4	16.0
	2013	19.9	62.4	19.4	6.6	7.7	3.9	15.3
	2015	18.2	58.2	19.4	7.8	8.0	4.1	17.6
	2017	17.8	54.5	18.5	9.1	8.8	3.9	20.5
	2019	16.1	57.7	20.4	9.7	9.1	4.6	17.5
	2021	8.4	51.5	24.6	6.2	7.4	8.6	16.4
65세 이상	2011	5.5	44.7	37.5	1.7	5.7	7.2	8.1
	2013	6.2	44.1	43.7	0.7	6.7	4.8	8.6
	2015	6.6	48.4	37.2	0.4	7.9	4.8	9.7
	2017	6.3	51.4	31.3	3.2	5.6	6.0	11.5
	2019	6.5	54.0	31.7	4.0	8.3	5.3	10.0
	2021	5.2	44.7	38.5	1.4	5.3	7.2	14.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표 (79쪽) 참조

주: 1)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중임

2) 관공서 업무 지원, 무료 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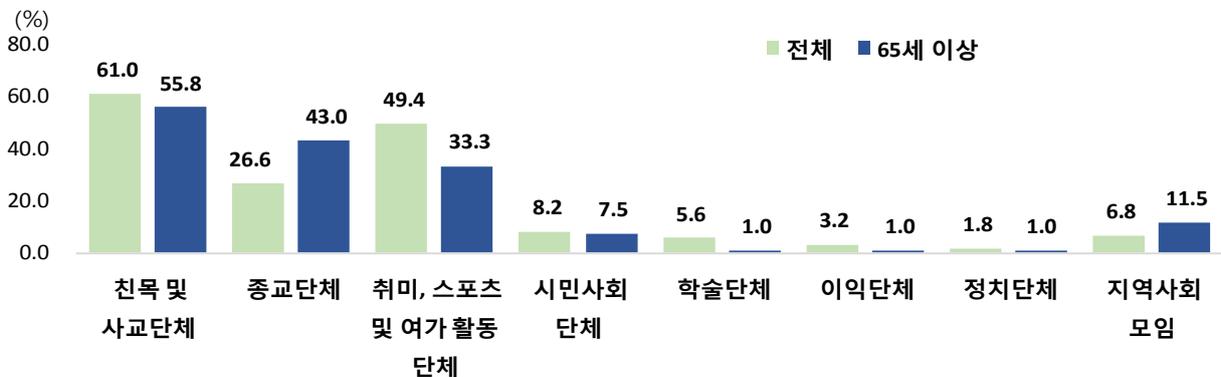
3)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8. 사회단체 참여율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28.7%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음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28.7%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고, 전체연령대 참여율(35.8%)보다 7.1%p 낮았음
- 유형별 사회단체 참여 비중은 친목 및 사교 단체(55.8%), 종교단체(43.0%), 취미·스포츠 및 여가활동(33.3%) 순임
- 전체 연령대와 비교하면, 종교단체(43.0%), 지역사회 모임(11.5%)의 참여 비중이 높았음

< 사회단체 유형별 참여 비중 (202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단체 참여율 >

(단위: %)

	연도	참여율 ¹⁾	단체 유형별 참여 비중(복수응답)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스포츠 및 여가활동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전체 ²⁾	2011	46.6	73.1	28.7	34.0	11.0	4.7	2.5	1.0	10.1	0.7
	2013	50.1	75.3	26.4	32.8	11.3	4.6	2.1	0.7	8.9	0.3
	2015	48.9	75.6	27.2	35.2	9.4	5.3	2.5	0.6	9.2	0.1
	2017	49.7	78.2	28.2	43.6	8.4	5.6	3.8	1.3	10.4	0.1
	2019 ³⁾	66.1	77.4	28.7	47.3	12.6	7.6	4.3	1.7	11.5	0.0
	2021	35.8	61.0	26.6	49.4	8.2	5.6	3.2	1.8	6.8	-
65세 이상	2011	35.4	69.1	37.9	11.5	4.5	1.4	0.4	1.0	16.9	1.3
	2013	39.3	69.7	33.4	14.5	6.2	0.8	0.4	0.6	17.9	0.6
	2015	40.0	71.4	33.8	17.5	5.5	1.3	0.5	0.3	18.5	0.3
	2017	42.9	74.6	39.8	22.2	5.5	2.0	0.9	0.6	17.7	-
	2019 ³⁾	58.7	72.7	43.0	29.6	8.4	2.3	1.4	0.9	20.4	0.0
	2021	28.7	55.8	43.0	33.3	7.5	1.0	1.0	1.0	11.5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표 (80쪽) 참조

주: 1) 지난 1년간 각 항목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인구의 비중임

2)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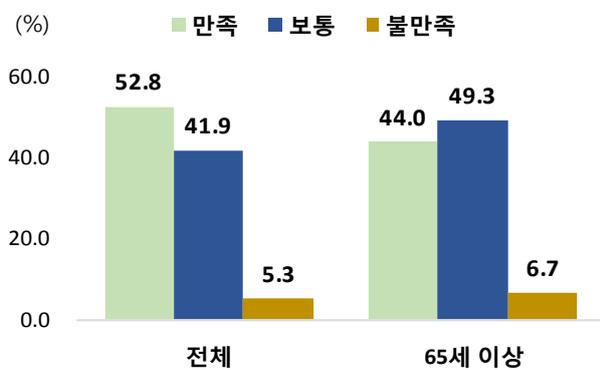
3) 참여율 집계 관련, 2017년까지 단체 참여 여부를 직접 질의하여 집계하였으나, 2019년부터 각 참여 단체 선택 응답자를 단체 참여자로 간주하여 집계하였으므로, 직접 비교 시 유의

19. 인간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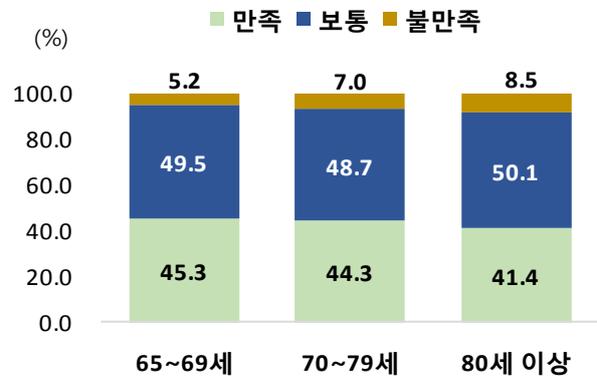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44.0%가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음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4.0%로 2년 전보다 0.6%p 낮아짐
-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가 45.3%로 가장 높았고, 70~79세(44.3%), 80세 이상(41.4%) 순으로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았음
- 전체연령대의 인간관계 만족도 응답(52.8%)과 비교하면 8.8%p 낮음

< 인간관계 만족도 (2021) >



< 연령대별 인간관계 만족도 (202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인간관계 만족도¹⁾(65세 이상) >

(단위: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2019	100.0	44.6	13.2	31.4	48.1	7.3	6.2	1.2
2021	100.0	44.0	13.2	30.7	49.3	6.7	5.9	0.9
65~69세	100.0	45.3	13.9	31.4	49.5	5.2	4.5	0.7
70~79세	100.0	44.3	13.5	30.7	48.7	7.0	6.2	0.8
80세 이상	100.0	41.4	11.6	29.8	50.1	8.5	7.3	1.2
전체(2021년) ²⁾	100.0	52.8	18.3	34.5	41.9	5.3	4.4	0.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표 (81쪽) 참조

주: 1)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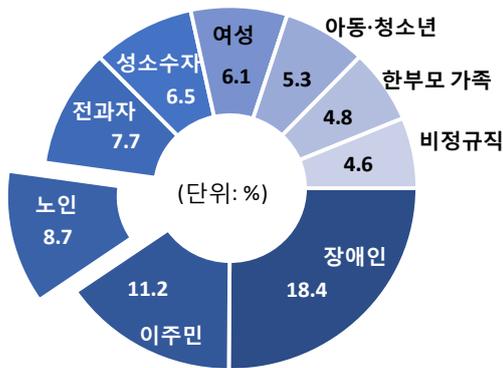
2)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0. 노인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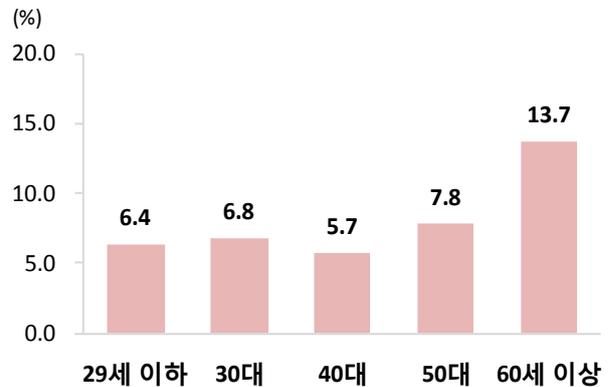
2021년 성인의 8.7%는 노인이 인권침해·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함

- '21년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8.7%로, 「장애인」, 「이주민」 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남자, 여자의 비중은 각각 8.7%, 8.6%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은 60세 이상이 13.7%로 타 연령대 약 2배 수준임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1) >



< 연령대별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1, 노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1)¹⁾²⁾ >

(단위: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전체		6.1	5.3	8.7	18.4	4.8	11.2	7.7	6.5	4.6
성별	남자	3.9	5.2	8.7	17.8	4.4	11.7	8.1	6.4	5.0
	여자	8.3	5.4	8.6	19.0	5.2	10.8	7.7	6.7	4.2
연령 대별	29세 이하	7.9	5.6	6.4	19.3	4.6	10.3	6.9	6.9	4.7
	30~39세	7.3	7.2	6.8	19.9	4.9	11.2	5.3	7.8	4.3
	40~49세	5.9	6.5	5.7	18.8	4.3	12.4	7.7	8.8	5.3
	50~59세	6.7	4.5	7.8	17.2	6.3	12.6	8.0	6.7	5.5
	60세 이상	4.0	3.7	13.7	17.5	4.1	10.1	9.4	4.1	3.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 통계표 (82쪽) 참조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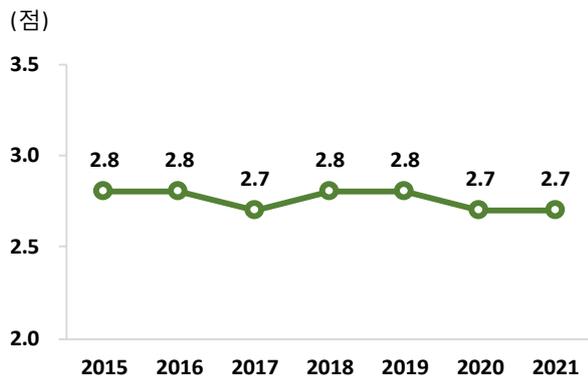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21. 세대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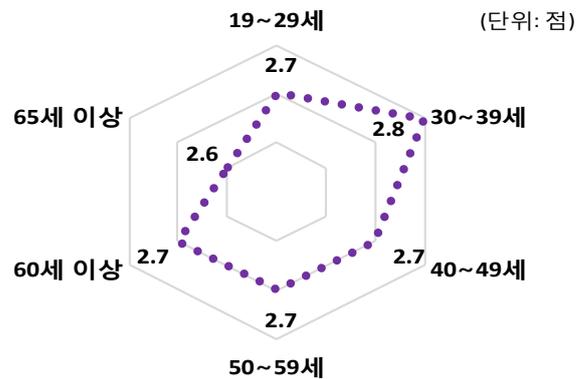
2021년 고령층과 젊은 층 간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7점으로 전년과 동일

- '21년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7점으로 전년과 동일함
- 고령층과 젊은 층 간 세대 갈등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인식함

< 세대갈등 인식 >



< 연령별 세대갈등 인식(2021)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세대갈등¹⁾ 인식²⁾ >

(단위: 점, %)

연도	평균 ³⁾	인식 정도			
		전혀 심하지 않다(1점)	별로 심하지 않다(2점)	약간 심하다(3점)	매우 심하다(4점)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2021	2.7	3.2	36.3	48.7	11.8
19~29세	2.7	3.0	39.1	45.9	12.0
30~39세	2.8	3.5	31.1	51.7	13.7
40~49세	2.7	3.2	36.9	48.3	11.5
50~59세	2.7	3.0	36.5	47.9	12.5
60세 이상	2.7	3.1	37.0	49.4	10.5
65세 이상	2.6	3.5	38.8	49.0	8.7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통계표 (82쪽) 참조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임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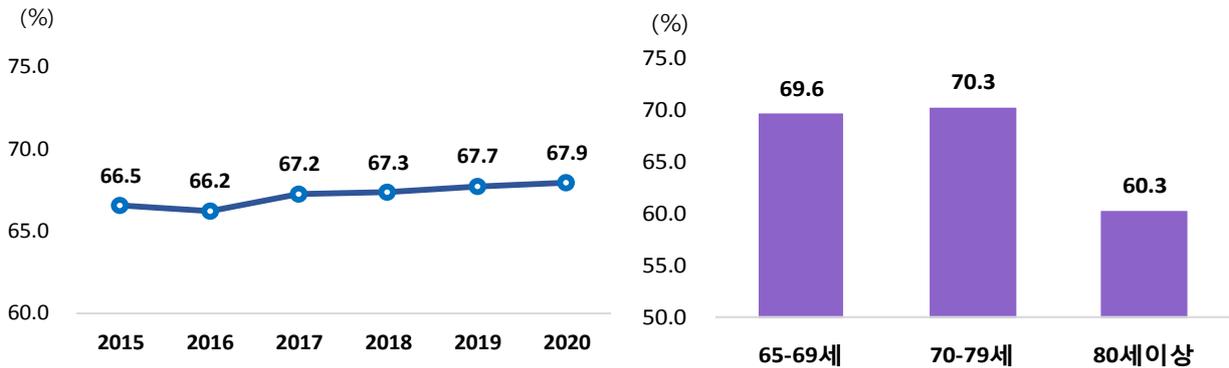
V. 생활환경

22. 주택 소유율

2020년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67.9%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0년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중 67.9%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2%p 증가함
-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70.3%로 가장 높고, 65~69세(69.6%), 80세 이상(60.3%) 순임
 - '18년까지 65~69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70대, 8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높았으나, '20년은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가장 높았음

<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 > < 가구주 연령별 주택 소유율(2020) >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가구의 주택 소유율 >

(단위: %)

연도	65세 이상	연령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6.5	71.1	67.8	54.4
2016	66.2	70.3	67.8	54.9
2017	67.2	70.5	69.1	57.2
2018	67.3	70.2	69.4	58.1
2019	67.7	70.0	70.0	59.3
2020	67.9	69.6	70.3	60.3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인구총조사」

☞ 통계표 (83쪽) 참조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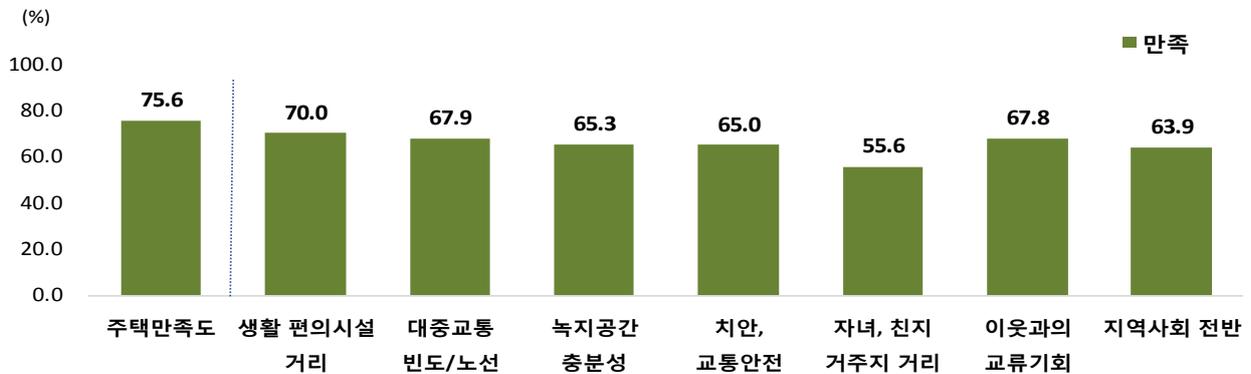
2)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23. 지역환경 만족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역환경 만족도는 생활편의시설 거리 70.0%, 대중교통 67.9% 순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주택 만족도는 75.6%이며, 불만족은 3.7%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지 지역환경 만족도는 생활편의시설 거리 70.0%, 대중교통 빈도·노선이 67.9%, 이웃과의 교류기회가 67.8% 순임
- 고령자의 거주지 지역환경 중 자녀·친지와 거주지 거리의 불만족(10.7%)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지역환경 만족도 (2020)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 지역환경 만족도 (2020) >

(단위: %)

지역환경 항목	계	만족함			보통	불만족함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전혀 만족하지 않음		
거주주택 만족도	100.0	75.6	9.9	65.7	20.7	3.7	3.5	0.2
생활 편의시설 거리	100.0	70.0	7.6	62.4	21.8	8.1	6.3	1.8
대중교통 빈도·노선	100.0	67.9	14.3	53.6	24.7	7.5	6.1	1.4
녹지공간 충분성, 거리	100.0	65.3	19.8	45.5	29.1	5.5	4.8	0.7
치안, 교통안전	100.0	65.0	13.1	51.9	29.2	5.9	4.9	1.0
자녀, 친지의 거주지 거리	100.0	55.6	9.8	45.8	33.7	10.7	9.3	1.4
이웃과의 교류기회	100.0	67.8	12.0	55.8	28.3	3.9	3.6	0.3
지역사회 전반	100.0	63.9	6.9	57.0	32.1	3.9	3.6	0.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 통계표 (83쪽) 참조

24. 보행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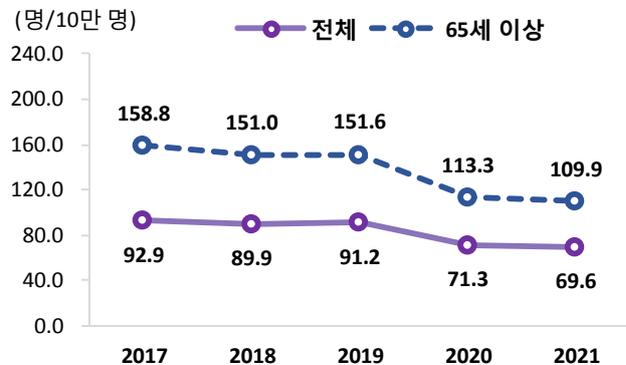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7.0명, 부상률은 109.9명임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7.0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감소하였고, 부상률은 109.9명으로 3.4명 감소함
-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의 3.5배, 부상률은 1.6배 수준으로, 보행안전성은 전체 인구보다 취약한 상태임

<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보행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사망자 수	사망률 ¹⁾	부상자 수	부상률 ²⁾
전체	2017	1,675	3.3	47,707	92.9
	2018	1,487	2.9	46,400	89.9
	2019	1,302	2.5	47,200	91.2
	2020	1,093	2.1	36,939	71.3
	2021	1,018	2.0	36,001	69.6
65세 이상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1.0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3
	2021	601	7.0	9,423	109.9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표 (84쪽) 참조

주: 1)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연령별 추계 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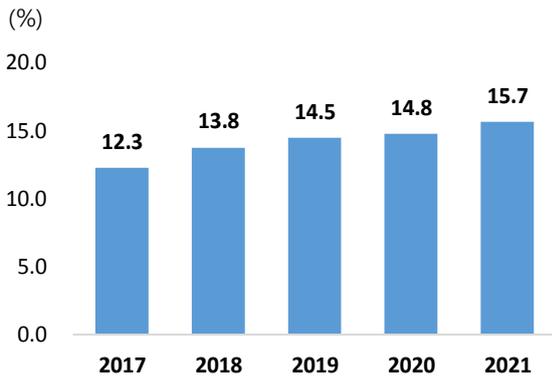
2)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연령별 추계 인구 × 100,000

25. 운전자 사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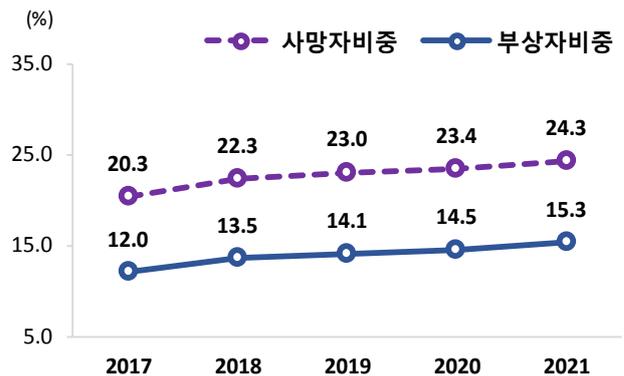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15.7%이며, 전년보다 0.9%p 증가

- '21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15.7%로 전년 대비 0.9%p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65~69세의 사고 비중이 7.7%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 비중은 감소
- '21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4.3%이며, 부상자 비중은 15.3%로 전년 대비 각각 0.9%p, 0.8%p 증가함
 - 고령 운전자 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2.2%로 전년보다 0.1%p 감소하였으나, 전체연령 치사율보다 0.8%p 높음

< 고령운전자 사고 비중 >



<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상자 비중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¹⁾ >

(단위: 건, 명, %)

	전체				65세 이상							
	사고건수	사망자	치사율 ²⁾	부상자	사고건수	비중	사망자	비중	치사율 ²⁾	부상자	비중	
2018	217,148	3,781	1.7	323,037	30,012	13.8	843	22.3	2.8	43,469	13.5	
2019	229,600	3,349	1.5	341,712	33,239	14.5	769	23.0	2.3	48,223	14.1	
2020	209,654	3,081	1.5	306,194	31,072	14.8	720	23.4	2.3	44,269	14.5	
2021	203,130	2,916	1.4	291,608	31,841	15.7	709	24.3	2.2	44,713	15.3	
65~69세	-	-	-	-	15,612	7.7	286	9.8	1.8	22,285	7.6	
70~74세	-	-	-	-	9,019	4.4	185	6.3	2.1	12,642	4.3	
75~79세	-	-	-	-	4,735	2.3	143	4.9	3.0	6,477	2.2	
80~84세	-	-	-	-	1,963	1.0	71	2.4	3.6	2,655	0.9	
85세이상	-	-	-	-	512	0.3	24	0.8	4.7	654	0.2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통계표(85쪽) 참조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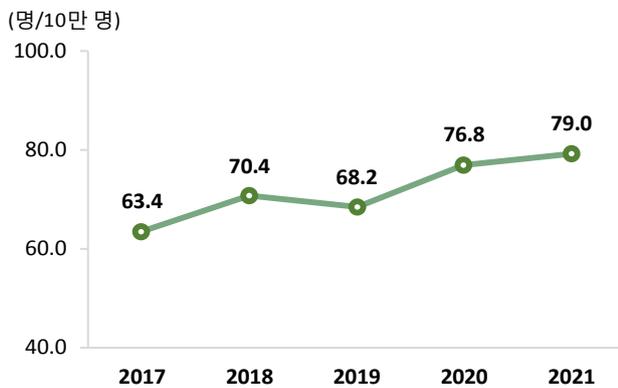
2) 치사율= 해당연령 운전자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해당연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건수 × 100

26.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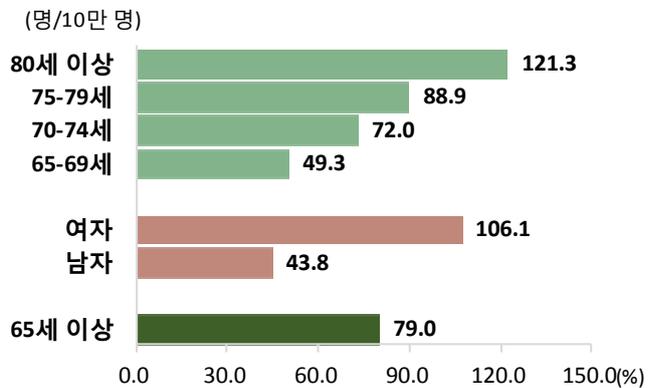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79명은 학대피해를 경험함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 명당 79.0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증가함
- 여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06.1명으로 남자(43.8명)보다 2.4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학대피해 경험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며, 80세 이상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21.3명임

<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2021)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 고령자(65세 이상) 학대피해¹⁾²⁾ 경험률 >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연도	학대피해 경험률 ³⁾	성별 ⁴⁾		연령별 ⁵⁾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9	34.8	66.4	79.2	117.8
2019	68.2	38.5	90.6	37.5	63.0	72.8	112.1
2020	76.8	44.0	101.7	46.6	69.6	83.2	121.4
2021	79.0	43.8	106.1	49.3	72.0	88.9	121.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표 (85쪽) 참조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피해 경험률 = 학대피해노인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4) 성별 학대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피해노인 수 ÷ 65세 이상 성별 추계인구 × 100,000

5) 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수 ÷ 65세 이상 연령대별 추계 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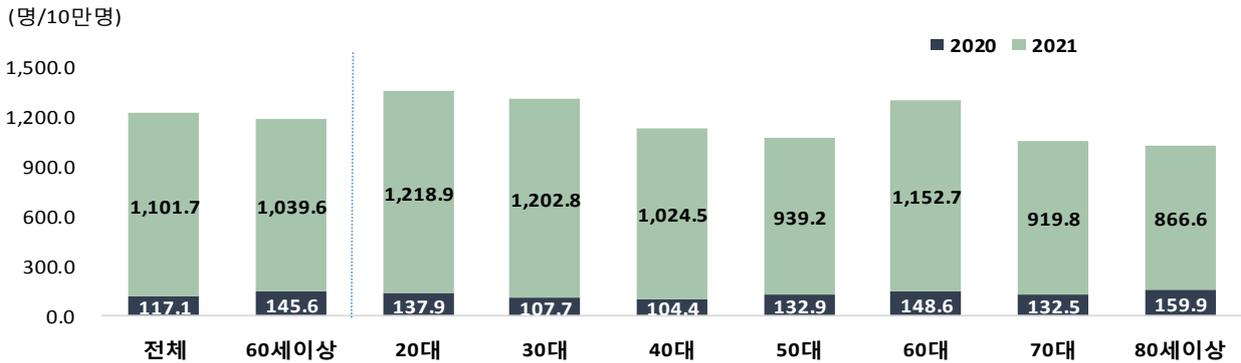
VI. 코로나19

27. 코로나19 발생률

2021년 60세 이상 코로나19 발생률은 10만명 당 1,039.6명 임

- '21년 60세 이상 10만명당 코로나 발생률은 1,039.6명으로 전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 '21년 연령대별 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60대 1,152.7명, 70대는 919.8명, 80세 이상은 866.6명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발생률은 높았음
- 코로나19 발생 초기 '20년 발생률은 80세 이상, 60대, 20대 순이었으나, '21년은 20대, 30대, 60대 순으로 변화됨

< 코로나 발생률 >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 확진자 수」

< 코로나 발생률¹⁾ >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60세이상		
							60대	70대	80세이상
2020	117.1	137.9	107.7	104.4	132.9	145.6	148.6	132.5	159.9
2021	1,101.7	1,218.9	1,202.8	1,024.5	939.2	1,039.6	1,152.7	919.8	866.6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표 (86쪽) 참조

주: 1) 발생률=연령대별 확진자수÷연령대별 추계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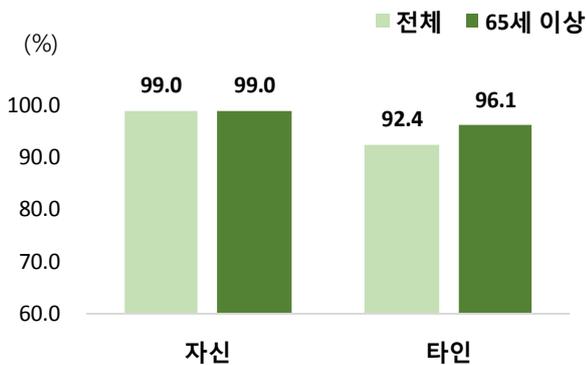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22.9.1.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로 발생률을 산출하였으며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28. 방역수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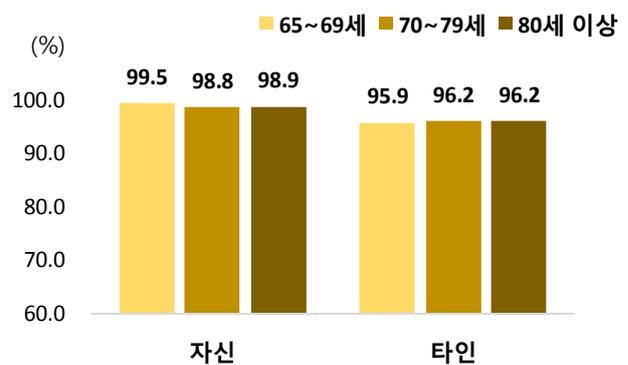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는 99.0%임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수칙을 자신은 99.0%, 타인은 96.1% 준수하였다고 응답함
- 자신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다고 생각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타인이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고령자 비중보다 2.9%p 높았음
- 타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전체연령(92.4%)보다 3.7%p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생각함

< 방역수칙 준수 (잘지켰음) >



< 연령대별 방역수칙 준수 (잘지켰음)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방역 수칙 준수(2021) >

(단위: %)

	자신의 방역 수칙 준수			타인의 방역 수칙 준수		
	계	잘 지켰다 ²⁾	지키지 않았다 ³⁾	계	잘 지켰다 ²⁾	지키지 않았다 ³⁾
65세 이상	100.0	99.0	1.0	100.0	96.1	3.9
65~69세	100.0	99.5	0.5	100.0	95.9	4.1
70~79세	100.0	98.8	1.2	100.0	96.2	3.8
80세 이상	100.0	98.9	1.1	100.0	96.2	3.8
전체 ¹⁾	100.0	99.0	1.0	100.0	92.4	7.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표(86쪽) 참조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매우 잘 지켰다'와 '비교적 잘 지켰다'를 합한 수치임

2) '비교적 지키지 않음'과 '전혀 지키지 않음'을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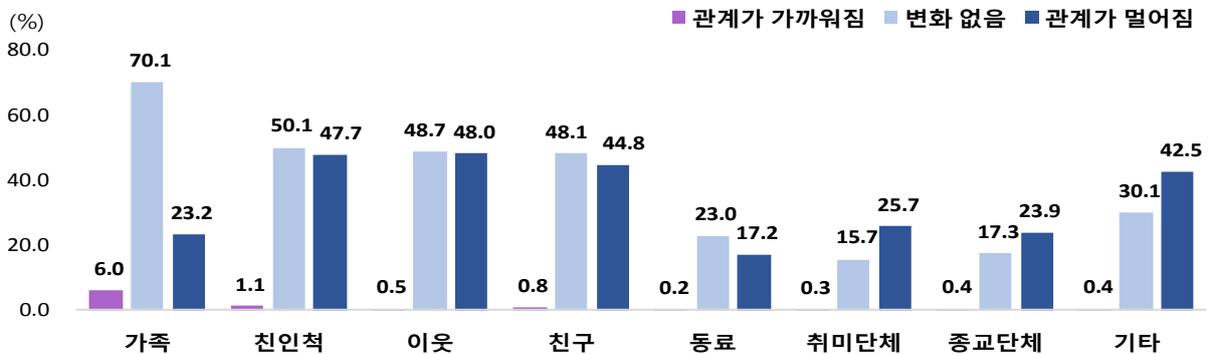
29. 사회적 관계망 변화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웃, 친척, 친구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함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70.1%이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3.2%,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0%로 나타남

○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이웃(48.0%), 친인척(47.7%), 절친한 친구(44.8%) 순으로 응답함

<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202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적 관계망 변화(2021) >

(단위: %)

	전체 ¹⁾	소계	관계망 변화			해당 없다	65세 이상	소계	관계망 변화			해당 없다
			관계가 가까워졌다	변화 없다	관계가 멀어졌다				관계가 가까워졌다	변화 없다	관계가 멀어졌다	
가족	100.0	99.5	12.9	74.0	12.6	0.5	100.0	99.3	6.0	70.1	23.2	0.7
가족 외 친인척	100.0	98.3	2.0	59.6	36.7	1.7	100.0	98.9	1.1	50.1	47.7	1.1
이웃	100.0	93.1	0.8	53.4	38.9	6.9	100.0	97.3	0.5	48.7	48.0	2.7
절친한 친구	100.0	97.2	2.2	59.6	35.5	2.8	100.0	93.6	0.8	48.1	44.8	6.4
동료	100.0	73.7	1.5	49.3	22.9	26.3	100.0	40.4	0.2	23.0	17.2	59.6
취미동 단체 회원	100.0	57.7	0.7	25.2	31.8	42.3	100.0	41.7	0.3	15.7	25.7	58.3
종교단체 구성원	100.0	44.4	0.5	21.9	22.0	55.6	100.0	41.6	0.4	17.3	23.9	58.4
그밖의 알고 지내는 사람	100.0	75.8	0.7	36.7	38.4	24.2	100.0	72.9	0.4	30.1	42.5	27.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표(8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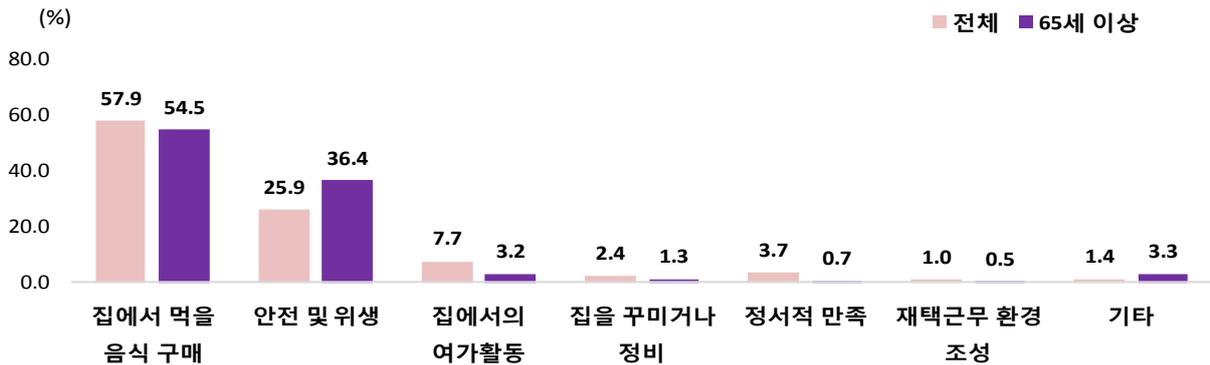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0. 소비 생활 변화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의 변화로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 54.5%, 안전 및 위생용품 구매 36.4%로 순으로 응답함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활의 변화로 집에서 먹을 음식의 구매(54.5%)가 가장 높았고, 안전 및 위생용품의 구매(36.4%), 집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소비(3.2%) 순으로 응답함
- 안전 및 위생용품의 구매는 고령자가 전체연령보다 10.5%p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았음
- 집에서 먹을 음식의 구매, 집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소비, 정서적 만족, 집 꾸미기 등을 위한 소비는 고령자가 전체연령보다 낮았음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생활 변화(202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소비 생활 변화(2021) >

(단위: %)

	계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	안전 및 위생	집에서의 여가활동	집을 꾸미거나 정비	정서적 만족	재택근무 환경 조성	기타
65세 이상	100.0	54.5	36.4	3.2	1.3	0.7	0.5	3.3
65~69세	100.0	57.3	33.3	4.2	1.6	0.7	0.8	2.0
70~79세	100.0	55.1	35.8	3.0	1.5	1.0	0.5	3.0
80세 이상	100.0	49.1	42.1	2.2	0.5	0.3	0.3	5.5
전체 ¹⁾	100.0	57.9	25.9	7.7	2.4	3.7	1.0	1.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표(8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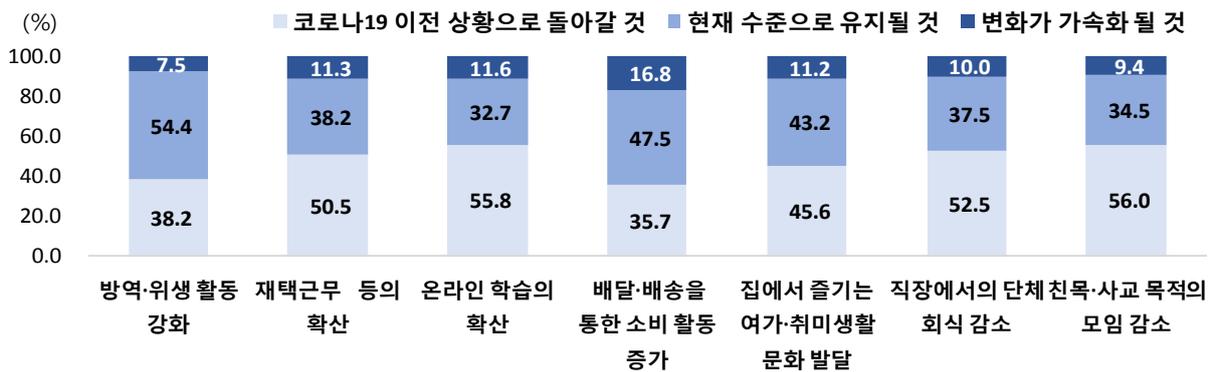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1. 일상생활 변화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일상생활의 변화로 방역·위생 활동 강화(89.7%), 직장에서 단체 회식 감소(71.6%) 순으로 평가함

- '21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긍정적인 일상생활 변화로 방역·위생 활동 강화(89.7%), 직장에서 단체 회식 감소(71.6%) 순으로 평가함
 - 부정적인 일상생활 변화는 온라인 학습의 확산(50.6%), 친목·사교모임의 감소(41.0%)로 응답함
-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변화는 친목·사교모임 감소(56.0%), 온라인 학습의 확산(55.8%), 직장에서 단체 회식 감소(52.5%) 순임
 -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되는 것은 방역·위생 활동 강화(54.4%), 배달·배송을 소비증가(47.5%) 순임

< 코로나19 일상생활 변화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 (202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코로나19 일상생활 변화(65세 이상)(2021)¹⁾ >

(단위: %)

변화에 대한 견해	변화에 대한 견해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	현재 수준 유지	변화 가속화	
	긍정적	부정적					
방역·위생 활동 강화	100.0	89.7	10.3	100.0	38.2	54.4	7.5
재택근무 등의 확산	100.0	66.0	34.0	100.0	50.5	38.2	11.3
온라인 학습의 확산	100.0	49.4	50.6	100.0	55.8	32.7	11.6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증가	100.0	66.9	33.1	100.0	35.7	47.5	16.8
집에서의 여가 취미 문화 발달	100.0	69.6	30.4	100.0	45.6	43.2	11.2
직장에서의 단체 회식 감소	100.0	71.6	28.4	100.0	52.5	37.5	10.0
친목·사교모임 감소	100.0	59.0	41.0	100.0	56.0	34.5	9.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표(87쪽) 참조

통계표

I.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1-1. 인구 추이	58
1-2. 성, 연령별 고령인구	59
2. 지역별 고령인구	61
3. 고령자 가구	63
4. 이혼 및 재혼	64

II. 건강

5. 기대여명	65
6. 사망원인별 사망률	66
7. 본인부담 의료비	68
8. 건강검진 수검률	69
9. 운동 실천율	70
10.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71
11. 노인 복지시설	72

III. 소득보장

12. 자산 소유액 및 구성	73
13. 은퇴연령층 빈곤율	74
14. 공적연금 수급률	75
15. 고용률	
15-1. 고용률	76
15-2. 산업별 취업자 분포	77
15-3. 직업별 취업자 분포	78

IV. 사회참여·관계

16. 평생교육 참여율	79
17. 자원봉사 참여율	79
18. 사회단체 참여율	80
19. 인간관계 만족도	81
20. 노인차별	82
21. 세대갈등	82

V. 생활환경

22. 주택 소유율	83
23. 지역환경 만족도	83
24. 보행 안전성	84
25. 운전자 사고비중	85
26.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85

VI. 코로나19

27. 코로나19 발생률	86
28. 방역수칙 준수	86
29. 사회적 관계망 변화	86
30. 소비 생활 변화	87
31. 일상생활 변화	87

※ 국제비교	88
--------------	----

1-1. 인구 추이

(단위: 명,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명)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0	47,008,111	3,394,896	7.2	10.1	34.3
2005	48,184,561	4,320,787	9.0	12.5	46.8
2010	49,554,112	5,366,109	10.8	14.8	67.2
2015	51,014,947	6,541,168	12.8	17.5	93.0
2020	51,836,239	8,151,867	15.7	21.8	129.3
2021	51,744,876	8,571,347	16.6	23.1	139.5
2022	51,628,117	9,018,412	17.5	24.6	152.0
2023	51,558,034	9,499,933	18.4	26.1	167.1
2024	51,500,029	10,008,326	19.4	27.8	183.2
2025	51,447,504	10,585,254	20.6	29.7	201.5
2026	51,397,309	11,197,381	21.8	31.8	223.0
2027	51,348,388	11,670,499	22.7	33.5	242.6
2028	51,300,095	12,199,730	23.8	35.4	263.9
2029	51,250,905	12,596,450	24.6	36.9	281.5
2030	51,199,019	13,056,326	25.5	38.6	301.6
2031	51,142,848	13,494,495	26.4	40.4	320.9
2032	51,082,971	13,910,059	27.2	42.1	336.6
2033	51,018,619	14,338,057	28.1	44.0	349.4
2034	50,947,857	14,842,666	29.1	46.4	361.4
2035	50,868,691	15,289,115	30.1	48.6	369.1
2036	50,774,771	15,757,376	31.0	51.1	375.8
2037	50,660,209	16,177,309	31.9	53.5	380.8
2038	50,524,704	16,580,343	32.8	55.9	384.8
2039	50,368,731	16,953,017	33.7	58.4	387.8
2040	50,193,281	17,244,870	34.4	60.5	389.5
2045	49,029,906	18,335,419	37.4	69.9	411.6
2050	47,358,532	19,003,889	40.1	78.6	456.2
2055	45,151,722	18,765,328	41.6	82.8	502.7
2060	42,617,053	18,682,658	43.8	90.4	570.6
2065	40,069,340	18,402,459	45.9	98.2	630.0
2070	37,655,867	17,472,938	46.4	100.6	620.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1-2. 성, 연령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명)

	65세 이상	성별				성비 ²⁾
		남자	고령인구 비중 ¹⁾	여자	고령인구 비중 ¹⁾	
2000	3,395	1,300	5.5	2,095	9.0	62.0
2005	4,321	1,721	7.1	2,600	10.9	66.2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2015	6,541	2,749	10.7	3,793	14.9	72.5
2020	8,152	3,521	13.6	4,631	17.9	76.0
2021	8,571	3,723	14.4	4,849	18.7	76.8
2022	9,018	3,939	15.3	5,080	19.7	77.5
2023	9,500	4,174	16.2	5,326	20.6	78.4
2024	10,008	4,419	17.2	5,589	21.7	79.1
2025	10,585	4,694	18.3	5,891	22.9	79.7
2026	11,197	4,988	19.4	6,209	24.1	80.3
2027	11,670	5,219	20.4	6,451	25.1	80.9
2028	12,200	5,483	21.4	6,716	26.1	81.6
2029	12,596	5,678	22.2	6,919	26.9	82.1
2030	13,056	5,901	23.1	7,156	27.9	82.5
2031	13,494	6,116	24.0	7,378	28.8	82.9
2032	13,910	6,318	24.8	7,592	29.6	83.2
2033	14,338	6,521	25.6	7,817	30.5	83.4
2034	14,843	6,763	26.6	8,080	31.6	83.7
2035	15,289	6,979	27.5	8,310	32.6	84.0
2036	15,757	7,208	28.5	8,550	33.5	84.3
2037	16,177	7,414	29.4	8,763	34.4	84.6
2038	16,580	7,609	30.3	8,972	35.4	84.8
2039	16,953	7,788	31.1	9,165	36.2	85.0
2040	17,245	7,928	31.8	9,317	36.9	85.1
2045	18,335	8,452	34.7	9,884	40.0	85.5
2050	19,004	8,795	37.4	10,209	42.8	86.2
2055	18,765	8,737	39.0	10,029	44.1	87.1
2060	18,683	8,816	41.6	9,867	46.0	89.3
2065	18,402	8,780	44.0	9,622	47.8	91.2
2070	17,473	8,403	44.7	9,070	48.1	92.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 당 명)

	연령별					
	65~69세	구성비 ³⁾	70~74세	구성비 ³⁾	75세 이상	구성비 ³⁾
2000	1,381	2.9	922	2.0	1,091	2.3
2005	1,690	3.5	1,215	2.5	1,416	2.9
2010	1,878	3.8	1,540	3.1	1,948	3.9
2015	2,106	4.1	1,780	3.5	2,656	5.2
2020	2,662	5.1	1,990	3.8	3,499	6.8
2021	2,896	5.6	2,091	4.0	3,585	6.9
2022	3,063	5.9	2,168	4.2	3,787	7.3
2023	3,274	6.3	2,240	4.3	3,986	7.7
2024	3,507	6.8	2,329	4.5	4,172	8.1
2025	3,685	7.2	2,533	4.9	4,367	8.5
2026	3,933	7.7	2,759	5.4	4,505	8.8
2027	4,017	7.8	2,924	5.7	4,729	9.2
2028	4,127	8.0	3,129	6.1	4,944	9.6
2029	4,079	8.0	3,356	6.5	5,161	10.1
2030	4,027	7.9	3,532	6.9	5,497	10.7
2031	3,920	7.7	3,775	7.4	5,800	11.3
2032	3,925	7.7	3,859	7.6	6,126	12.0
2033	3,889	7.6	3,968	7.8	6,481	12.7
2034	4,058	8.0	3,925	7.7	6,859	13.5
2035	4,109	8.1	3,879	7.6	7,301	14.4
2036	4,203	8.3	3,780	7.4	7,774	15.3
2037	4,272	8.4	3,789	7.5	8,116	16.0
2038	4,314	8.5	3,759	7.4	8,507	16.8
2039	4,254	8.4	3,927	7.8	8,772	17.4
2040	4,172	8.3	3,980	7.9	9,093	18.1
2045	3,707	7.6	4,057	8.3	10,571	21.6
2050	3,709	7.8	3,619	7.6	11,676	24.7
2055	3,158	7.0	3,630	8.0	11,977	26.5
2060	3,500	8.2	3,099	7.3	12,084	28.4
2065	3,335	8.3	3,444	8.6	11,624	29.0
2070	2,614	6.9	3,288	8.7	11,571	30.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2. 지역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10	고령인구 비중	2015	고령인구 비중	2020	고령인구 비중	2022	고령인구 비중	2025	고령인구 비중
전국	5,366	10.8	6,541	12.8	8,152	15.7	9,018	17.5	10,585	20.6
서울	928	9.2	1,209	12.2	1,477	15.4	1,616	17.2	1,853	20.1
부산	391	11.3	495	14.3	628	18.7	692	21.0	794	24.7
대구	247	10.0	308	12.5	388	16.1	426	18.0	492	21.4
인천	230	8.5	303	10.5	398	13.5	451	15.2	551	18.6
광주	130	8.7	164	10.9	204	13.8	223	15.2	261	18.1
대전	128	8.5	162	10.5	206	13.8	229	15.5	269	18.7
울산	74	6.7	99	8.5	138	12.1	158	14.2	195	18.0
세종	-	-	20	10.8	32	9.2	38	9.9	49	11.5
경기	990	8.5	1,281	10.3	1,720	12.8	1,955	14.3	2,401	17.1
강원	223	15.0	253	16.7	304	20.0	337	22.1	396	25.9
충북	204	13.4	229	14.4	277	17.0	307	18.8	361	22.0
충남	309	14.9	330	15.7	390	17.9	426	19.5	492	22.4
전북	284	15.8	321	17.5	372	20.6	398	22.4	448	25.7
전남	349	19.7	370	20.6	410	22.9	433	24.5	482	27.7
경북	424	16.1	466	17.4	551	20.8	600	22.8	685	26.4
경남	386	12.0	450	13.5	556	16.6	617	18.8	726	22.3
제주	68	12.4	82	13.7	101	15.1	112	16.5	130	18.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30	고령인구 비중	2035	고령인구 비중	2040	고령인구 비중	2045	고령인구 비중	2050	고령인구 비중
전국	13,056	25.5	15,289	30.1	17,245	34.4	18,335	37.4	19,004	40.1
서울	2,188	24.5	2,475	28.3	2,728	31.9	2,853	34.5	2,930	37.0
부산	925	30.1	1,019	34.5	1,085	38.4	1,101	41.2	1,096	43.6
대구	594	27.0	679	32.2	741	36.7	761	39.7	760	42.1
인천	714	24.1	855	28.8	980	33.2	1,055	36.4	1,105	39.3
광주	319	22.8	375	27.5	424	32.0	449	35.3	462	38.1
대전	330	23.6	385	28.1	433	32.3	458	35.3	471	37.8
울산	255	24.4	305	30.5	339	35.6	352	39.0	354	41.9
세종	72	14.6	99	18.0	129	22.0	156	25.4	182	28.8
경기	3,152	21.9	3,860	26.3	4,511	30.5	4,923	33.6	5,220	36.4
강원	484	31.6	564	36.7	636	41.4	675	44.5	700	47.2
충북	450	27.2	535	32.1	610	36.6	655	39.8	685	42.7
충남	606	27.2	714	31.7	820	36.4	891	39.8	943	43.0
전북	523	31.0	594	36.0	656	40.9	686	44.1	698	46.8
전남	559	32.9	635	38.2	702	43.2	737	46.6	754	49.5
경북	822	32.2	942	37.6	1,040	42.6	1,085	46.0	1,102	48.9
경남	899	28.2	1,055	33.8	1,183	39.1	1,247	42.9	1,275	46.0
제주	163	23.1	196	27.5	229	31.9	251	35.2	268	38.3

3. 고령자 가구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 ¹⁾	비중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부부 구성비	부부+ 미혼 자녀 구성비	부(모)+ 미혼 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05	16,039	2,350	14.7	796	33.9	243	10.3	116	4.9	746	31.7	450	19.1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15	19,013	3,664	19.3	1,215	33.2	365	10.0	204	5.6	1,208	33.0	671	18.3
2020	20,731	4,640	22.4	1,610	34.7	443	9.6	259	5.6	1,618	34.9	710	15.3
2021	21,278	4,919	23.1	1,731	35.2	458	9.3	271	5.5	1,763	35.8	696	14.2
2022	21,579	5,195	24.1	1,829	35.2	480	9.2	287	5.5	1,875	36.1	723	13.9
2023	21,834	5,491	25.1	1,936	35.3	505	9.2	305	5.5	1,993	36.3	752	13.7
2024	22,080	5,801	26.3	2,050	35.3	533	9.2	324	5.6	2,114	36.4	780	13.4
2025	22,309	6,147	27.6	2,180	35.5	563	9.2	344	5.6	2,248	36.6	812	13.2
2026	22,516	6,517	28.9	2,322	35.6	597	9.2	367	5.6	2,387	36.6	844	12.9
2027	22,706	6,808	30.0	2,428	35.7	617	9.1	385	5.6	2,508	36.8	870	12.8
2028	22,880	7,128	31.2	2,547	35.7	640	9.0	404	5.7	2,639	37.0	898	12.6
2029	23,037	7,372	32.0	2,640	35.8	654	8.9	418	5.7	2,743	37.2	918	12.4
2030	23,180	7,654	33.0	2,746	35.9	669	8.7	435	5.7	2,861	37.4	943	12.3
2031	23,311	7,928	34.0	2,855	36.0	685	8.6	451	5.7	2,973	37.5	964	12.2
2032	23,430	8,190	35.0	2,950	36.0	699	8.5	466	5.7	3,088	37.7	987	12.1
2033	23,537	8,458	35.9	3,048	36.0	713	8.4	482	5.7	3,205	37.9	1,011	12.0
2034	23,629	8,772	37.1	3,163	36.1	736	8.4	501	5.7	3,334	38.0	1,038	11.8
2035	23,709	9,054	38.2	3,263	36.0	751	8.3	518	5.7	3,458	38.2	1,064	11.8
2036	23,775	9,348	39.3	3,370	36.1	769	8.2	536	5.7	3,582	38.3	1,090	11.7
2037	23,824	9,614	40.4	3,463	36.0	784	8.2	552	5.7	3,702	38.5	1,114	11.6
2038	23,856	9,868	41.4	3,549	36.0	797	8.1	567	5.7	3,818	38.7	1,137	11.5
2039	23,870	10,103	42.3	3,632	36.0	808	8.0	581	5.8	3,925	38.9	1,157	11.4
2040	23,866	10,290	43.1	3,688	35.8	811	7.9	592	5.8	4,023	39.1	1,176	11.4
2041	23,843	10,442	43.8	3,734	35.8	811	7.8	600	5.7	4,106	39.3	1,191	11.4
2042	23,803	10,576	44.4	3,774	35.7	811	7.7	608	5.7	4,181	39.5	1,203	11.4
2043	23,744	10,705	45.1	3,809	35.6	810	7.6	615	5.7	4,255	39.7	1,216	11.4
2044	23,667	10,829	45.8	3,845	35.5	811	7.5	622	5.7	4,323	39.9	1,227	11.3
2045	23,572	10,984	46.6	3,885	35.4	815	7.4	632	5.8	4,410	40.1	1,243	11.3
2050	22,849	11,375	49.8	3,958	34.8	812	7.1	658	5.8	4,671	41.1	1,276	11.2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이혼 및 재혼

(단위: 건)

65세 이상	이혼		재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1,321	423	971	202
2001	1,502	467	999	205
2002	1,768	537	1,042	242
2003	2,332	778	1,177	277
2004	2,340	816	1,394	332
2005	2,589	916	1,566	413
2006	3,061	1,120	1,746	502
2007	3,581	1,412	1,992	606
2008	4,409	1,738	1,855	548
2009	4,370	1,739	2,065	641
2010	4,346	1,734	2,099	702
2011	4,484	1,789	2,234	799
2012	4,836	1,955	2,449	912
2013	5,464	2,317	2,515	938
2014	5,914	2,721	2,467	902
2015	5,852	2,655	2,672	1,069
2016	6,101	2,910	2,568	1,109
2017	6,883	3,427	2,684	1,202
2018	8,032	4,148	2,759	1,347
2019	8,867	4,647	2,926	1,494
2020	9,854	5,285	2,966	1,621
2021	11,171	6,208	3,155	1,86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5. 기대여명¹⁾²⁾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6.4	14.3	18.2	9.8	8.5	10.7
2001	16.6	14.5	18.4	9.9	8.6	10.8
2002	16.8	14.7	18.5	10.0	8.7	10.8
2003	17.1	15.1	18.9	10.3	9.0	11.2
2004	17.4	15.3	19.2	10.4	9.1	11.4
2005	17.7	15.5	19.6	10.6	9.2	11.6
2006	17.9	15.8	19.8	10.8	9.4	11.8
2007	18.2	16.0	20.2	11.0	9.5	12.1
2008	18.6	16.3	20.7	11.3	9.7	12.5
2009	19.0	16.7	21.1	11.6	10.0	12.9
2010	19.1	16.8	21.2	11.6	10.0	12.9
2011	19.4	17.1	21.5	11.8	10.1	13.0
2012	19.5	17.2	21.5	11.8	10.1	13.1
2013	19.9	17.6	21.9	12.1	10.5	13.4
2014	20.2	17.9	22.3	12.4	10.7	13.7
2015	20.3	18.2	22.4	12.4	10.8	13.7
2016	20.6	18.4	22.6	12.6	11.0	13.9
2017	20.8	18.6	22.7	12.7	11.1	14.0
2018	20.8	18.7	22.8	12.7	11.1	14.1
2019	21.3	19.1	23.4	13.2	11.5	14.6
2020	21.5	19.2	23.6	13.3	11.6	14.7

자료: 통계청, 「생명표」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2) 16.12.2. 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으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6. 사망원인별 사망률¹⁾²⁾³⁾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01	악성신생물(암) 933.2	뇌혈관질환 776.9	심장 질환 313.8	만성 하기도 질환 232.3	당뇨병 229.0
2002	악성신생물(암) 977.0	뇌혈관질환 790.8	심장 질환 335.2	만성 하기도 질환 28876	당뇨병 231.8
2003	악성신생물(암) 961.7	뇌혈관질환 747.3	심장 질환 311.8	당뇨병 224.8	만성 하기도 질환 217.1
2004	악성신생물(암) 937.0	뇌혈관질환 674.2	심장 질환 312.8	당뇨병 210.2	만성 하기도 질환 187.3
2005	악성신생물(암) 924.5	뇌혈관질환 589.8	심장 질환 331.6	당뇨병 200.3	만성 하기도 질환 161.6
2006	악성신생물(암) 905.6	뇌혈관질환 545.2	심장 질환 338.9	당뇨병 194.0	만성 하기도 질환 143.3
2007	악성신생물(암) 902.0	뇌혈관질환 511.5	심장 질환 349.1	당뇨병 181.8	만성 하기도 질환 146.7
2008	악성신생물(암) 885.5	뇌혈관질환 460.3	심장 질환 333.5	당뇨병 158.0	만성 하기도 질환 136.1
2009	악성신생물(암) 865.4	뇌혈관질환 410.7	심장 질환 332.6	당뇨병 146.6	만성 하기도 질환 124.4
2010	악성신생물(암) 882.4	뇌혈관질환 409.4	심장 질환 344.0	당뇨병 153.1	폐렴 127.6
2011	악성신생물(암) 847.8	뇌혈관질환 381.1	심장 질환 361.2	당뇨병 155.4	폐렴 143.2
2012	악성신생물(암) 852.9	뇌혈관질환 372.9	심장 질환 367.1	폐렴 166.4	당뇨병 163.0
2013	악성신생물(암) 836.6	뇌혈관질환 353.0	심장 질환 335.6	폐렴 166.6	당뇨병 148.5
2014	악성신생물(암) 827.4	심장 질환 339.0	뇌혈관질환 323.6	폐렴 177.5	당뇨병 136.1
2015	악성신생물(암) 803.0	심장 질환 351.0	뇌혈관질환 311.1	폐렴 209.1	당뇨병 133.2
2016	악성신생물(암) 796.2	심장 질환 357.7	뇌혈관질환 286.9	폐렴 225.1	당뇨병 119.5
2017	악성신생물(암) 784.4	심장 질환 361.3	뇌혈관질환 268.6	폐렴 257.6	당뇨병 108.2
2018	악성신생물(암) 763.0	심장 질환 360.8	폐렴 295.3	뇌혈관질환 260.1	당뇨병 98.5
2019	악성신생물(암) 750.5	심장 질환 335.7	폐렴 283.1	뇌혈관질환 232.0	당뇨병 87.1
2020	악성신생물(암) 733.3	심장 질환 331.9	폐렴 257.5	뇌혈관질환 225.3	알츠하이머병 91.4
2021	악성신생물(암) 709.3	심장 질환 312.0	폐렴 250.3	뇌혈관질환 220.6	알츠하이머병 92.0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1) 사망률 = 사망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2)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3) 만성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2001	고혈압성 질환 121.2	간 질환 84.4	폐렴 66.9	운수사고 62.0	호흡기 결핵 51.4
2002	고혈압성 질환 124.1	간 질환 80.0	폐렴 61.9	운수사고 61.4	고의적 자해(자살) 56.2
2003	고혈압성 질환 119.8	고의적 자해(자살) 72.7	간 질환 72.1	폐렴 63.0	운수사고 60.8
2004	고혈압성 질환 107.6	고의적 자해(자살) 79.3	폐렴 76.3	간 질환 63.1	운수사고 59.1
2005	고혈압성 질환 93.3	폐렴 87.3	고의적 자해(자살) 80.9	간 질환 58.4	운수사고 55.6
2006	폐렴 92.1	고혈압성 질환 91.9	고의적 자해(자살) 72.4	운수사고 54.0	간 질환 52.4
2007	고혈압성 질환 104.0	폐렴 87.7	고의적 자해(자살) 75.5	운수사고 52.2	간 질환 48.7
2008	폐렴 98.7	고혈압성 질환 86.1	고의적 자해(자살) 71.7	운수사고 48.2	간 질환 46.6
2009	폐렴 111.5	고혈압성 질환 83.7	고의적 자해(자살) 78.8	운수사고 47.6	간 질환 43.4
2010	만성 하기도 질환 122.8	고혈압성 질환 82.9	고의적 자해(자살) 81.9	운수사고 44.7	간 질환 43.8
2011	만성 하기도 질환 117.5	고혈압성 질환 85.0	고의적 자해(자살) 79.7	알츠하이머병 42.9	간 질환 42.2
2012	만성 하기도 질환 127.4	고혈압성 질환 85.8	고의적 자해(자살) 69.8	알츠하이머병 57.3	운수사고 41.5
2013	만성 하기도 질환 109.7	고혈압성 질환 74.4	알츠하이머병 70.8	고의적 자해(자살) 64.2	간 질환 39.9
2014	만성 하기도 질환 106.8	고혈압성 질환 76.3	알츠하이머병 69.1	고의적 자해(자살) 55.5	간 질환 38.1
2015	만성 하기도 질환 108.7	알츠하이머병 76.0	고혈압성 질환 73.7	고의적 자해(자살) 58.6	패혈증 40.4
2016	만성 하기도 질환 97.3	고혈압성 질환 75.9	알츠하이머병 70.3	고의적 자해(자살) 53.3	패혈증 46.9
2017	만성 하기도 질환 90.7	고혈압성 질환 77.7	알츠하이머병 70.2	패혈증 50.4	고의적 자해(자살) 47.7
2018	만성 하기도 질환 84.3	알츠하이머병 82.1	고혈압성 질환 78.1	패혈증 56.8	고의적 자해(자살) 48.6
2019	알츠하이머병 86.1	만성 하기도 질환 75.6	고혈압성 질환 69.7	패혈증 57.3	고의적 자해(자살) 46.6
2020	당뇨병 86.6	고혈압성 질환 71.2	패혈증 68.2	만성 하기도 질환 66.0	고의적 자해(자살) 41.7
2021	당뇨병 87.2	고혈압성 질환 68.4	패혈증 67.6	만성 하기도 질환 59.2	코로나19 50.7

7. 본인부담 의료비

(단위: 억원, 천원, %)

65세 이상	진료비 ¹⁾	1인당 진료비 ²⁾	본인부담금	1인당 본인부담금 ³⁾	본인부담금 비중 ⁴⁾
2005	60,731	1,549	15,155	387	25.0
2006	73,504	1,805	17,515	430	23.8
2007	91,190	2,079	21,653	494	23.7
2008	107,371	2,334	26,350	573	24.5
2009	124,236	2,574	30,286	627	24.4
2010	141,350	2,839	32,945	662	23.3
2011	153,893	2,968	35,805	691	23.3
2012	164,494	3,008	38,553	705	23.4
2013	180,852	3,151	42,578	742	23.5
2014	199,687	3,326	47,074	784	23.6
2015	222,361	3,573	53,426	859	24.0
2016	252,692	3,921	61,583	955	24.4
2017	283,247	4,162	69,074	1,015	24.4
2018	318,235	4,487	74,183	1,046	23.3
2019	357,925	4,796	83,351	1,117	23.3
2020	376,135	4,759	87,412	1,106	23.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 ÷ 진료비 × 100

8. 건강검진 수검률¹⁾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58.0	63.4	53.9	73.3	74.2	72.4	60.5	64.0	57.8	30.7	39.0	26.8
2011	61.8	67.0	57.8	77.2	78.3	76.0	65.0	67.8	62.9	35.4	44.0	31.4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2020	62.5	66.2	59.5	74.0	73.4	74.6	66.4	68.4	64.7	36.9	45.1	32.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1차검진 수검인원 ÷ 1차검진 대상인원) × 100

9. 운동 실천율

(단위: %)

65세 이상	걷기 실천율 ¹⁾³⁾			근력운동 실천율 ¹⁾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²⁾⁵⁾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46.8	50.3	44.4	11.6	19.0	6.5	-	-	-
2008	49.9	60.2	42.8	9.9	19.7	3.3	-	-	-
2009	47.1	54.6	41.9	10.7	19.0	5.1	-	-	-
2010	39.8	44.2	36.6	11.9	20.6	5.8	-	-	-
2011	35.9	45.4	29.2	13.2	24.4	5.3	-	-	-
2012	33.5	41.4	28.0	15.0	25.5	7.7	-	-	-
2013	35.3	42.2	30.4	18.7	30.7	10.2	-	-	-
2014	41.3	47.6	36.7	16.8	28.5	8.3	41.1	50.9	33.6
2015	35.8	41.1	32.0	17.7	30.7	8.3	33.7	41.7	27.9
2016	35.4	39.0	32.7	15.2	24.7	8.4	34.4	43.4	27.9
2017	35.7	42.2	30.8	17.5	28.8	9.0	29.4	32.6	26.9
2018	37.3	46.1	30.8	18.3	30.3	9.5	28.1	33.4	24.3
2019	39.9	44.3	36.5	18.3	30.5	8.7	33.0	36.6	30.1
2020	42.3	44.8	40.2	22.5	35.0	12.5	33.2	40.8	27.0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2005년부터 조사, 2007년부터 조사주기 1년으로 변경

2) 2014년부터 조사

3)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4)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5)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10. 장기요양자인정자 비중¹⁾²⁾³⁾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3	5.7	3.5	7.3	1.3	1.4	1.3	4.4	3.3	5.2	16.7	10.4	19.4
2014	6.2	3.8	7.9	1.3	1.3	1.3	4.7	3.5	5.6	17.8	11.0	20.8
2015	6.6	4.0	8.5	1.3	1.3	1.3	5.0	3.7	5.9	18.7	11.5	21.8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2021	10.3	6.3	13.4	1.7	1.8	1.6	7.1	5.3	8.6	28.5	17.9	34.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11. 노인 복지시설

(단위: 개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		70,643	71,873	72,860	73,774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85,228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414	416	435	443	427	425	404	390	382	352	337
	양로시설	303	285	285	272	265	265	252	238	232	209	192
	노인공동생활가정	87	108	125	142	131	128	119	117	115	107	107
	노인복지주택	24	23	25	29	31	32	33	35	35	36	38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4,079	4,352	4,585	4,841	5,063	5,163	5,242	5,287	5,529	5,725	5,821
	노인요양시설	2,489	2,610	2,497	2,707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4,05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90	1,742	2,088	2,134	2,130	2,027	1,981	1,897	1,934	1,881	1,764
	노인전문병원 ¹⁾	-	-	-	-	-	-	-	-	-	-	-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계	63,375	64,077	64,983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68,823
	노인복지관	281	300	319	344	347	350	364	385	391	398	357
	경로당	61,537	62,442	63,251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67,211
	노인교실	1,557	1,335	1,413	1,361	1,377	1,393	1,356	1,342	1,285	1,291	1,255
노인휴양소 ¹⁾	-	-	-	-	-	-	-	-	-	-	-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²⁾	소계	2,750	3,003	2,832	2,797	3,089	3,168	3,216	3,494	4,821	7,212	9,984
	방문요양서비스	1,180	1,113	1,042	992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4,156
	주야간보호서비스	842	840	848	913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2,618
	단기보호서비스	95	94	110	96	112	95	80	73	78	73	69
	방문목욕서비스	633	633	603	588	617	588	609	650	942	1,596	2,415
	방문간호서비스 ³⁾	-	-	-	-	-	-	10	21	60	95	158
	복지용구지원서비스 ⁴⁾	-	-	-	-	-	-	-	-	0	86	208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⁵⁾	-	323	229	208	332	390	342	387	412	385	360
노인보호전문기관		25	25	25	28	29	29	32	33	34	35	37
노인일자리지원기관 ⁶⁾		-	-	-	0	129	136	153	160	184	196	206
학대피해노인쉼터 ⁷⁾		-	-	-	-	-	-	-	18	19	19	2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 주: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외('11.12.8.)
 2)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6.7.1.)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12.12.)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0.2.24.)
 6)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3.12.15.)
 7)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2.7.)

12. 자산 소유액 및 구성¹⁾

(단위: 만 원)

65세 이상	순자산 ²⁾	자산	자산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저축액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2013	25,769	28,951	4,337	3,519	818	24,614	23,812	803	3,182	1,659	1,523
2014	26,365	29,720	4,422	3,664	758	25,298	24,175	1,123	3,355	1,705	1,650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2021	41,048	45,615	7,454	6,299	1,155	38,161	36,881	1,280	4,567	2,628	1,939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

2) 순자산 = 자산 - 부채

13. 은퇴연령층 빈곤율

(단위: %, 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¹⁾		지니계수 ²⁾		소득 5분위 배율 ³⁾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⁴⁾
2011	57.8	47.8	0.560	0.460	40.14	11.43
2012	56.7	47.0	0.556	0.458	40.26	11.48
2013	56.9	47.7	0.555	0.453	39.43	11.23
2014	57.3	46.0	0.567	0.450	47.99	10.73
2015	57.8	44.3	0.564	0.427	46.71	9.27
2016	58.7	45.0	0.568	0.425	49.47	9.05
2017	58.3	44.0	0.564	0.419	45.97	8.82
2018	59.9	43.4	0.560	0.406	41.99	7.94
2019	61.0	43.2	0.554	0.389	42.82	7.21
2020	60.2	40.4	0.554	0.376	43.13	6.62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3)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14.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명)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¹⁾	공적연금 수급자 수 ²⁾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4	41.1	2,580,260	2,273,816	88.1	222,325	8.6	34,894	1.4	49,225	1.9
2015	42.8	2,802,065	2,473,690	88.3	240,041	8.6	37,737	1.3	50,597	1.8
2016	44.6	3,015,710	2,664,358	88.3	256,695	8.5	41,736	1.4	52,921	1.8
2017	46.9	3,313,618	2,936,683	88.6	279,524	8.4	42,508	1.3	54,903	1.7
2018	48.7	3,584,900	3,180,045	88.7	300,037	8.4	47,084	1.3	57,734	1.6
2019	50.9	3,914,457	3,478,558	88.9	323,430	8.3	52,326	1.3	60,143	1.5
2020	52.9	4,315,019	3,842,189	89.0	351,922	8.2	58,749	1.4	62,159	1.4
2021	55.1	4,723,381	4,215,028	89.2	379,008	8.0	65,040	1.4	64,305	1.4
남자	74.1	2,757,149	2,395,819	86.9	269,263	9.8	48,072	1.7	43,995	1.6
여자	40.6	1,966,232	1,819,209	92.5	109,745	5.6	16,968	0.9	20,310	1.0
65~69세	63.7	1,844,095	1,666,733	90.4	134,056	7.3	27,621	1.5	15,685	0.9
70~74세	60.3	1,261,280	1,140,467	90.4	94,364	7.5	14,918	1.2	11,531	0.9
75~79세	59.0	924,253	832,915	90.1	68,747	7.4	11,005	1.2	11,586	1.3
80세 이상	34.4	693,753	574,913	82.9	81,841	11.8	11,496	1.7	25,503	3.7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의 합계임

15-1. 고용률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¹⁾	실업률 ²⁾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6	4,529	1,381	1,371	10	30.3	0.7
2007	4,759	1,491	1,482	10	31.1	0.7
2008	4,983	1,535	1,523	12	30.6	0.8
2009	5,177	1,571	1,553	18	30.0	1.2
2010	5,361	1,590	1,553	38	29.0	2.4
2011	5,527	1,642	1,606	36	29.1	2.2
2012	5,766	1,770	1,733	37	30.1	2.1
2013	6,022	1,879	1,851	28	30.7	1.5
2014	6,277	1,995	1,954	41	31.1	2.1
2015	6,534	2,034	1,985	48	30.4	2.4
2016	6,767	2,116	2,068	49	30.6	2.3
2017	7,071	2,228	2,166	62	30.6	2.8
2018	7,386	2,381	2,311	70	31.3	2.9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2021	8,582	3,112	2,992	119	34.9	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15-2. 산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 금융업
2014	1,954	100.0	33.6	5.1	5.1	61.3	3.8	17.5	33.1	6.9
2015	1,985	100.0	30.5	5.5	5.5	64.0	3.5	17.8	35.5	7.1
2016	2,068	100.0	28.4	6.2	6.2	65.4	3.3	16.6	38.4	7.1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7.0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7
2021	2,992	100.0	25.0	5.7	5.7	69.3	4.3	13.1	44.0	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15-3. 직업별¹⁾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4	1,954	100.0	4.8	2.6	15.2	31.7	11.3	34.4
2015	1,985	100.0	4.9	2.5	16.0	28.7	12.4	35.5
2016	2,068	100.0	4.5	2.6	16.8	26.8	12.8	36.5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2021	2,992	100.0	4.8	3.4	16.8	24.2	14.1	36.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임

16. 평생교육 참여율¹⁾

(단위: %)

65~79세	참여율 ²⁾	활동 분야(복수응답)		
		형식교육 ³⁾	비형식교육 ⁴⁾	직업관련 목적 ⁵⁾
2017	26.9	0.2	26.9	3.0
2018	32.7	0.1	32.6	5.5
2019	32.5	0.1	32.4	4.9
2020	29.5	0.1	29.4	6.0
2021	19.2	0.2	19.2	4.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 학습개인실태 조사」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17.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65세 이상	참여율 ¹⁾	활동 분야(복수응답)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자녀교육 등	국가 및 지역행사 등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²⁾
2009	5.3	28.9	45.0	5.9	6.1	10.0	14.8
2011	5.5	44.7	37.5	1.7	5.7	7.2	8.1
2013	6.2	44.1	43.7	0.7	6.7	4.8	8.6
2015	6.6	48.4	37.2	0.4	7.9	4.8	9.7
2017	6.3	51.4	31.3	3.2	5.6	6.0	11.5
2019	6.5	54.0	31.7	4.0	8.3	5.3	10.0
2021	5.2	44.7	38.5	1.4	5.3	7.2	14.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지난 1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임

2) 관공서 업무 지원, 무료 상담 등

18.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65세 이상	참여율 ¹⁾	단체 유형별 참여 비중(복수응답)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용 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 모임	기타
2009	27.1	75.9	39.2	12.4	7.4	1.0	0.9	0.8	-	0.3
2011	35.4	69.1	37.9	11.5	4.5	1.4	0.4	1.0	16.9	1.3
2013	39.3	69.7	33.4	14.5	6.2	0.8	0.4	0.6	17.9	0.6
2015	40.0	71.4	33.8	17.5	5.5	1.3	0.5	0.3	18.5	0.3
2017	42.9	74.6	39.8	22.2	5.5	2.0	0.9	0.6	17.7	-
2019 ²⁾	58.7	72.7	43.0	29.6	8.4	2.3	1.4	0.9	20.4	0.0
2021	28.7	55.8	43.0	33.3	7.5	1.0	1.0	1.0	11.5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지난 1년간 각 항목의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임

2) 참여율 집계 관련, 2017년까지 단체 참여 여부를 직접 질의하여 집계하였으나, 2019년부터 각 참여 단체 선택 응답자를 단체 참여자로 간주하여 집계하였으므로, 직접 비교 시 유의가 필요함

19. 인간관계 만족도¹⁾

(단위: %)

65세 이상	계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2017	100.0	37.8	11.1	26.7	52.8	9.4	7.7	1.7	
남자	100.0	39.4	12.2	27.2	51.5	9.1	7.5	1.6	
여자	100.0	36.7	10.3	26.3	53.8	9.6	7.8	1.8	
65~69세	100.0	39.4	11.6	27.8	52.2	8.4	7.1	1.3	
70~79세	100.0	38.5	11.0	27.5	52.1	9.4	7.8	1.6	
80세 이상	100.0	33.3	10.7	22.6	55.6	11.1	8.2	2.9	
2019	100.0	44.6	13.2	31.4	48.1	7.3	6.2	1.2	
남자	100.0	44.8	13.4	31.4	48.3	6.9	5.5	1.4	
여자	100.0	44.4	13.1	31.3	47.9	7.7	6.7	1.0	
65~69세	100.0	45.8	13.2	32.6	48.3	5.9	4.9	1.0	
70~79세	100.0	45.2	13.4	31.9	46.6	8.2	7.0	1.2	
80세 이상	100.0	41.3	12.9	28.4	51.1	7.6	6.2	1.4	
2021	100.0	44.0	13.2	30.7	49.3	6.7	5.9	0.9	
남자	100.0	44.9	12.9	32.0	48.7	6.4	5.5	1.0	
여자	100.0	43.3	13.5	29.8	49.7	7.0	6.2	0.8	
65~69세	100.0	45.3	13.9	31.4	49.5	5.2	4.5	0.7	
70~79세	100.0	44.3	13.5	30.7	48.7	7.0	6.2	0.8	
80세 이상	100.0	41.4	11.6	29.8	50.1	8.5	7.3	1.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임

20. 노인차별¹⁾²⁾

(단위: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2019	16.4	4.8	13.1	36.2	6.1	14.7	-	-	-
2020	13.8	4.8	7.7	21.9	2.5	6.6	6.0	3.6	5.8
2021	6.1	5.3	8.7	18.4	4.8	11.2	7.7	6.5	4.6
남자	3.9	5.2	8.7	17.8	4.4	11.7	8.1	6.4	5.0
여자	8.3	5.4	8.6	19.0	5.2	10.8	7.4	6.7	4.2
29세 이하	7.9	5.6	6.4	19.3	4.6	10.3	6.9	6.9	4.7
30대	7.3	7.2	6.8	19.9	4.9	11.2	5.3	7.8	4.3
40대	5.9	6.5	5.7	18.8	4.3	12.4	7.7	8.8	5.3
50대	6.7	4.5	7.8	17.2	6.3	12.6	8.0	6.7	5.5
60세 이상	4.0	3.7	13.7	17.5	4.1	10.1	9.4	4.1	3.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21. 세대갈등¹⁾²⁾

(단위: 점, %)

	평균 ³⁾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2013	2.8	2.2	33.7	50.2	13.9
2014	2.7	2.3	35.4	47.9	14.4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2021	2.7	3.2	36.3	48.7	11.8
19~29세	2.7	3.0	39.1	45.9	12.0
30~39세	2.8	3.5	31.1	51.7	13.7
40~49세	2.7	3.2	36.9	48.3	11.5
50~59세	2.7	3.0	36.5	47.9	12.5
60세 이상	2.7	3.1	37.0	49.4	10.5
65세 이상	2.6	3.5	38.8	49.0	8.7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임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임

22. 주택 소유율

(단위: %)

	65세 이상	연령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6.5	71.1	67.8	54.4
2016	66.2	70.3	67.8	54.9
2017	67.2	70.5	69.1	57.2
2018	67.3	70.2	69.4	58.1
2019	67.7	70.0	70.0	59.3
2020	67.9	69.6	70.3	60.3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인구총조사」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23. 지역환경 만족도

(단위: %)

65세 이상	소계	만족함			보통	불만족함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불만족		
거주주택 만족도	100.0	75.6	9.9	65.7	20.7	3.7	3.5	0.2
생활 편의시설 거리	100.0	70.0	7.6	62.4	21.8	8.1	6.3	1.8
대중교통 빈도·노선	100.0	67.9	14.3	53.6	24.7	7.5	6.1	1.4
녹지공간 충분성, 거리	100.0	65.3	19.8	45.5	29.1	5.5	4.8	0.7
치안, 교통안전	100.0	65.0	13.1	51.9	29.2	5.9	4.9	1.0
자녀, 친지와의 거주지 거리	100.0	55.6	9.8	45.8	33.7	10.7	9.3	1.4
이웃과의 교류기회	100.0	67.8	12.0	55.8	28.3	3.9	3.6	0.3
지역사회 전반	100.0	63.9	6.9	57.0	32.1	3.9	3.6	0.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4. 보행 안전성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사망자 수	사망률 ¹⁾		부상자 수	부상률 ²⁾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부상률	인구 10만 명당
2005	991	22.9		6,321	146.3	
2006	961	21.2		6,169	136.3	
2007	985	20.7		6,541	137.4	
2008	903	18.1		7,181	143.9	
2009	952	18.4		7,832	151.3	
2010	966	18.0		7,924	147.7	
2011	883	16.0		8,131	147.4	
2012	959	16.6		8,651	150.0	
2013	951	15.8		9,413	156.3	
2014	919	14.6		10,031	159.8	
2015	909	13.9		10,772	164.7	
2016	866	12.8		10,693	158.2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1.0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3	
2021	601	7.0		9,423	109.9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사망률 =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65세 이상 추계 인구 × 100,000

2) 부상률 =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25. 운전자 사고비중¹⁾

(단위: 건, 명, %)

65세 이상	사고건수	비중		사망자수	비중		치사율 ²⁾	부상자수	비중
2015	23,063	9.9		815	17.6		3.5	33,787	9.6
2016	24,429	11.1		759	17.7		3.1	35,687	10.8
2017	26,713	12.3		848	20.3		3.2	38,627	12.0
2018	30,012	13.8		843	22.3		2.8	43,469	13.5
2019	33,239	14.5		769	23.0		2.3	48,223	14.1
2020	31,072	14.8		720	23.4		2.3	44,269	14.5
2021	31,841	15.7		709	24.3		2.2	44,713	15.3
65~69세	15,612	7.7		286	9.8		1.8	22,285	7.6
70~74세	9,019	4.4		185	6.3		2.1	12,642	4.3
75~79세	4,735	2.3		143	4.9		3.0	6,477	2.2
80~84세	1,963	1.0		71	2.4		3.6	2,655	0.9
85세 이상	512	0.3		24	0.8		4.7	654	0.2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2) 치사율(%)=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건수 × 100

26. 고령자 학대피해¹⁾²⁾ 경험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학대피해 경험률 ³⁾	성별 ⁴⁾		연령별 ⁵⁾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7	45.5	35.1	52.5	17.4	40.2	57.2	109.8
2008	44.5	34.4	51.4	16.1	35.8	58.1	111.2
2009	48.3	35.6	57.1	17.4	38.5	65.4	113.8
2010	54.0	42.1	62.2	20.9	44.2	64.4	126.3
2011	58.4	43.4	68.8	24.4	47.4	73.0	123.6
2012	56.0	41.1	66.4	23.6	43.4	64.7	124.1
2013	55.1	36.6	68.3	24.1	41.5	61.3	122.3
2014	53.1	37.5	64.3	22.5	37.1	65.2	114.1
2015	55.2	37.0	68.4	24.9	43.3	64.1	111.1
2016	60.1	39.1	75.5	26.7	49.3	69.8	115.9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9	34.8	66.4	79.2	117.8
2019	68.2	38.5	90.6	37.5	63.0	72.8	112.1
2020	76.8	44.0	101.7	46.6	69.6	83.2	121.4
2021	79.0	43.8	106.1	49.3	72.0	88.9	121.3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피해 경험률 = 학대피해노인 수 ÷ 65세 이상 추계 인구 × 100,000

4) 성별 학대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피해노인 수 ÷ 65세 이상 성별 추계 인구 × 100,000

5) 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수 ÷ 연령대별 추계 인구 × 100,000

27. 코로나19 발생률¹⁾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60대이상		
							60대	70대	80세이상
2020	117.1	137.9	107.7	104.4	132.9	145.6	148.6	132.5	159.9
2021	1,101.7	1,218.9	1,202.8	1,024.5	939.2	1,039.6	1,152.7	919.8	866.6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 확진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발생률=연령대별 확진자수÷연령대별 추계인구 × 100,000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22.9.1.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로 발생률을 산출하였으며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28. 방역수칙 준수

(단위: %)

	자신의 방역 수칙 준수			타인의 방역 수칙 준수		
	계	잘 지켰다 ²⁾	지키지 않았다 ³⁾	계	잘 지켰다 ²⁾	지키지 않았다 ³⁾
전체 ¹⁾	100.0	99.0	1.0	100.0	92.4	7.6
65세 이상	100.0	99.0	1.0	100.0	96.1	3.9
65~69세	100.0	99.5	0.5	100.0	95.9	4.1
70~79세	100.0	98.8	1.2	100.0	96.2	3.8
80세이상	100.0	98.9	1.1	100.0	96.2	3.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

2) '매우 잘 지켰다'와 '비교적 잘 지켰다'를 합한 수치임

3) '비교적 지키지 않음'과 '전혀 지키지 않음'을 합한 수치임

29. 사회적 관계망 변화

(단위: %)

	전체 ¹⁾	소계	관계망 변화				해당 없다	65세 이상	소계	관계망 변화				해당 없다
			관계가 가까워짐	변화 없음	관계가 멀어짐	해당 없다				관계가 가까워짐	변화 없음	관계가 멀어짐	해당 없다	
가족	100.0	99.5	12.9	74.0	12.6	0.5	100.0	99.3	6.0	70.1	23.2	0.7		
가족 외 친인척	100.0	98.3	2.0	59.6	36.7	1.7	100.0	98.9	1.1	50.1	47.7	1.1		
이웃	100.0	93.1	0.8	53.4	38.9	6.9	100.0	97.3	0.5	48.7	48.0	2.7		
절친한 친구	100.0	97.2	2.2	59.6	35.5	2.8	100.0	93.6	0.8	48.1	44.8	6.4		
동료	100.0	73.7	1.5	49.3	22.9	26.3	100.0	40.4	0.2	23.0	17.2	59.6		
취미활동 단체 회원	100.0	57.7	0.7	25.2	31.8	42.3	100.0	41.7	0.3	15.7	25.7	58.3		
종교단체 구성원	100.0	44.4	0.5	21.9	22.0	55.6	100.0	41.6	0.4	17.3	23.9	58.4		
그 밖의 알고 지내는 사람	100.0	75.8	0.7	36.7	38.4	24.2	100.0	72.9	0.4	30.1	42.5	27.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

30. 소비 생활 변화

(단위: %)

	계	집에서 먹을 음식 구매	안전 및 위생	집에서의 여가활동	집을 꾸미거나 정비	정서적 만족	재택근무 환경 조성	기타
전체 ¹⁾	100.0	57.9	25.9	7.7	2.4	3.7	1.0	1.4
65세 이상	100.0	54.5	36.4	3.2	1.3	0.7	0.5	3.3
65~69세	100.0	57.3	33.3	4.2	1.6	0.7	0.8	2.0
70~79세	100.0	55.1	35.8	3.0	1.5	1.0	0.5	3.0
80세 이상	100.0	49.1	42.1	2.2	0.5	0.3	0.3	5.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

31. 일상생활 변화¹⁾

(단위: %)

65세 이상	변화에 대한 견해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견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	변화가 가속화될 것
방역·위생 활동 강화	100.0	89.7	10.3	100.0	38.2	54.4	7.5
재택근무 등의 확산	100.0	66.0	34.0	100.0	50.5	38.2	11.3
온라인 학습의 확산	100.0	49.4	50.6	100.0	55.8	32.7	11.6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증가	100.0	66.9	33.1	100.0	35.7	47.5	16.8
집에서의 여가·취미 문화 발달	100.0	69.6	30.4	100.0	45.6	43.2	11.2
직장에서의 단체 회식 감소	100.0	71.6	28.4	100.0	52.5	37.5	10.0
친목·사교모임 감소	100.0	59.0	41.0	100.0	56.0	34.5	9.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종사상의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조사대상. "해당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제외

□ 국제비교: OECD 주요 국가별 연령구조

(단위: 천명, %)

	2010년				2021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14세	15-64세	65세 이상
호주	22,019	19.1	67.4	13.6	25,921	18.4	65.1	16.6
오스트리아	8,363	14.8	67.5	17.6	8,922	14.4	66.2	19.4
벨기에	10,878	16.9	65.9	17.2	11,611	16.7	63.9	19.4
캐나다	33,963	16.6	69.4	14.1	38,155	15.7	65.7	18.5
칠레	17,004	21.5	68.7	9.8	19,493	18.5	68.9	12.7
체코	10,465	14.4	70.1	15.5	10,511	16.0	63.5	20.5
덴마크	5,551	18.0	65.4	16.6	5,854	16.2	63.6	20.3
에스토니아	1,332	15.2	67.3	17.4	1,329	16.5	63.2	20.4
핀란드	5,363	16.6	66.2	17.3	5,536	15.4	61.7	22.9
프랑스	62,445	18.3	64.7	17.0	64,531	17.4	61.3	21.3
독일	81,325	13.6	65.9	20.5	83,409	13.9	64.0	22.2
그리스	11,034	14.6	66.2	19.3	10,445	14.1	63.4	22.5
헝가리	9,987	14.7	68.7	16.6	9,710	14.6	65.0	20.4
아이슬란드	318	20.9	66.9	12.1	370	18.6	66.4	14.9
아일랜드	4,525	21.1	67.6	11.3	4,987	19.9	65.3	14.8
이스라엘	7,328	27.8	62.2	10.0	8,900	28.2	59.9	11.9
이탈리아	59,822	14.1	65.5	20.4	59,240	12.7	63.7	23.7
일본	128,105	13.2	63.2	23.6	124,613	11.8	58.4	29.8
룩셈부르크	507	17.7	68.4	13.9	639	15.9	69.3	14.7
멕시코	112,532	29.9	63.9	6.2	126,705	25.0	66.9	8.1
네덜란드	16,617	17.5	67.0	15.4	17,502	15.5	64.5	20.0
뉴질랜드	4,346	20.9	66.2	13.0	5,130	18.9	65.2	15.9
노르웨이	4,890	18.8	66.2	15.0	5,403	17.0	64.9	18.1
폴란드	38,597	15.2	71.4	13.4	38,308	15.4	65.8	18.8
포르투갈	10,588	15.2	66.2	18.6	10,290	13.3	64.1	22.6
대한민국	49,554	16.1	73.1	10.8	51,745	11.9	71.6	16.6
슬로바키아	5,396	15.4	72.0	12.5	5,448	15.9	66.9	17.2
슬로베니아	2,057	14.2	69.5	16.3	2,119	15.2	64.3	20.5
스페인	46,573	15.0	68.1	16.9	47,487	14.1	66.0	19.9
스웨덴	9,382	16.6	65.1	18.3	10,467	17.7	62.2	20.1
스위스	7,822	15.2	68.0	16.8	8,691	15.1	66.0	19.0
튀르키예	73,195	26.7	66.9	6.4	84,775	23.5	68.1	8.4
영국	62,760	17.6	66.0	16.3	67,281	17.7	63.4	18.9
미국	311,183	19.9	67.1	13.0	336,998	18.2	65.1	16.7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국제비교: OECD 주요 국가의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도달연도 및 소요연수

(단위: 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도달연도				고령사회 도달 소요연수 (7% → 14%)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연수 (14% → 20%)	20%→30% 도달 소요연수
	7% ¹⁾ 고령화사회	14% 고령 사회	20% 초고령사회	30%			
호주	1939	2012	2033	2081	73	21	48
오스트리아	1929	1970	2023	2049	41	53	26
벨기에 ²⁾	1925	1976	2023	2070	51	47	47
캐나다	1945	2010	2024	2076	65	14	52
칠레	1995	2025	2037	2058	30	12	21
체코 ²⁾	-	2005	2020	2100+	-	15	80+
덴마크	1925	1978	2020	2096	53	42	76
에스토니아	-	1997	2020	2053	-	23	33
핀란드	1957	1994	2015	2060	37	21	45
프랑스 ²⁾	1864	1979	2018	2063	115	39	45
독일	1932	1972	2008	2046	40	36	38
그리스	1952	1991	2013	2039	39	22	26
헝가리 ²⁾	-	1994	2020	2061	-	26	41
아이슬란드	-	2017	2035	2063	-	18	28
아일랜드	-	2019	2035	2078	-	16	43
이스라엘	1971	2038	2076	2100+	67	38	24+
이탈리아	1927	1988	2007	2033	61	19	26
일본	1969	1994	2004	2023	25	10	19
룩셈부르크 ²⁾	-	1997	2034	2067	-	37	33
멕시코	2016	2039	2053	2077	23	14	24
네덜란드	1940	2004	2022	2068	64	18	46
뉴질랜드	-	2013	2031	2074	-	18	43
노르웨이	1885	1977	2028	2075	92	51	47
폴란드	1966	2012	2025	2050	46	13	25
포르투갈	1950	1992	2014	2038	42	22	24
대한민국	2000	2018	2025	2035	18	7	10
슬로바키아	1961	2015	2030	2053	54	15	23
슬로베니아	-	2001	2020	2044	-	19	24
스페인	1947	1992	2022	2039	45	30	17
스웨덴	1887	1972	2020	2078	85	48	58
스위스	1931	1985	2024	2054	54	39	30
튀르키예	2015	2035	2048	2080	20	13	32
영국	1929	1975	2025	2073	46	50	48
미국	1942	2014	2029	2093	72	15	64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사회문제 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2022)」

주: 1) 65세 이상 인구 7%가 1950년 이전에 도달한 경우,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사회문제 연구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자료가 없는 경우 '-' 표기

2)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최초로 7%, 14%, 20%에 도달한 시점으로 산정

□ 국제비교: OECD 주요 국가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010년			2021년		
	중위연령	노년부양비 ¹⁾	노령화지수 ²⁾	중위연령	노년부양비 ¹⁾	노령화지수 ²⁾
호주	36.1	20.1	71.2	37.0	25.5	90.2
오스트리아	40.8	26.1	119.0	42.8	29.4	135.1
벨기에	40.0	26.1	101.6	40.9	30.4	116.4
캐나다	38.7	20.3	84.9	40.2	28.2	117.7
칠레	31.6	14.2	45.6	34.9	18.4	68.7
체코	38.7	22.0	107.4	42.6	32.2	127.8
덴마크	39.6	25.3	92.1	41.3	31.9	125.4
에스토니아	39.3	25.9	114.5	41.5	32.3	123.7
핀란드	41.0	26.1	104.2	42.4	37.1	148.4
프랑스	39.1	26.2	92.8	41.6	34.8	122.7
독일	43.2	31.0	150.4	44.9	34.7	159.8
그리스	40.5	29.1	132.2	44.7	35.5	160.1
헝가리	38.9	24.1	112.7	42.7	31.4	140.3
아이슬란드	33.9	18.1	58.0	35.9	22.5	80.1
아일랜드	33.3	16.8	53.8	37.6	22.7	74.5
이스라엘	28.5	16.1	36.0	29.0	19.9	42.4
이탈리아	42.5	31.2	144.8	46.8	37.2	187.2
일본	44.2	37.3	178.8	48.4	51.0	253.0
룩셈부르크	38.0	20.4	78.8	38.7	21.3	92.7
멕시코	24.9	9.6	20.6	29.0	12.2	32.6
네덜란드	39.8	23.0	88.2	41.7	30.9	128.7
뉴질랜드	35.9	19.6	62.1	36.5	24.4	84.3
노르웨이	37.7	22.6	79.6	39.3	27.9	106.7
폴란드	36.9	18.8	88.0	40.9	28.6	122.6
포르투갈	40.5	28.1	122.5	45.0	35.2	169.1
대한민국	37.9	14.8	67.2	44.3	23.1	139.5
슬로바키아	36.2	17.4	81.1	40.6	25.8	108.5
슬로베니아	40.3	23.4	114.5	43.2	31.9	135.0
스페인	39.1	24.9	113.2	43.9	30.2	141.1
스웨덴	39.7	28.1	109.9	39.5	32.3	113.5
스위스	40.5	24.7	110.7	41.8	28.7	125.9
튀르키예	27.1	9.5	23.8	30.9	12.3	35.7
영국	38.5	24.8	92.7	39.6	29.8	107.1
미국	36.1	19.4	65.6	37.7	25.6	91.4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주: 1)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2)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 국제비교: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단위: 년)

	남자		여자	
	2010	2020	2010	2020
호주	18.9	20.3	21.8	23.0
오스트리아	17.9	17.9	21.4	21.0
벨기에	17.6	17.6	21.3	20.8
캐나다	18.4	19.4	21.5	22.1
칠레	17.2	18.6	20.5	22.0
체코	15.5	15.2	19.0	19.1
덴마크	17.0	18.4	19.7	21.2
에스토니아	14.3	15.9	19.5	21.1
핀란드	17.5	18.8	21.5	22.2
프랑스	18.9	19.0	23.4	23.1
독일	17.8	18.0	20.9	21.2
그리스	18.2	18.5	21.0	21.4
헝가리	14.1	14.0	18.2	17.9
아이슬란드	18.3	20.3	21.5	22.0
아일랜드	17.7	19.4	20.8	21.9
이스라엘	18.9	19.3	21.2	22.0
이탈리아	18.3	18.3	22.1	21.7
일본	18.7	20.1	23.8	24.9
룩셈부르크	17.3	18.5	21.6	21.8
멕시코	16.6	16.7	18.8	18.7
네덜란드	17.7	18.2	21.0	20.7
뉴질랜드	18.5	19.8	21.0	22.1
노르웨이	18.0	19.8	21.2	22.1
폴란드	15.1	14.6	19.5	19.2
포르투갈	17.2	17.8	21.0	21.6
대한민국	16.8	19.2	21.2	23.6
슬로바키아	14.1	14.8	18.0	18.9
슬로베니아	16.8	16.9	21.0	20.6
스페인	18.6	18.4	22.9	22.4
스웨덴	18.3	18.9	21.2	21.4
스위스	19.0	19.3	22.5	22.2
튀르키예	14.0	-	16.0	-
영국	18.2	18.0	20.8	20.6
미국	17.7	17.0	20.3	19.8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2.9.4. 기준

□ 국제비교: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빈곤율¹⁾

(단위: 년)

	상대적 빈곤율 ²⁾ (중위소득 50% 이하)				지니계수 ³⁾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18~65세 (근로연령)	66세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이상 (은퇴연령)
호주	9.6	23.7	-	-	0.313	0.346	-	-
오스트리아	9.2	10.0	9.1	10.1	0.284	0.271	0.274	0.270
벨기에	7.7	8.5	7.3	10.5	0.257	0.237	0.261	0.231
캐나다	11.8	11.9	11.5	12.3	0.309	0.286	0.303	0.292
칠레	-	-	-	-	-	-	-	-
체코	4.8	10.4	4.3	8.2	0.241	0.201	0.241	0.201
덴마크	7.7	3.6	-	-	0.264	0.236	-	-
에스토니아	11.9	37.6	11.1	34.5	0.287	0.297	0.290	0.297
핀란드	7.2	7.2	-	-	0.275	0.240	-	-
프랑스	8.6	4.1	8.5	4.4	0.307	0.278	0.297	0.275
독일	9.7	9.1	-	-	0.294	0.269	-	-
그리스	13.1	7.5	12.2	7.2	0.316	0.265	0.317	0.272
헝가리	9.6	5.3	8.4	13.2	0.287	0.229	0.281	0.303
아이슬란드	-	-	-	-	-	-	-	-
아일랜드	7.0	7.4	-	-	0.294	0.281	-	-
이스라엘	13.2	20.6	14.3	18.9	0.330	0.382	0.332	0.355
이탈리아	14.2	11.3	-	-	0.333	0.315	-	-
일본	25.7	40.0	-	-	0.647	0.677	-	-
룩셈부르크	10.9	7.1	10.0	5.2	0.321	0.272	0.308	0.264
멕시코	12.9	26.7	-	-	0.415	0.473	-	-
네덜란드	7.9	5.0	8.3	5.2	0.296	0.245	0.296	0.249
뉴질랜드	11.3	23.0	10.8	19.8	0.320	0.336	0.315	0.334
노르웨이	9.6	4.3	9.6	4.3	0.273	0.226	0.273	0.224
폴란드	9.7	12.8	-	-	0.285	0.263	-	-
포르투갈	10.3	9.0	9.8	10.7	0.310	0.336	0.304	0.323
대한민국	11.8	43.4	11.1	43.2	0.325	0.406	0.317	0.389
슬로바키아	7.1	5.0	6.9	6.6	0.232	0.205	0.217	0.208
슬로베니아	6.8	12.1	6.4	13.0	0.246	0.251	0.245	0.251
스페인	13.8	10.2	13.8	11.6	0.332	0.300	0.319	0.303
스웨덴	8.2	10.9	8.6	11.4	0.266	0.287	0.271	0.295
스위스	7.6	21.4	7.2	18.8	0.299	0.308	0.304	0.326
튀르키예	11.1	11.1	-	-	0.389	0.369	-	-
영국	10.6	14.9	11.0	15.5	0.361	0.337	0.360	0.331
미국	15.8	23.0	15.7	23.0	0.387	0.417	0.387	0.421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2.9.4. 기준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2)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3)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